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1년 8월
박사학위 논문

대학도서관의 라키비움(Larchiveum) 도입을 위한 공간평가 모형개발

조선대학교 대학원

디자인경영학과 실내디자인전공

오 수 현

대학도서관의 라키비움(Larchiveum) 도입을 위한 공간평가 모형개발

Development of a Space Evaluation Model for the
Introduction of Larchiveum in University Library

2021년 8월 27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디자인경영학과 실내디자인전공

오 수 현

대학도서관의 라키비움(Larchiveum) 도입을 위한 공간평가 모형개발

지도교수 윤 갑 근

이 논문을 디자인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디자인경영학과 실내디자인전공


오 수 현

오수현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이진영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진욱 


위 원 서경대학교 교수

鄭熙勳 

위 원 군산대학교 교수

韓世덕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尹甲根 

2021년 6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제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3 연구 흐름도.....	6

제2장 이론적 고찰

2.1 대학도서관.....	8
2.1.1 정보환경과 도서관의 변화.....	8
2.1.2 대학도서관의 개념과 공간구성.....	13
2.1.3 대학도서관의 업무와 기능.....	18
2.1.4 대학도서관의 유형.....	21
2.1.5 대학도서관의 현황.....	24
2.2 라키비움.....	30
2.2.1 라키비움의 개념.....	30
2.2.2 라키비움의 구성.....	35
2.2.3 라키비움의 특성.....	43
2.2.4 라키비움의 현황.....	45
2.3 선행연구.....	56
2.3.1 선행연구 고찰.....	56

2.3.2 연구의 차별성..... 64

제3장 라키비움의 도입

3.1 대학도서관의 라키비움 도입 필요성..... 67

3.2 대학 라키비움의 기능적 요소..... 73

3.3 대학 라키비움의 공간적 요소..... 76

제4장 대학도서관의 라키비움 도입을 위한 평가

4.1 공간 특성 추출..... 82

4.2 평가항목 예비지표..... 101

4.3 평가 예비지표 검증..... 103

4.3.1 1차 중요도 조사 개요..... 103

4.3.2 1차 중요도 조사 결과..... 107

4.3.3 1차 중요도 조사 분석..... 110

4.3.4 전문가 FGI 심층 면접..... 131

4.4 공간평가 항목에 대한 AHP 중요도 조사..... 135

4.4.1 AHP 기법..... 135

4.4.2 전문가 AHP 설문조사 개요..... 137

4.4.3 AHP 설문조사 결과..... 141

4.4.4 연구 결과 및 지표 우선순위 종합..... 154

4.4.5 평가지표 점수화..... 156

4.4.6 최종 공간평가지표의 가중치 개발..... 159

4.4.7 공간 특성 항목 평가함수 개발..... 161

4.5 소결 162

제5장 평가 방법의 검증 및 분석

5.1 평가모형의 검증 공간 선정 164

 5.1.1 공간 선정 기준 164

 5.1.2 선정 공간 구성 164

5.2 평가 검증 분석 167

 5.2.1 표본 설정 및 조사 167

 5.2.2 공간 평가 검증 168

5.3 라키비움 공간평가 모형개발 171

5.4 소결 173

제6장 결론

6.1 연구 결과 및 시사점 175

6.2 향후 연구 방향성 178

참고문헌

부록

표 목 차

[표 2-1] [도서관법] 제2조 대학도서관의 기능.....	14
[표 2-2] 대학도서관 공간구성.....	15
[표 2-3] 대학도서관 연면적 산정식.....	16
[표 2-4] 대학도서관 면적 배분 기준.....	16
[표 2-5] 국내·외 대학도서관 공간분류.....	17
[표 2-6] 대학도서관의 주요 업무.....	19
[표 2-7] 전국 대학도서관 현황.....	25
[표 2-8]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대학도서관 자료 기준[별표2] ...	26
[표 2-9] 전국대학의 재학생 1인당 도서관 소장 도서 수.....	27
[표 2-10] 전국 대학의 재학생 1인당 연간 증가 책 수.....	28
[표 2-11]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법적 정의.....	32
[표 2-12]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목적 비교 및 라키비움의 목적.....	36
[표 2-13]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소장자료 비교 및 라키비움 소장자료 분류.....	39
[표 2-14]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전문인력 비교 및 라키비움 전문인력 구성.....	42
[표 2-15] 라이브러리 파크 개요.....	49
[표 2-16] 라이브러리 파크 공간 현황.....	49
[표 2-17] 원자력 라키비움 개요.....	51
[표 2-18] 원자력 라키비움 공간 현황.....	51
[표 2-19] 국립중앙도서관의 개요.....	53
[표 2-20]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개요.....	54
[표 2-21] 대학도서관 선행연구.....	58
[표 2-22] 라키비움 선행연구.....	62
[표 3-1] 서울권, 수도권, 지방권 4년제 대학 재학생 현황.....	69
[표 3-2] 각 대학 등록금 수입.....	70
[표 3-3] 대학도서관의 라키비움도입 필요성.....	72
[표 3-4]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및 라키비움 기능 분석.....	74

[표 3-5] 도서관 요구시설.....	76
[표 3-6] 기록관 요구시설.....	77
[표 3-7] 박물관 요구시설.....	78
[표 3-8]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공간 비교 및 라키비움 필수공간.....	79
[표 4-1] 선행연구의 라키비움 기능적, 공간적 특성.....	83
[표 4-2] 대학 라키비움의 공간 특성 도출.....	84
[표 4-3] 어메니티 특성 분류.....	97
[표 4-4] 대학도서관의 라키비움 도입을 위한 공간평가 예비지표 세부내용...	102
[표 4-5] 전문가 중요도 조사 개요.....	104
[표 4-6] 응답자 현황.....	104
[표 4-7] 응답자의 대학도서관 이용.....	105
[표 4-8] 공간 특성 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	106
[표 4-9] 공간 특성별 중요도 점수.....	108
[표 4-10] 공간 특성별 상관관계.....	109
[표 4-11] 기능성의 집단별 중요도.....	110
[표 4-12] 기능성의 세부지표별 중요도.....	111
[표 4-13] 기능성의 세부지표별 상관관계.....	112
[표 4-14] 적응성의 집단별 중요도.....	113
[표 4-15] 적응성의 세부지표별 중요도.....	114
[표 4-16] 적응성의 세부지표별 상관관계.....	115
[표 4-17] 접근성의 집단별 중요도.....	116
[표 4-18] 접근성의 세부지표별 중요도.....	117
[표 4-19] 접근성의 세부지표별 상관관계.....	118
[표 4-20] 다양성의 집단별 중요도.....	119
[표 4-21] 다양성의 세부지표별 중요도.....	120
[표 4-22] 다양성의 세부지표별 상관관계.....	121
[표 4-23] 상호작용성의 집단별 중요도.....	122
[표 4-24] 상호작용성의 세부지표별 중요도.....	123

[표 4-25]	상호작용성의 세부지표별 상관관계	124
[표 4-26]	쾌적성의 집단별 중요도	125
[표 4-27]	쾌적성의 세부지표별 중요도	126
[표 4-28]	쾌적성의 세부지표별 상관관계	127
[표 4-29]	유연성의 집단별 중요도	128
[표 4-30]	유연성의 세부지표별 중요도	129
[표 4-31]	유연성의 세부지표별 상관관계	130
[표 4-32]	FGI 응답자 현황	131
[표 4-33]	공간 특성 평가항목의 빈도 분석 결과	132
[표 4-34]	대학도서관의 라키비움도입을 위한 공간평가 항목지표	138
[표 4-35]	쌍대비교 문항과 척도 설명 예시	139
[표 4-36]	AHP 기법 쌍대비교 척도의 설명	139
[표 4-37]	전문가 AHP 설문조사 개요	140
[표 4-38]	AHP 응답자 기본 특성	140
[표 4-39]	평가항목 가중치 표준화 및 평균	141
[표 4-40]	평가항목 신뢰성(일관성) 검증	142
[표 4-41]	평가항목 일관성	142
[표 4-42]	기능성 세부지표 가중치 표준화 및 평균	143
[표 4-43]	기능성 세부지표 신뢰성(일관성) 검증	143
[표 4-44]	기능성 세부지표 일관성	143
[표 4-45]	적응성 세부지표 가중치 표준화 및 평균	145
[표 4-46]	적응성 세부지표 신뢰성(일관성) 검증	145
[표 4-47]	적응성 세부지표 일관성	145
[표 4-48]	접근성 세부지표 가중치 표준화 및 평균	146
[표 4-49]	접근성 세부지표 신뢰성(일관성) 검증	147
[표 4-50]	접근성 세부지표 일관성	147
[표 4-51]	다양성 세부지표 가중치 표준화 및 평균	148
[표 4-52]	다양성 세부지표 신뢰성(일관성) 검증	148

[표 4-53] 다양성 세부지표 일관성.....	148
[표 4-54] 상호작용성 세부지표 가중치 표준화 및 평균.....	149
[표 4-55] 상호작용성 세부지표 신뢰성(일관성) 검증.....	150
[표 4-56] 상호작용성 세부지표 일관성.....	150
[표 4-57] 쾌적성 세부지표 가중치 표준화 및 평균.....	151
[표 4-58] 쾌적성 세부지표 신뢰성(일관성) 검증.....	152
[표 4-59] 쾌적성 세부지표 일관성.....	152
[표 4-60] 유연성 세부지표 가중치 표준화 및 평균.....	153
[표 4-61] 유연성 세부지표 신뢰성(일관성) 검증.....	154
[표 4-62] 유연성 세부지표 일관성.....	154
[표 4-63] AHP 결과 종합.....	155
[표 4-64] 평가항목별 변환점수.....	156
[표 4-65] 기능성 세부항목 변환점수.....	156
[표 4-66] 적응성 세부항목 변환점수.....	157
[표 4-67] 접근성 세부항목 변환점수.....	157
[표 4-68] 다양성 세부항목 변환점수.....	158
[표 4-69] 상호작용성 세부항목 변환점수.....	158
[표 4-70] 쾌적성 세부항목 변환점수.....	159
[표 4-71] 유연성 세부항목 변환점수.....	159
[표 4-72] 최종평가지표 항목별 가중치 종합 표.....	160
[표 4-73] 공간 특성 항목 평가 함수.....	161
[표 5-1]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University Library 현황.....	165
[표 5-2]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University Library 공간 구성.....	166
[표 5-3]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University Library 공간평가 결과..	168
[표 5-4] 공간평가 세부지표 평가점수 결과.....	169
[표 5-5] 공간평가가 가진 함수.....	171
[표 5-6] 라키비움 공간평가모형.....	172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 흐름도	6
[그림 2-1] 도서관 패러다임의 변화	11
[그림 2-2] 대학도서관 발전계획 세부과제 키워드	21
[그림 2-3] 현재 전국 대학도서관 수의 변동 추이	25
[그림 2-4] 전국 대학의 재학생 1인당 도서관 소장 도서 수	27
[그림 2-5] 2014-2018 전국 대학의 재학생 1인당 소장 도서 수의 변화	28
[그림 2-6] 2014-2018 전국 대학 재학생 1인당 연간 증가 책 수의 변화	29
[그림 2-7]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기능 관계	34
[그림 2-8]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라이브러리 파크	50
[그림 2-9] 원자력 라키비움	52
[그림 2-10] 국립중앙도서관 라키비움 문학실, 기록 매체 박물관	53
[그림 2-11]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라키비움	55
[그림 2-12]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라키비움 구성도	55
[그림 3-1] 대학 라키비움 모형	68
[그림 4-1] 리처드 뷰캐넌, 인터랙션 4가지 유형	91
[그림 4-2] 공간에서의 상호작용성	93
[그림 4-3] 반 두스부르흐, 데 스틸 건축의 자유로운 벽체구성. 1928	99
[그림 4-4] 엘 리시츠키, 프라운 라움, 1923	100
[그림 4-5] 공간 특성 평가지표의 중요도	107
[그림 4-6] 기능성 세부지표 중요도 점수	111
[그림 4-7] 적응성 세부지표 중요도 점수	114
[그림 4-8] 접근성 세부지표 중요도 점수	117
[그림 4-9] 다양성 세부지표 중요도 점수	120
[그림 4-10] 상호작용성 세부지표 중요도 점수	123
[그림 4-11] 쾌적성 세부지표 중요도 점수	126
[그림 4-12] 유연성 세부지표 중요도 점수	129

[그림 4-13] 평가항목 영역의 AHP 중요도	141
[그림 4-14] 기능성 세부지표의 AHP 중요도	143
[그림 4-15] 적응성 세부지표의 AHP 중요도	144
[그림 4-16] 접근성 세부지표의 AHP 중요도	146
[그림 4-17] 다양성 세부지표의 AHP 중요도	148
[그림 4-18] 상호작용성 세부지표의 AHP 중요도	149
[그림 4-19] 쾌적성 세부지표의 AHP 중요도	151
[그림 4-20] 유연성 세부지표의 AHP 중요도	153
[그림 4-21] 공간평가 평가점수표 계산식	160

ABSTRACT

Development of a Space Evaluation Model for the Introduction of Larchiveum in University Library

Oh soohyun

Advisor : Prof. Yoon Gab-geun, Ph.D.

Department of Design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organic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ies and society is well illustrated i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universities. Universities and communities cannot be considered separate from each other, are combined, and have been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needs of the community to func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and the welfare of local residents.

As the center of education and culture in the community, the value of the university library will be an important consideration as publicness as a structural social being is required, and various methods need to be devised for utilization.

The current university library should expand its role to create a complex cultural space while seeking to diversify its role to reflect users' behavior and meet demands as the characteristics of users become more diverse. Although advanced information technology such as AI, big data, IOT, and 3D computers are rapidly evolving into facilities that serve multiple functions and roles due to increased demands from users, users of museums, art galleries and performance halls are required to receive information through a single access point and interface. Each institution is attempting to introduce Larchiveum, which breaks down the boundaries of functions and spaces between each other and provides convergence services. There are many cases of building Larchiveum abroad, and research is urgently needed to raise the

need for the introduction of Larchiveum in Korea.

This study presents a space evaluation model for introducing Larchiveum, which is applied to Korea as a complex cultural facility and space concept,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high technology, demands of users of various cultural facilities, and changes in the social paradigm for university libraries. It is hoped that the space composition plan for the introduction of Larchiveum will help expand and develop cultural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and its own functions by presenting an evaluation model to make it user-centered, organically connected to each other, fuse museum and archives.

Based on the space characteristics analysis of 15 prior researchers who have been working on Larchiveum since 2012, the first preliminary checklist is drawn, and the first space evaluation items are derived through importance analysis and expert FGI. The space evaluation preliminary indicators were selected and the second expert AHP survey was conducted to develop a comprehensive AHP result table and a comprehensive weighted table for each item of the final evaluation index.

The sample setting to verify this evaluation index was selected by more than 10,000 students from four-year universities in the province, and Jeonju University was selected among the new university libraries since 2010, and six managers were preferentially evaluated.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and analysis produc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ere likely to differ depending on the subjective perspective of the appraiser and the department in which they worked, depending on the details of the evaluation. If you look at the space evaluation results table, the difference was evident, and this was related to the average score of the question, and the interview content also showed a clear difference in evaluation by evaluator.

The developed space evaluation model has derived top representative priorities by space characteristics through importance analysis, and these detailed space evaluation models can be evaluated clearly according to their importance. The space evaluation model is an objective evaluation with an evaluation function and expertise, and it is judged that it is good for

verifying the feasibility of space evaluation.

In the future, we hope that the space evaluation model will be used in the composition or planning stage of space to be considered when introducing Larchiveum in the university library, and further research and various evaluation methods to express it in space will be conducted.

제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연구 흐름도

제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도서관이 변화의 중심은 아니었지만, 변화를 끌어내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슬람제국의 도서관은 중세 암흑기 속에서 사라진 그리스 문화를 유럽에 되돌려주는 역할을 하였고, 유럽의 명문대학들이 탄생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또한 근대의 영국국가도서관이나 프랑스국가도서관은 국력의 상징으로 지식문화의 선도 기능을 하였고, 19세기 후반의 공공도서관은 시민사회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도서관, 특히 대학도서관이 지니는 시대의 중요한 역할이 있음에는 분명한 사실이고 대학과 사회의 유기적인 관계는 대학의 형성과 그 발전과정 속에 잘 나타나 있다.

대학과 지역사회는 서로 분리되었다고 볼 수 없고 연결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대학은 지역사회의 필요에 따라 설립되어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를 위한 기능을 해 온 것이다. 대학은 대학이 위치한 지역사회와 더 나아가 국가적 차원에서의 문제해결과 복지증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봉사하는 기관이다. 대학의 봉사 기능은 산업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청하는 사회, 문화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학은 지역사회의 교육, 문화의 중심지로서 구조적으로도 사회적 존재로서의 공공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대학도서관이 일반자료의 대출, 다양한 정보수집이나 개인의 학업 증진을 위한 장소의 역할이 컸다면, 현재의 대학도서관은 디지털 자료의 증가와 취업난 등의 사회적 현상과 맞물리며 점점 일반적인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도서관보다는 개인이나 팀 프로젝트의 목적을 위한 단순 학습공간의 성격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런 현상들은 대학도서관의 활용 가치재고를 위한 중요한 고려사항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에 소속된 도서관을 방문하는 이용자층이 점점 다양화되고 있다. 학내의 구성원인 대학생과 교직원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많은 수의 대학

들이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를 위해 대학도서관이나 각종 대학의 시설들을 저렴한 비용이나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도서관은 최근 수년간 건축물의 증축이나 공간재구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이용자행태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의 변화하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역할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가 복합문화공간의 조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도서관 역할 확대 방안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야기치 못한 팬데믹으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작되었고 우선적으로 폐쇄가 결정된 공공시설은 단연코 문화시설이었다. 공연시설, 전시시설, 그리고 도서관을 들 수 있는데 도서관에 접근할 수가 없게 되어보니 그것이 학생이나 주민들에게는 많은 불편함과 손해로 다가와 이전에 느끼지 못한 도서관의 소중함을 그 이상으로 느끼게 되었고, 어느 한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도서관은 전례 없는 팬데믹 사태로 인하여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비대면 서비스를 강행해야 했고 서둘러 차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놓이게 되었다. 한국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정진한 회장은 대학도서관 개관에 대한 문의가 빈번하고 대학본부 차원에서 도서관 정보서비스 홍보 요청이 이어지고 전자 콘텐츠의 이용률 증가 등을 들어 COVID-19로 대학도서관의 중요성이 오히려 커졌다고 밝혔다.¹⁾

많은 질병 관련 전문가들은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고 이후 극복이 된다고 하여도 이러한 바이러스성 질병은 더욱더 짧은 주기로 계속 나타나리라 예측하는데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대학도서관이 문을 닫을 수는 없다. 팬데믹 현상뿐만이 아니라 정보환경의 변화와 출생률 저하로 인한 학생 수의 감소, 지역의 쇠퇴와 더불어 경제적 양극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극복할 수 있는 시민의 인식 역량 강화도 절실한 시점이다. 인도의 수학자이자 사서인 랑가나단(Siyali Ramamrita Ranganathan)은 ‘도서관은 성장하는 유기체다(Library is growing organism)’라고 도서관학 5 법칙 중 마지막 법칙으로 밝혔다. 도서관은 이용자에게 그 시대에 맞는 지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도서관법 제 14조

1) 정진한. “포스트 코로나 19시대의 대학도서관”. 한국대학신문, 2020.04.28. <http://news.unn.net/>.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조항도 이를 반영하듯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²⁾ 정보 소통의 장으로서 대학도서관의 역할을 제고하고 기술을 활용하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인간 고유의 능력을 강화하는 지속가능한 도서관을 모색하여야 한다. 앞으로의 대학 도서관은 건물의 변화를 넘어서 이용자와 제공자가 최대의 만족을 누리고 상호 교류가 잘 이루어지며 다양한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대학 도서관으로 변모할 수 있는가에 중요성이 있다. 특히 국내 대학도서관은 학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격의 이용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중요 전략으로 공간에 주목하여 공간의 특성 및 기능을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AI와 빅데이터, 3D 컴퓨터, IOT 등 최첨단 정보기술의 발전과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 증가로 대학도서관은 복합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미술관과 박물관, 공연장을 이용하는 문화시설의 사용자들은 그 대상이 도서관이나 박물관, 기록관, 미술관과 관계없이 하나의 단일 접점과 인터페이스로의 정보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서관과 기록관, 박물관의 각 기관간 기능과 공간의 경계를 허물고 융합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개념인 라키비움(Larchiveum)이 도입되고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라키비움 구축사례를 찾아볼 수 있으며 국내에서 라키비움의 도입 및 필요성을 제기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첨단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복합문화시설 사용자의 요구 및 대학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문화시설과 공간의 개념으로서 우리 현실에 맞게 적용되고 있는 라키비움을 대학도서관에 도입하기 위한 공간 평가모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로써 라키비움의 도입을 위한 공간구성 방안을 공간과 콘텐츠, 프로그램 등이 이용자 중심적이며 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대학도서관에 박물관과 기록관의 기능을 융합하며, 도서관 공간을 기능별로 재구성할 수 있는 대학 라키비움이 되도록 평가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화발전과 대학 자체 내 기능을 확장, 발전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 정책기획단). “도서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12.22., www.law.go.kr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불안 요소로 떠오른 팬데믹 시대에 변화의 한 중심에 있는 국내 대학도서관에 대하여 라키비움 개념을 도입할 시 공간에 대한 평가요소를 제시하여 대학도서관이 라키비움 화 되는데 공간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통해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대학도서관의 경우 이에 관한 개념 정리 후 선행연구 사례조사와 분석을 통해 라키비움 화가 될 수 있는 선행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기존 연구의 대학도서관에 관한 유형과 요소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진행된 대학도서관에 대한 연구는 도서관만의 공간사용의 만족도나 공간의 효율성 및 주제별 공간계획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인데 이를 분석하여 라키비움 화 도입에 대한 공간평가 지표 구축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라키비움에서는 대학도서관에 이어 기록관, 박물관의 일반적 개념과 라키비움 관련 선행연구의 동향을 살펴본 후 라키비움의 공간에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의 이론적 고찰과 분석을 통하여 라키비움 화 된 공간의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라키비움 관련하여 2012년부터 진행되어온 15명의 선행연구자의 공간 특성 분석을 바탕으로 공간평가 항목과 그에 따른 세부내용들을 도출한 후 1차 예비 평가지표를 도출한다. 1차로 도출된 공간평가 항목들은 객관성과 적합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중요도 분석 및 전문가 FGI를 통하여 최종 공간평가 예비지표를 제시하고 AHP 분석에 가중치 산출을 통하여 계량화된 수치를 통해 공간평가 항목별 상대적 중요도를 제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과 평가분석을 통하여 추후 대학도서관에서 라키비움의 도입 시 고려되어야 할 공간 계획의 방향성을 모색한다.

1.3 연구 흐름도



[그림 1-1] 연구 흐름도

제2장

이론적 고찰

2.1 대학도서관

2.2 라키비움

2.3 선행연구

2장 이론적 고찰

2.1 대학도서관

2.1.1 정보환경과 도서관의 변화

(1) 정보환경의 변화

정보와 지식이 범람하는 정보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가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얻고자 하는 갈망이 크다. 더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얻으면 얻을수록 현대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중심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려는 이용자의 요구도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정보환경의 흐름에 발맞춰 도서관의 역할 및 도서관이 제공하는 정보서비스는 이전보다 더욱더 폭넓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도서관의 정보환경 변화를 몇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정보 매체의 다변화이다.

2000년대 이후 전자출판 및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 정보처리기술의 발전은 도서 환경과 정보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아날로그 인쇄형 자원이 디지털 자원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전자매체가 증가하였으며, 정보유통체계 또한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이용자에게 이전보다 용이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나 지식이 국가 및 사회발전의 토대가 되는 현대사회에서 도서관 및 정보센터는 그 기능과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도서관과 정보센터는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요구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과 전자매체의 발전과 증가에 따른 정보환경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보 수요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유사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

업을 통해 더욱더 다양한 형태의 정보서비스 창출도 요구된다.

둘째, 유비쿼터스 환경(U-Library)으로 인한 정보서비스의 환경 변화이다.

유비쿼터스 환경은 사용자가 물리적으로 고정된 기기나 장소가 아닌 장소나 디바이스(Device)에 상관없이 자유로운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한 정보통신 환경이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환경은 정보서비스의 공간적 제약과 시간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우며 대량의 정보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들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환경도 제공한다. 현재 많은 도서관과 정보센터에서 외부의 모바일 기기나 디바이스로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환경을 구축,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선택적 정보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셋째, 네트워킹을 통한 협력형 도서관 서비스의 증가이다. 도서관의 패러다임이 소장에서 접근으로 변모함에 따라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제공과 이용이 보편화하였고 이러한 환경은 유사 기관 간의 협력 서비스를 위한 기반이 되었다. 또한 정보소외계층이 정보와 지식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의 평등을 실현하는 장치로서의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용자의 요구가 확대되고 이러한 요구가 적극적인 정보탐색 행위로 나타나면서 유사한 정보를 서비스하는 기관 간 협력 서비스가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도서관은 유사 기관인 박물관, 기록관 등과의 협력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용자들은 자신이 가진 정보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특정한 기관에서 소장한 자료만을 대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즉, 이용자는 자신의 정보요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서관의 자료뿐만 아니라 기록관, 박물관의 자료까지도 종합적으로 이용·활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따라서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 등 유사 기관 간의 협업은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³⁾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정보 수집과 서비스 개발, 더 나아가 유사 기관과의 협업 개발 등은 결국 도서관을 둘러싼 정보환경의 변화 속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도서관의 역할 변화임을 알 수 있다.

3) 조현양 외. “도서관에서의 라키비움 실현을 위한 제도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2015, pp.27-28.

(2) 도서관의 변화

도서관의 기본적인 역할은 [도서관법] 제 2조의 도서관 서비스의 정의와 [도서관법] 제8조 공공도서관의 업무에 제시된 영역으로 볼 수 있다. [도서관법] 제 2조 3항에는 도서관 서비스에 관하여 ‘도서관이 도서관 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열람·참고 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 서비스, 도서관 자료 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자 지도 교육, 공중의 독서 활동 지원 등 일체의 유·무형 서비스’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도서관법] 제 28조 공공도서관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에 대해서는 ‘①도서관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②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③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④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⑤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 자료 상호대차 ⑥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⑦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이렇게 제시되어 있다.⁴⁾ 즉 도서관의 업무는 이용자가 요구하는 도서관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 제공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업무이고 공중을 위한 다양한 독서진흥과 문화행사,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진행이나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 및 상호대차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제정되어 있다.

도서관의 시대적 개념을 선행연구 내용으로 살펴볼 때 도서관 1.0, 도서관 2.0, 도서관 3.0으로 나눌 수 있으며 도서관 1.0은 1990~2005년까지의 단방향 적이고 일방적인 것으로 이용자가 정보를 일방적으로 받는 형태였고, 도서관 2.0은 2006~2010년까지로 양방향 적이고 대중적이며 공유, 참여, 개방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정보를 같이 제작, 공유하는 것이었으며 도서관 3.0은 2010~2020년까지로 개인화되어있고 맞춤형이며 정보를 개인별로 상황에 맞게 생성, 가공해 주는 맞춤형 서비스 플랫폼이다.⁵⁾ 최근 들어 연구되고 있는 도서관 4.0은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을 포함하여 무한상상공간이나 콘텐츠의 디지털화, 증강현실 등 기술 환경적 발전을 반영한 개념을 포함해야 하며 도서관 이용자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도서관의

4) “도서관법”. op.cit.,

5) 노영희. “도서관 3.0의 개념과 서비스 모형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vol.27,no.4, 2010, pp.286-288.

세계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최첨단 기술을 도서관에 적용하여 미래형 도서관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⁶⁾

정보유통체제의 변화에 따른 정보서비스는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와 접근이 보편화되었으며, 도서관에서는 전통적인 아날로그 자료뿐만 아니라 전자 자료의 수집이 급격히 확대되는 현상을 보였다.⁷⁾ 동시에 이용자의 요구변화와 소장 개념에서 접근 개념으로의 도서관 패러다임 변화는 기관 간 정보서비스 협력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처럼 시대 발전에 따른 정보자원의 형태 변화와 정보유통체제의 변화, 이용자 니즈의 변화는 전통적인 도서관의 역할과 사서의 업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대 발전에 따른 도서관의 패러다임은 자료의 디지털화를 넘어서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스마트 도서관(Smart Library)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미래 도서관	
		제3세대	
		디지털도서관	라키비움
제2세대		정보공유공간	정보공유공간
전자도서관		정보공유공간	정보공유공간
제1세대		전통적 도서관	전통적 도서관
전통적 도서관	전통적 도서관	전통적 도서관	전통적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쇄 매체 중심 보존/소유 개념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쇄 매체/CD-ROM 업무 자동화 내부자료 전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쇄/디지털 매체 RFID/QR code 웹 베이스 시스템 내부자료 디지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쇄/온라인매체 클라우드 컴퓨팅/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 디지털콘텐츠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목록(OPAC) 데이터베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책/전자 저널 인터넷 자료/웹 DB 웹 2.0/오픈액세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기기 활용 사물인터넷/웹4.0 빅데이터/지능형 검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미술관 등 복합문화정보 제공 문화프로그램 확대

[그림 2-1] 도서관 패러다임의 변화⁸⁾

6) 임창곤 외. "D 대학교 도서관 공간의 사용자 유용성, 사용성 평가를 통한 개선방향 연구". 대한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38,no.1, 2018, p.136.

7) 조현양(2015). op.cit., p.9.

8) 곽승진. "복합문화기관으로서 도서관의 라키비움 도입 전략연구". 한국연구재단, 2016, p.3.

또한 최근 디지털정보의 급격한 증가와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서비스의 경계가 불분명하게 되었으며,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과 형태도 중복되는 현상을 보인다. 따라서 많은 도서관에서는 동종의 또는 유사한 기관 간 업무 및 서비스에서 협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도서관도 예외는 아니어서 유사 기관인 박물관, 기록관과의 협업뿐만 아니라 이 유사 기관들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라키비움으로의 변모까지 구상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은 대부분의 경우 동일한 공동체에 대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자연스럽게 협력해 왔다. 아울러 이 기관들은 모두 평생학습의 기회, 공동체의 문화유산 보존, 정보에 대한 보호와 접근 등을 제공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은 자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 및 소장품만 제공해 왔지만,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할 환경이 마련됨으로써 다양한 지식정보자원의 공유와 제공을 위해 이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는 협력 서비스 모형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정보와 도서관 환경의 변화는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새롭게 변화시켰다. 도서관의 이용자들은 기존 인쇄 형태의 매체뿐만 아니라 게임소프트웨어 또는 실물자료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정보원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기존의 도서관에서는 전통적으로 인쇄 형태의 책자를 주로 정보원으로 다루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버클랜드(Buckland)는 ‘사물로서의 정보(Information as thing)’의 개념을 설명하는 글에서 정보의 종류로 데이터, 텍스트와 도큐먼트, 사물, 이벤트를 언급하였는데 특히, 도큐먼트의 개념을 텍스트를 포함하고 있는 종이나 파피루스, 마이크로필름 등의 사물에 국한하지 않고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물리적인 형태를 가진 사물로 설명하였다.⁹⁾ 마찬가지로, 도큐멘테이션 운동을 벌였던 오텔렛(Otlet)도 도큐멘테이션은 정보전달 가치가 있는 모든 사물과 관련이 있으며 전통적인 의미의 종이에 적힌 텍스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¹⁰⁾ 이와 같은 주장들 근거로 살펴볼 때, 도서관은 인쇄 형태의 자료 외에 새로운 형태의 자료 즉, 정보

9) Buckland, M. K. "Information as thing"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vol.42,no5,1991, pp.351-360.

10) Otlet, P. "Traité de documentation" Bruxelles: Editiones Mundaneum, 1934.

원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사물과 같은 유형의 자료도 정보로서 수집하여 이용자
에게 서비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자료는 그 자료를 이용하기 위
한 새로운 시설 및 설비를 필요로 하므로 이용자의 융·복합적인 정보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도서관 공간은 도서관, 기록관 및 박물관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지
니고 있는 복합공간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

2.1.2 대학도서관의 개념과 공간구성

(1) 대학도서관의 정의 및 목적

[도서관법] 제2조 5항에 따르면 ‘대학도서관’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
른 대학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수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을 말한다¹¹⁾고 정의되어 있다. 대학도서관의 목적은 첫째, 자료 및 시설 공간 제
공,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통하여 대학의 교육적 이념인 동시에 사명인 지식탐구,
학술연구, 인격도야, 사회봉사 등을 최대한 지원한다. 둘째, 대학의 교수학습 및 학
술연구 활동에 유용한 모든 아날로그 자료와 디지털 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
하고 정리, 보존하여 제공함으로써 대학의 학술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쟁력을 높
이는 데 이바지한다. 셋째, 구성원의 정보요구와 기대 수준을 주기적으로 조사, 분
석하여 업무에 반영하고 개선함으로써 자료와 시설공간에 대한 접근, 검색 및 이용
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도모한다. 넷째, 교수와 학생의 교육, 학습을 위한 지식습득,
연구수행, 사회봉사에 필요한 자료 및 시설공간을 적시에 제공한다. 다섯째, 자료와
시설공간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그들의 정보입수, 독서 활동, 평생학습, 여가생
활 등에 이바지한다¹²⁾ 라고 명시하고 있다.

11) “도서관법”. op.cit.,

12)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기준특별위원회. “한국도서관기준.” 한국도서관협회, 2013, pp.119-120.

[표 2-1] [도서관법] 제2조 대학도서관의 기능

대학도서관의 기능
1. 대학교육에 필요한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서비스 제공 2. 효율적 교육 과정의 수행을 위한 지원 3. 다른 도서관 및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과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대학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대학도서관에 대한 인식은 대학의 부속기관에서 주요 기관으로 또는 대학 내에서 대학과 사회가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변화하였고, 대학을 오가는 교수와 학생의 밀집도가 높아지면서 지역적으로도 대학 내 중심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대학 구성원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지만 2000년대를 지나면서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도서관을 개방하여 지역민에게 문화적, 교육적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협력의 공간 창출과 지역 활성화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대학도서관의 공간구성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제시하는 대학도서관은 이용자 공간, 직원 공간, 자료 공간, 공유 공간으로 구분 및 계획한다. 학생과 교수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전문적인 정보서비스를 지원하고 자료의 수집·보존·처리·제공의 업무를 하므로 공간구성에 있어서 큰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규모를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대학도서관의 공간분류는 네 가지로 분류되고 분류된 공간요소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자료 공간으로써 도서관의 소장자료는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수집 및 제공할 수 있게 해주는 기본공간이며 그 도서관이 존재할 수 있는 가치이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은 이용자가 소장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료열람공간과 같은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사용자에게 따라 자료 공간은 이용 용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다시 말해 자료 공간은 사용자 모두 접근이 가능하지만, 도서관 이용자는 자료열람, 관리자는 자료를 관리한다.

두 번째, 이용자 공간은 개인 이용공간과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분된다. 이용자 공간은 가장 이용률이 높은 공간으로 개인 이용공간에는 일반 열람실, 노트북 열람실 등이 있고, 커뮤니티 공간은 스터디룸을 예로 들 수 있다. 관리자의 접근이 금지되어있지 않고 대부분 이용자 중심으로 제공되는 공간이다. 세 번째, 직원 공간으로 이용자가 접근할 수 없는 공간이다. 이용자 공간과 분리되어 계획되며 공통으로 사무실과 회의실 등이 있다. 네 번째는 공용공간이다. 공용공간의 건축적 의미는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모든 영역과 시설을 뜻한다. 따라서 이용자, 관리자 이외의 대중들도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대학도서관 이미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다. 이 공간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로비, 주차장, 휴게실, 화장실 등이 있다.

[표 2-2] 대학도서관 공간구성¹³⁾

공간요소	구성	기능
자료 공간	보존서고, 연속간행물실, 특수자료실, 참고자료실, 자료보관실, 일반자료실, 학위논문실, 지정도서실, 시청각자료실, 멀티미디어자료실, 전자정보자료실	전자자료·도서자료·간행물등을 보관 제공 이용자·관리자 모두 접근 가능하나 이용자는 자료이용, 관리자는 자료관리로 각 역할이 상이
이용자 공간	일반열람실, 노트북열람실, 장애인열람실, 정보검색실, 스터디룸	개인이용공간(일반열람실, 노트북열람실) 과 커뮤니티 공간(스터디룸 등)이 해당 대학도서관 내 이용자 중심으로 제공되는 공간
직원공간	세미나실, 직원사무실, 회의실, 관장실, 수서실	관리자 측면의 공간 이용자가 접근할 수 없는 공간(직원사무실, 회의실 등)
공유공간	전시실, 주차장, 복도, 계단, 화장실, 로비, 출입공간, 식당, 매점, 휴게실	이용자, 관리자 모두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

한국도서관기준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시설기준은 첫째, 대학도서관의 최소 면적 기준은 다음 <표 2-3>의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연면적(TS)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13) 이은영. "대학도서관 이용형태에 따른 공간 분류와 평가요소 도출 및 그에 따른 분석 사례". 기초조형학연구, vol.18,no.5, 2017, p.428 재정리.

[표 2-3] 대학도서관 연면적 산정식¹⁴⁾

$$\begin{aligned}
 TS &= -2,240 + 0.72S + 0.008C \\
 NS &= 0.2TS
 \end{aligned}$$

TS : (Total Space), NS : 공유면적(Non-assignable Space),
 S : 편제정원(학부생 + 대학원생), C : 장서

둘째, 대학도서관의 공간은 자료 공간, 이용자 공간, 공유공간, 직원 공간으로 나누어 계획하는데 연면적의 공간요소별 적정 배분 기준은 <표 2-4>와 같다.

[표 2-4] 대학도서관 면적 배분 기준¹⁵⁾

공간요소	백분 비율(%)		비고(%)	
	대학	전문대학	대학	전문대학
자료 공간	30 - 35	20 - 25	-	-
이용자 공간	40 - 45	50 - 55	일반열람실 20-22 자료열람실 20-23	일반열람실 25-27 자료열람실 25-28
직원 공간	5	5	-	-
공유공간	20	20	-	-

셋째, 대학도서관의 순자료 공간은 서고 면적의 65%를 넘지 않는 것이 이상적이다.

넷째, 대학도서관의 열람석 수는 편제 정원을 기준으로 학부생의 25% 이상, 대학원생의 30% 이상으로 설정하고 일반열람실과 자료열람실에 각각 50% 내외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의 좌석당 면적은 학부생 2m² 내외(개가 자료실은 2.3m², 일반열람실은 1.76m²), 대학원생 2.8m²가 적절하며 PC를 갖춘 캐럴(Carrel)과 시청각 자료용 테이블은 좌석당 3.5m²가 적절하다.¹⁶⁾

다섯째, 대학도서관에는 업무용 가구, 자료 수장용 가구, 열람용 가구, 전시 및 계시용 가구, 정보검색용 가구, 기타 가구가 구비되어야 한다. 업무용 가구에는 책

14) 한국도서관협회(2013). op.cit., p.130.

15) ibid., p.131.

16) ibid., p.131.

상과 의자, 카운터 캐비닛, 컴퓨터 테이블 등 있으며, 자료 수장용 가구에는 서가, 잡지가, 지도함, 서장, 신문가, 시청각 자료 보관함 등이 있다. 열람용 가구에는 테이블 및 의자, 캐럴, 신문 전시대, 지도 열람대, 사전대 등이 있으며, 전시 및 게시용 가구에는 안내판, 게시판 등이 있다. 정보검색용 가구에는 컴퓨터 테이블과 의자가 있으며, 기타 가구에는 북트럭, 자료반납함, 사물보관함, 우산꽂이 등이 있다.

여섯째, 대학도서관의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공간은 새로운 장비의 수용 가능성 및 수용가능한 점유면적의 적절성, 테이블 및 의자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이 밖에도 프라이버시 보장, 미래의 확장성, 접근과 이동의 편의성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

일곱째, 대학도서관의 시설과 가구 등 편의시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각종 기준에 부합하도록 계획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보장해야 한다.¹⁷⁾

[표 2-5] 국내·외 대학도서관 공간분류¹⁸⁾

출처	공간분류
한국도서관협회	자료 공간, 이용자 공간, 직원 공간, 공유공간
국제도서관협회연맹 (IFLA)	장서 공간, 열람자/이용자 공간, 사무공간, 회의/프로그램 공간, 기타기능 공간, 기술/지원공간
프랑스*	장서 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 회의/전시공간, 기타공간, 기술/지원공간
미국**	사무공간, 장서 공간, 이용자 열람공간, 기타공간
주정준, 김치환, 정의용(2007)	열람 부문, 간행물 부문, 전자정보 부문, 교육문화 부문, 관리업무 부문, 부대시설 부문, 공용부문
남영준, 문정현, 이현정(2009)	열람공간, 일반도서실, 서가 공간, 휴게공간, 커뮤니티 공간, 출입공간
장윤금(2014)	학습공간, 학습자지원공간, 사회적 공간, 자료 공간

* 프랑스의 '신축 도서관 건물 평가(Evaluation of New Building) 연구팀'이 제안하는 대학도서관 공간 운영 권장 사항

** 미국의 Providence associate Inc와 Library Planners consultant가 제안하는 도서관 공간운영 기준

17) *ibid.*, p.132.

18) 김환희. 서비스스케이프를 적용한 대학도서관의 공간구성이 이용자 만족도와 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9.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p.10.

대학도서관의 공간분류는 앞서 언급한 <표 2-4> 대학도서관 면적 배분 기준에서 자료 공간, 이용자 공간, 직원 공간, 공유공간으로 정의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환희(2019)는 한국도서관협회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의 공간분류체계와 국제도서관협회(IFLA)와 프랑스 신축도서관 건물 평가(Evaluation of new building)연구팀이 제안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의 공간분류를 비교하여 국외의 사례가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정의한 공간분류에 비해 더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사무공간과 같은 관리자 공간보다는 사용자 중심 공간을 더욱 상세하게 구분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2.1.3 대학도서관의 업무와 기능

대학도서관의 본질적 역할은 대학의 학문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학도서관은 대학에서 일어나는 교수·교육(Teaching), 학습(Learning), 봉사(Services)활동을 지원한다. 대학의 지적 탐구를 비롯하여 교수와 교수,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 등 대학구성원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 지적 발견 및 축적에 바탕을 둔 사회봉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랜 기간 축적되는 장서, 각종 매체 및 채널, 새로운 정보기술, 사서의 전문성과 봉사 정신으로 지원한다.

대학도서관의 업무는 다른 관 종별 도서관 또는 정보센터와 마찬가지로 간접적인 봉사업무와 직접적 봉사업무로 구분할 수 있다. 간접적 봉사업무는 자료수집과 자료정리, 장서 등의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며, 직접적 봉사업무는 정보봉사이다. 먼저 수집업무는 국내외에서 출판되는 도서, 시청각 자료, 연속간행물, 회색 문헌, 서지정보 및 원문정보를 수록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웹 정보자원 등을 선정 →구매 →기증 →교환 →링크의 방식으로 수집하는 업무이다.

다음으로 자료정리는 수집된 자료를 등록하고 목록 규칙과 분류표를 적용하여 일관성 있게 정리한 다음 서지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하고 자료 자체는 서가에 배가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보존기능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든 데이터베이스의 유지·관리, 학위논문의 제본, 자료수선과 탈산처리, 장서 점검과 폐기, 마이크로 화와 디지털화를 포함하는 매체변형(Conversion)과 기술 환경의 이전(Migration)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정보봉사는 교수와 학생에게 안내 및 외부 정보자료를 검색하여 입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봉사행위를 말한다. 열람 및 대출 봉사, 질의응답 봉사, 이용지도, 정보검색 봉사, 정보제공 봉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표 2-6] 대학도서관의 주요업무¹⁹⁾

자료 수집	정리와 보존	정보 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서개발정책의 수립 · 서지정보의 수집·분석 · 이용요구의 분석 · 실물자료(도서/연속간행물, 시청각/마이크로자료, CD-ROM DB)의 선택 · 자료의 구매와 계약 · 자료의 기증·교환 · 전자자료의 계약과 라이선스 관리 · 웹 정보자원의 선택과 링크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 주제분석/분류 · 편목(MARC 포맷) · 장비 관리(라벨, 바코드) · DB(OPAC, CD-ROM, 온라인) 구축·유지 · LAN/인터넷 환경의 구축 · 배가 및 재배치 · 학위논문 제본 · 파손 오손 자료 수선 · 장서 점검과 폐기 · 매개변형·매체 재생·포맷 변형·기술이전 (디지털화, 마이크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이용지도 · 열람 및 대출 · 자료사용법 지도 · 정보 접근 /검색법 지원 · 색인 초록지 이용법 지원 · 최신정보 주지봉사 · DB(OPAC, CD-ROM, 온라인인터넷)검색봉사 · 상호대차/원문제공 봉사 (ILL/DDS) · 질의응답 봉사 · 웹 정보의 검색·분석·가공 · 제공 봉사 · 학습·연구공간 제공

이러한 주요 업무는 대학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규정하는 결정적 요소이다. Wilson과 Tauber(1956)는 대학의 기능을 1) 지식과 사상의 보존(Conservation of knowledge and idea), 2) 교육(Teaching), 3) 연구(Reserch), 4) 출판(Publication) 5) 사회봉사(Extension and service), 6) 연구의 해석(Interpretation)으로 제시하고 이러한 기능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전체 대학과 대학도서관 양자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²⁰⁾ 비록 모체기관의 성격과 설립목적에 따라 수행하는 기능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모든 대학도서관은 '장서개발→정리행위(DB구축)→정보봉사'로 이어지는 기능을 순차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학내외 정보환경의 변화, 정보 매체의 다양화, 인터넷의 대중화, 이용자 요구의 다변화로

19) *ibid.*, p.29.

20) Louis R. Wilson and Maurice F.Tauber. "The University Librar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6, pp.15-19.

종래의 기본적 기능에 사회 사조를 반영하는 새로운 봉사 기능이 추가되어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수장공간으로서의 전통적 기능에 학술 게이트웨이로서의 현대적 기능을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종합 경영관리와 운영 : 도서관의 기본업무, 인력 및 조직, 경영계획, 자료 보존과 장서개발, 자동화 시스템, 예산편성 및 집행, 시설 및 건물을 부문별,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한다.

② 정보자료의 수집·선택·링크 : 교육과 연구 활동에 필요한 학술 및 교양 도서, 학위논문, 연속간행물, 정부간행물, 연구기술보고서, 마이크로자료, 비도서 자료, CD-ROM자료 등을 엄선하고 적시에 수집한다. 또한 World Wide Web에 탑재된 디지털 정보를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링크하거나 다운받아 주제별 분류 순으로 DB를 구축한다.

③ 자료의 보존관리 및 정리 : 수집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OPAC DB를 구축하고 원자료, 대체 자료를 체계적으로 배가·보존한다.

④ 열람 및 대출 봉사 : 자료 공간 등은 완전 개방하여 관내의 이용과 관외 대출을 적극 활성화하고 미소장자료는 상호대차, 원문제공시스템(ILL/DDS) 구축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봉사한다.

⑤ 참고 및 정보봉사 : OPAC에 대한 이용지도, 자료 공간과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 안내, 각종 서지류와 온라인 DB에 대한 검색교육과 지원, 문헌 및 데이터베이스의 검색대행, 이용자 질의응답, 신간 도서의 안내와 학술지의 목차제공(TOC), 미소장자료의 입수 및 제공, 국내외 출판정보의 제공 등과 같은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⑥ 서지 도구 및 검색시스템의 확보와 개발 : 다양한 서지 도구 구비와 장서목록, 내용 목차의 색인지를 작성·발간하고 학내외의 다양한 정보자료를 온라인 등 검색·입수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 또는 채널을 확보한다.

⑦ 연구공간·학습공간·편의시설을 제공 : 개인 독서 석, 복사 시설, 일반열람실, 시청각 자료 감상실, 인터넷 정보검색실, 휴게실 등의 물리적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⑧ 지역사회에 개방 : 소장자료나 도서관의 웹사이트를 지역사회에 개방함으로써 대학과 도서관의 이미지 제고와 함께 지역주민의 독서 활동, 정보습득, 여가생활

등에 기여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연구자료인 대학도서관 발전계획 분석 및 미래 발전전략 연구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대학도서관이 제출한 발전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대학도서관의 역할과 관련하여 ‘교육, 연구, 학습지원’, ‘미래 가치 창출’, ‘이용자 맞춤형 지식정보자원 구축’, ‘창의 인재 육성’, ‘학술문화 융·복합’ 등의 키워드가 많이 도출되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서에 표현된 세부과제 키워드를 구성화하면 다음 <그림 2-2>와 같다.



[그림 2-2] 대학도서관 발전계획 세부과제 키워드

2.1.4 대학도서관의 유형

대학도서관의 유형은 학제에 따라 전문대학·단과대학·종합대학도서관, 설립 주체에 따라 국립대학·공립대학·사립대학도서관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자료의 성격과 주된 이용계층에 따라 학부 학생도서관과 종합도서관(도서관 시스템의 중앙관)으로 구분하기도 한다.²¹⁾ 그러나 대학도서관의 운영 방향이 자료 보존에서 이용 극대화로 전환되는 추세이므로 장서 또한 학문영역이나 주제별, 연구용과 학습용, 신간자료와 구간자료 등으로 구분·배치하고 있다. 따라서 학제 간 설립주체보다는 기능적 측면에서 소장자료 및 봉사대상자의 성격에 따라 유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²²⁾

21) 사공철, “문헌정보학용어사전”. 한국도서관협회, 1996, p.77.

22) 윤희윤, “대학도서관경영론”. 태일사, 2002, p.26.

(1) 학부도서관

학부도서관(Undergraduate library)이란 주로 학부의 교과과정과 학습을 목적으로 자료를 지원하고 공간을 제공하는 도서관을 뜻한다. 대학원 과정, 부설 연구소가 없어서 그들의 연구 활동이 제한적인 전문대학 및 단과대학에서도 학부도서관을 제공한다. 따라서 학부도서관은 학습도서관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학부도서관은 학부 교육과정에 필요한 5-15만 권의 기본 장서와 개가제(Open shelf system)로 운영되며 예약 도서 제도(Reserve book system)를 채택한다.

미국의 경우 20세기 초반까지는 대학도서관이 단일건물에 장서를 군집하여 운영하는 체제를 유지하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고 학생 수가 급증함에 따라 학부생의 도서관 이용 문제가 심각한 현안으로 등장하였다. 이에 학부생에 대한 봉사를 개선하고 부족한 공간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1949년에 하버드대학의 라몬트도서관(Lamont library)이 독립 건물로 설립되면서 학부도서관은 본격적으로 발전하였다.²³⁾ 이어 미네소타(1952), 미시간(1958), 남캘리포니아(1960), 프린스턴(1961), 코넬(1962), 텍사스(1963), 스탠퍼드와 UCLA(1966) 등의 대규모 대학들이 독립건물을 신축하거나 기존의 본관을 개조하여 학부생 전용 도서관을 설치하였다.²⁴⁾ 그러나 1972년까지 무려 49개 관(24개 관은 독립건물, 25개 관은 본관 내의 별도공간)에 달하던 학부도서관이 교과과정 및 교수 방법의 변화, 도서구입과 봉사 제공의 중복에 따른 예산 문제, 대규모 연구도서관에서 받았던 봉사 수준에 미달한다는 인식 등에 기인하여 1977년에는 37개 관으로 줄었으며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이다.²⁵⁾

국내에서는 부산대학교 도서관이 1994년 9월부터 종래의 중앙도서관을 학부생 학습도서관으로 전환하였고 새로운 연구도서관을 신축하여 교수와 연구자들에게 제공하다가 1999년에 주제별 도서관 시스템으로 전환하였다.

23) Keyes Metcalf. "The Lamont Library". Harvard Library Bulletin, vol.3, no.winter, 1949, p.29.

24) Elizabeth Mills. "The Separate Undergraduate Library". College & Research Libraries, vol.29, no.2, 1968, pp.145-146.

25) Henry W. Wingate. "The Undergraduate Library : Is It Osolete?". College & Research Libraries, vol.39, no.1, 1978, pp.29-33.

(2) 연구도서관

연구도서관(Research library)은 석·박사 학위 과정과 많은 연구소가 설치된 종합 대학에서 교수·연구원·대학원생과 같은 두뇌집단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도서관을 말한다.²⁶⁾ 대부분의 학술도서관(Academic library)은 연구도서관의 범주에 속한다. 학술도서관은 우수한 외국어 실력 및 전문지식을 구비한 주제 전문가들이 소급 및 최신정보를 망라하여 수집하고 최대의 정보봉사를 제공하며 개인 열람석(Carrel)을 설치하여 완전 개가제로 운영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유럽의 대학에는 부문적 도서관(Departmental library)²⁷⁾이나 주제별 도서관(Subject divisional library)²⁸⁾이 중앙도서관보다 먼저 설립되었으며, 이들이 연구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반면에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학부생 수 및 봉사 요구의 상대적 급증으로 대학도서관의 연구지원기능이 지장을 받게 되자 중앙도서관에 연구도서관의 기능을 부여하는 대신에 학부도서관을 별도로 설치하였다. 그러나 일본과 국내의 경우는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이 학부생과 연구자에 대한 지원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3) 보존도서관

보존도서관(Deposit library)은 잠재적 이용 가치가 낮은 자료나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자료, 거의 사용하지 않는 자료의 복사본 등을 별치하여 밀집 형태로 보관하는 도서관이다. 특히 수장 공간이 부족하면 보존서고(Storage stack), 밀집 서가, 협동서고 등은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국의 경우는 1893년 애덤스(C.F. Adams)가 주창한 이래로 1942년 2월에 개관한 뉴 잉글랜드 보존도서관(New England Depository Library), 1996년에 설립된 북서부 오하이오 도서보관소(Northwest Ohio Regional Book Depository),

26) 윤희윤(2002). op.cit., p.27.

27) 의학, 법학, 경영학 등 비교적 주제를 한정된 대학의 학과나 연구실 수준의 도서관.

28) 비교적 광범위한 주제영역, 가령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치의학 등에 기초하여 부분화한 도서관. 국내의 주제별 도서관은 대다수 여기에 속함.

1992년에 발족한 잡지의 협동 보존 시스템인 CICNet(Committee on Institutional Cooperation), 1994년 멜론재단의 재정지원으로 시작된 JSTOR(Journal Storage)가 대표적이다.²⁹⁾ 그러나 국내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보존 관을 제외하고는 아직 협동 계획에 따라 별도의 건물에 보존하는 사례가 없으며 대개 관내에 보존서고나 밀집 서가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4) 종합도서관

종합도서관(General library)은 위에서 언급한 학부·연구·보존도서관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 구축되는 디지털도서관의 기능도 수행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교육 및 연구용 정보지원을 물론 보존기능도 병행하는 도서관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그 유형은 캠퍼스 내외의 복수의 건물로 산재하면서 도서관 시스템을 형성하는 중앙 관이나 본관, 학습도서관, 주제별 도서관과 학과도서관, 분관과 분실, 전자도서관 등이 적절히 분담하는 형태와 단일의 건물 내에서 공간별로 분리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형태가 있다. 다만 전자의 경우, 시스템을 구성하는 단위 도서관의 기능을 조정하고 연락하는 구심체가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은 중앙관 혹은 본관이 그 역할을 담당한다. 국내의 경우는 대다수가 종합도서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³⁰⁾

2.1.5 대학도서관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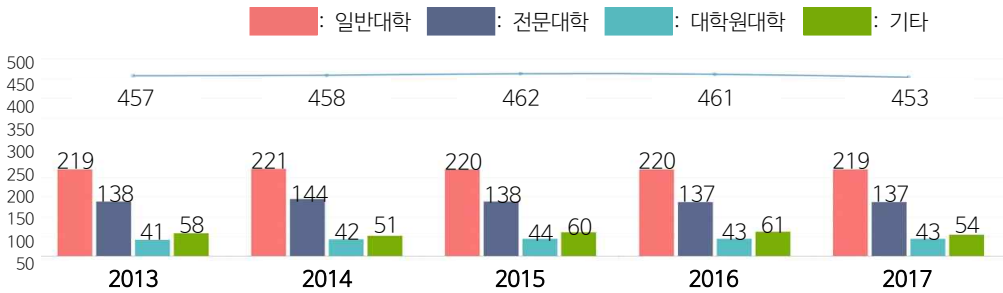
2019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는 국회도서관 5개 관, 공공도서관 1,134개 관, 대학도서관 453개 관, 학교도서관 11,678개 관, 지역별 작은 도서관 6,672 전문도서관(장애인도서관 36개 관, 교도소도서관 52개 관 포함) 700개 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중 대학도서관은 일반대학 219개 관, 전문대학 137개 관, 대학원대학 43개 관, 기타 54개 관 등 총 453개 관이 운영 중이다.³¹⁾ 지역별로 구분하는 자료를 살펴보

29) 윤희윤. "장서관리론 : 점판에서 사이버북까지". 태일출판사, 1999, p.303.

30) 윤희윤(2002). op.cit., p.28.

31) 도서관통계. "대학도서관 주요통계".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문화체육관광부. www.libsta.go.kr

면 서울시가 88개 관, 경기도 82개 관, 경상북도 39개 관 순으로 대학의 수도권 집중화를 알 수 있다.



[그림 2-3] 현재 전국 대학도서관 수의 변동 추이³²⁾

[표 2-7] 전국 대학도서관 현황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전문대학	138	144	138	137	137
일반대학	219	221	220	220	219
대학원대학	41	42	44	43	43
기타	59	51	60	61	54
합계	457	458	462	461	453

기타에는 기능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이 포함 (단위 : 개관)

국가도서관 통계 시스템의 도서관 통계에서 각 도서관들의 장서 수를 살펴보면 국립도서관은 2019년 기준 10,543,132권이고 전국의 공공도서관은 115,074,631권, 대학도서관은 2017년 기준 165,630,256권으로 2013년 138,303,474권에서 많은 증가량을 보여준다. 대학도서관의 통계가 2017년 시점이고 현재의 통계가 나오지 않은 점을 보더라도 공공도서관의 장서 수보다 대학의 장서 수가 월등히 많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장서가 지속해서 확충되는 현상은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주관하고 있는 대학도서관평가³³⁾ 중 재학생 1인당 2권 이상의 도서

32) ibid., “대학도서관 주요통계”.

33) 교육부 주관 2016년부터 시범적으로 진행하였으나 2020년부터 정식평가로 전환하였다. 지금까지는

구매 등, 장서 확보와 관련한 항목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2019 한국도서관 연감의 조사에 따르면, 제2차 도서관발전계획의 한계는 대학도서관의 방문자 수와 대출 도서의 수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수요자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서비스 확장이 미흡한 부분에서 그 한계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려는 방안으로 대학도서관은 자체적으로 독서 관련 프로그램 활동 등을 증가시키고 있다. 2018 대학도서관 시범 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평가대상 대학도서관의 62.4%가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년제 대학도서관의 경우 80.8%, 대규모 4년제 대학도서관으로만 한정할 경우 95.5%의 대학도서관이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맞춤형 교수-학습지원 서비스를 살펴보면 4년제 대학의 도서관들은 ‘수업 및 학습활동 지원강화’에서 특히 중과제 ‘맞춤형 교수-학습 지원 서비스’에 대해 비중을 실어 실행계획을 세웠다. 세부과제 ‘학습자료 확충’에 62개 관(93.9%), ‘전자자료 확충’에 46개 관(69.7%), ‘특성화 자료 확충’에 37개 관(56.1%), ‘맞춤형 자료 확충’에 31개 관(47.0%), ‘주제별 가이드 제공’에 24개 관(36.4%)이 실행계획을 세웠다. 자료의 확충은 대학도서관이 대학의 학문 활동은 물론 수업 및 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사항이며 법적 의무이기도 하다.³⁴⁾ 대학의 장은 학칙으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도서관 자료 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의 도서관 자료 기준(제6조 제2항 관련 별표 2)은 <표 2-8>과 같다.

[표 2-8]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대학도서관 자료기준 [별표2]

대학 구분	최소 기본도서 수	최소 연간 증가 책 수
전문대학 외의 대학	학생 1명당 70권 이상	학생 1명당 2권 이상
전문대학	학생 1명당 30권 이상	학생 1명당 1권 이상

평가를 원하는 대학 위주로 진행하였지만 2020년부터는 전국의 대학·전문대학·대학원대학 382개교가 3년 주기로 모두 평가를 받아야 한다. 대학별 특성을 반영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일반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으로 나뉘어 진행하고 일반대학에서도 재학생 수에 따라 소규모·중규모·대규모로 분류해 평가를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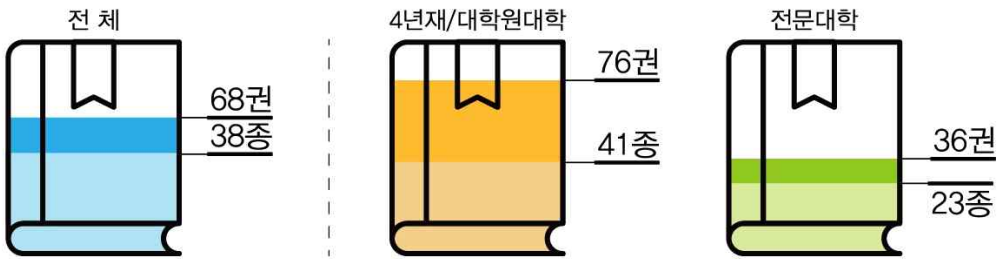
34) 이용재 외. “대학도서관의 수업·학습 활동 지원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50, no.4, 2019, pp.359-379.

〈표 2-9〉는 전국 대학에서 재학생 1인당 소장 도서 수(2018년 기준)를 나타내고 있다.

[표 2-9] 전국대학의 재학생 1인당 도서관 소장 도서 수(2018년 기준)³⁵⁾

구분	대학 수	재학생 수 (천명)	소장 도서 수		재학생 1인당 소장 도서 수	
			종수(천종)	책수(천책)	종수(종)	책수(책)
4년제/ 대학원대학	255	1,953	80,955	147,976	41	76
전문대학	138	446	10,054	16,076	23	36
합계	393	2,399	91,009	164,052	38	68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2-4〉와 같다.



[그림 2-4] 전국 대학의 재학생 1인당 도서관 소장 도서 수(2018년 대학도서관 통계분석 정리)

이처럼 전국 대학의 재학생 1인당 소장 도서 수를 보면 4년제/대학원대학은 76책, 전문대학은 36책으로 각각 법적인 자료 기준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상의 4년제/대학원대학 70권, 전문대학 30권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의 기본시설 속하는 대학도서관의 장서를 확충하는데 법적 기준이 유효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5〉는 2014년~2018년까지 최근 5년간의 재학생 1인당 도서관 소장 도서 수의 추이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35)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2018 대학도서관 통계분석".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8, p.9.



[그림 2-5] 2014-2018 전국 대학의 재학생 1인당 소장 도서 수의 변화 (2018 대학도서관 통계분석 정리)

위의 통계를 통해서 2016년에 전국 대학의 재학생 1인당 소장 도서의 수가 법적인 기준을 넘긴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2016년 이후에도 재학생 1인당의 도서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도서관의 자료 확충은 법적 기준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2018 대학도서관 통계분석을 보면 대학도서관 자료 확충에서 다른 하나의 중요한 법적 기준으로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의 도서관 자료 기준 중 ‘전국대학 재학생 1인당 연간 증가 책 수’를 보면 <표 2-10>과 같은데 2018년 기준 전국 대학의 재학생 1인당 연간 증가 책 수를 나타내고 있다.

[표 2-10] 전국 대학의 재학생 1인당 연간 증가 책 수 (2018년 기준, 4년제)

구분	대학 수	재학생 수 (천명)	연간 증가 책 수(구매)	
			증가 책 수(천책)	재학생 1인당 증가 평균 책 수(책)
대규모	68	1,328	2,382	1.8
중규모	56	418	868	2.1
소규모	131	206	848	4.1
합계	255	1,952	4,098	2.1

이처럼 2018년의 경우 4년제 대학의 대규모 대학은 1.8권, 중규모 대학은 2.1권, 소규모 대학은 4.1권으로 나타났다.

대학도서관의 자료 확충에서 연간자료의 증가는 대학 내의 수업과 학습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것으로 깊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매년 생산되는 신간 도서를 포함한 새로운 지식 자원의 지속적인 공급은 대학의 수업 및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꾸준히 지원하기 위함 때문이다. <그림 2-6>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전국의 대학 도서관에서 재학생 1인당 연간 증가한 책 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6] 2014-2018 전국 대학 재학생 1인당 연간 증가 책 수의 변화

이처럼 전국 대학 도서관은 법적 기준에서 제시된 연간 증가 책 수의 충족을 위해 장서 확충에 대한 노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도서관 자료를 기준으로 4년제 대학은 학생 1인당 연간 증가 책 수(구매)가 2권 이상이어야 하며, 전문대학의 경우 학생 1인당 1권 이상이어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그림 2-6을 통해 2016년 이후로 4년제 및 전문대학은 연간 증가 책 수 기준을 충족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구매와 기증을 모두 합한 수치이며, 위와 같이 2018년 기준 4년제 대학 중 대규모 대학교의 재학생 1인당 증가한 책 수의 평균값은 1.8권으로 기준인 2권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전국의 대학은 학생들을 위한 수업 및 학습활동 등의 학문 활동 지원을

위해 최소한 법적 기준의 도서관 연간 증가 책 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대학도서관이 신선한 지식자원을 공급할 수 있는 중심 역할과 더 나아가 대학들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2.2 라키비움

2.2.1 라키비움의 개념

(1) 라키비움의 출현 배경

2008년 [Library Journal]의 인터뷰에서 미국 텍사스대학의 메간 윈젯(Megan Winget)이 처음으로 라키비움에 관하여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을 포괄시키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언급하였다. 그러나 윈젯이 라키비움의 개념을 소개하기 이전부터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협력에 관한 시도와 논의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와 시도의 과정 중 현장에서는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협력에 대한 개념을 전달하는 용어로 ‘라키비움’이라는 용어 대신 [LAMs(Libraries Archives Museums)] 또 [MLAs(Museum, Libraries and Archives)] 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라키비움’이라는 용어는 윈젯이 처음으로 주장한 독창적인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기존에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등을 중심으로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와 시도에서 지향하던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등의 새로운 협력 서비스모델을 지칭하는 신조어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가진다.³⁶⁾ 실제로 미국에서는 ‘LAMs’, 영국에서는 ‘MLAs’라는 용어가 ‘라키비움’ 보다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협력에 관한 주요 논의를 연대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3년에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36) 조현양(2015). op.cit., p.135.

Institutions (IFLA)]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도서관정보회의(The 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를 후원하였는데 이 회의에서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협력에 관한 여러 편의 논문과 사례가 소개되었다.³⁷⁾ 2004년에는 [The British Museum]과 [The New York Public Library]는 “Twenty-First Century Curation ship”을 후원하였는데 여기에 도서관, 박물관, 기타 정보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이들 간의 협력을 논의하였다. 2005년 [The Research Libraries Group (RLG)]은 “Libraries, Archives, & Museums-Three-Ring Circus, One Big Show?”라는 포럼을 개최하였다. 2006년 [The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의 ‘희귀자료 및 필사본 분과 [The Rare Books and Manuscripts Section]’은 텍사스 오스틴에서 개최된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 in the Twenty First Century : Intersecting Missions, Converging Futures”라는 회의를 후원하였고 이 회의에서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2007년 RLG는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미국 등 다섯 개의 주요 기관들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LAMs(도서관, 기록관, 박물관)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제안하였다.³⁸⁾ 이 워크숍에서 유사 기관 간의 협력 초기에 관심을 가졌던 주요 기관은 하나 이상의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 또는 학교와 유사한 기관이었다. 이들 기관의 경우,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이 동일한 모체 기관에 소속되어 있어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을 통합하여 서비스하는데 각 기관의 협력을 쉽게 이끌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학술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은 모체 기관에 소속된 학생 또는 연구자들의 학습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들 기관 내에서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데이터와 콘텐츠 그리고 서비스와 관련하여 장서들을 더욱더 쉽게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들이 이에 더욱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을 가졌다.

37) 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기록보관소, 도서관 및 박물관간의 협력”. 2003.8.9., www.ifla.org/node/1402

38) oclc research. “activities/lamsurvey/”. www.oclc.org

(2) 라키비움의 정의

문화정보의 이용자는 그 대상이 기록관, 도서관 혹은 박물관에 상관없이 한 장소에서 다양한 정보 물을 제공받으려는 요구를 가지고 있고, 이에 문화정보기관이 최대한 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라키비움(Larchiveum)’은 도서관(Library), 기록관(Archive), 박물관(Museum)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이행하는 통합형 수집기관(Multidisciplinary Collecting Institution)으로 다양한 매체의 정보 물을 한꺼번에 집약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단일 기관을 지칭하는 개념이다.³⁹⁾ 세 기관의 정의를 정리하면 <표 2-11>과 같다.

[표 2-11]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법적 정의(윤선영 2016)

기관	정의	관련 법령
도서관	도서관 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 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	도서관법 [법률 제11310호, 2012.2.17., 일부개정]
기록관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 박물을 말함 "기록물 관리기관이란 일정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박물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공중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약칭 [법률 제12248호, 2014.1.14., 타법개정]

도서관은 ‘도서관법’, 기록관의 경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박물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한 법령 및 시행령으로 존재한다. 법령에 명시된 정의에 따른 세 기관의 공통적 정의는 자료의 수집과 조사, 연구 및 보존, 관리하는 기관으로 도서관 및 박물관의 공통사항으로는 공중을 위한 교육과 서비스를

39) 최영실.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기능 융합에 의거한 라키비움 공간기획연구. 2012.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대학원, 박사학위. p.1.

주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도서관의 기능은 수집, 보존, 제공, 서비스, 교육, 교류로 분류된다. 제공에는 열람, 대출, 상호대차, 원문서비스 등이 있으며, 서비스에는 정보, 기능연장 확대가 있다. 교류에는 문화 활동 및 공간 제공이 포함된다. 기록관의 기능은 평가, 선정, 수집, 등록, 분류, 보존, 안전, 기술, 검색, 참조, 접근, 재평가, 조사 등⁴⁰⁾이 있다. 박물관의 기능은 수집, 관리, 보존, 조사, 연구, 해석, 전시, 교육 등으로 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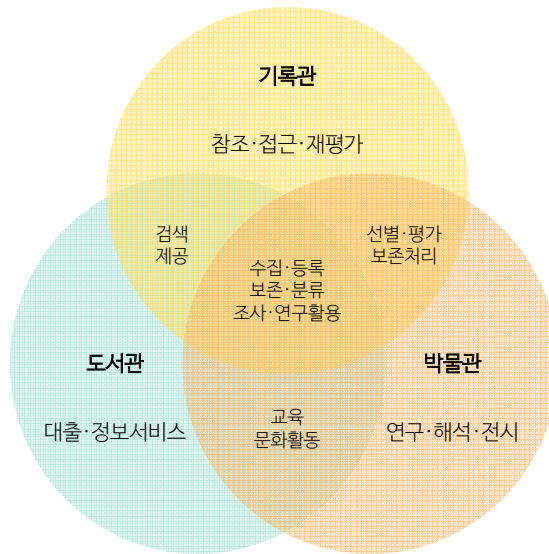
위처럼 세 기관의 목적과 기능의 공통점은 존재하나 각 기관에서 수집하는 자료의 특성과 추구하는 핵심 기능의 이질성이 존재함으로 세 기관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세 기관 모두의 공통적인 기능은 자료들을 수집하고 관리, 정리와 보관, 보존, 연구 등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기관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조사·연구 분야에서 도서관은 이용자가 주체인 반면에 기록관과 박물관은 기관 내 전문가가 주체가 된다.

도서관과 기록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서관과 기록관은 보존 가치에 따라 이관되거나 수집 방향이 다르지만, 기본적인 공통점은 도서와 문서 위주의 자료들을 다룬다는 점이다. 그리고 도서관에서는 기록관의 보존기능을 수행하고 기록관에서는 도서관의 열람 기능을 수행한다는 교 집합적인 부분이 있지만, 기록관의 자료들은 진본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도서관에서 수집하는 자료의 대상과 범위가 다른 것에서 차이가 있다.

박물관과 기록관은 보존기능에서 다음과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 있다. 박물관과 기록관은 주제에 맞는 자료를 선별, 평가하고 보존할 자료에 대해 보존처리를 한다. 세부적인 보존기능을 살펴보면, 박물관과 기록관 모두 도서나 문서의 수집 및 보존이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박물관은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나 기록관에서는 보존 가치와 열람 빈도에 따라 자료를 보관하거나 보존 매체만 보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박물관은 일반적으로 보존을 통한 활용에 초점을 맞춰 연구, 전시, 교육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최근에는 박물관과 기록관 모두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40) 윤선영. 국가산업단지의 문화적 활용에 관한 연구. 2016.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p.52.

도서관과 박물관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교육 및 문화 활동의 기능과 전시 및 집회 등의 사회적 임무를 수행하는 점이다. 도서관은 아동, 청소년, 다문화가정, 도서관 미설치 지역 등으로 이용자를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도서관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지역 교류공간의 기능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그 반면에 박물관은 이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끌어 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박물관의 내부적인 면은 연구 및 해석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외부적으로는 전시 및 교육 기능을 중점적으로 운영한다.



[그림 2-7]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기능 관계

이처럼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비록 큰 개념에서 동일한 기능일지라도 세부적인 기능에서 차이점이 존재했다. 이 밖에도 각자 고유의 특성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세 기관 모두 점차 이용자들에게 대한 요구나 서비스가 다양화되고 세분화되는 추세였으며,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기능이 점점 융·복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2.2 라키비움의 구성

(1) 라키비움의 목적

도서관의 사명에 관한 유네스코 공공도서관 선언(1994)에 따르면 정보, 해득력, 교육, 문화와 관련된 주요 사명이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요체가 되어야 한다며 12가지 사명을 명시하였다.⁴¹⁾ 또한 IFLA 성명서에는 공공도서관은 지식을 위한 지역적 관문으로서 개인 및 사회적 그룹의 평생교육, 독립적 판단, 문화적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환경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또한 IFLA 공공도서관 서비스 가이드라인(2010)은 공공도서관의 목적을 교육, 정보, 자기계발, 어린이와 청소년, 문화발전,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역할 등 6가지로 정의하였다.⁴²⁾

기록관은 도서관이나 박물관처럼 공간의 개념이 우선된다기보다 기록을 위한 공간으로써 존재하며 기록관의 기획에 관한 문헌이 많지는 않다. 그러나 기록관 역시 설립 취지(Mission statement) 작성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어떠한 기록관이며 무엇을 하는지 또는 존재 이유와 성격을 설명한다. 헌터(Hunter, 1997.3-5)는 기록관의 임무를 지속적인 기록의 가치 선별, 가치 있는 기록의 보존 그리고 이용에의 제공이라고 하였다.⁴³⁾ 영국의 아카이브 정부 정책의 아카이브 핵심 목적은 장기 보관할 가장 중요한 레코드를 선택하는 것, 이 레코드들이 안전하게 보존, 보관되고 올바르게 관리되도록 하는 것, 필요한 모든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⁴⁴⁾이라고 되어 있다.

박물관의 사명은 특별한 성격과 관계없이 소장품을 수집하고 해석하고, 보여주고 교육하고 사람들이 지원하도록 영감을 주어야 한다.⁴⁵⁾ 박물관은 소장품을 수집하여 보관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해석이라는 단계를 통하여 전시와 교육의 메시지를 보내는 역할을 한다. 현대사회에 이르러 박물관은 해석에 의존하지 않고 관람객들의

41) 윤희윤, "공공도서관경영론". 태일사, 2010, p.26.

42) Ed. by Koontz, Christie/ Gubbin, Babara. "IFLA Public Library Service Guidelines". IFLA, 2010, pp.2-10.

43) 한미경, 노영희. "기록 및 기록관리의 이해". 한국학술정보(주), 2011, p.35.

44) 캐롤라인 윌리엄스, 남태우·김유승 역. "기록관리학의 이해". 2008, p.242.

45) Neil Kotler & Philip Kotler. "Museum Strategy and marketing". Jossey-Bass, 1998, p.29.

증가 및 상호작용을 통해 관람객 스스로의 해석이 가능해지고 있다.

박물관은 자연과 인류의 삶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또한 박물관은 우리가 물려받은 값지고 다양한 세상에 대한 감사를 전달하는 인류와 인류 활동의 원천이 되어야 하며, 유산을 잘 보존하여 후세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를 가진다.⁴⁶⁾ 국제박물관협회 및 기타 박물관 정의에 따르면 소장품(자료)을 통하여 교육, 감상, 즐거움을 제공하는 개인 이용자에 관한 목적 외에 문화발전, 문화 보존, 연구를 통한 통합적 문화중심지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정리할 수 있다.

[표 2-12]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목적 비교 및 라키비움의 목적

도서관의 목적	기록관의 목적	박물관의 목적
	· 학문 및 문화발전, 인류문화 보존	
보존기능은 약함	인류문화의 평가, 보존처리, 관리	
	기록물 중심	자연유산, 예술 포함 연구기능 중심
	· 지식정보제공(지식향상 및 평생교육의 역할)	
-	가치 있는 정보의 선별적 제공	
	· 사회적 역할(지역사회 문화생산 및 활용)	
지역사회의 공동체 형성	-	문화의 감상, 향유
↓		
라키비움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문 및 문화발전 · 인류문화 평가, 보존 및 관리 · 문화적 향유 및 즐거움 · 교육적 목적(지식정보제공 및 평생교육) · 사회적 역할(지역사회 발전 및 커뮤니티 중심) 		

세 기관의 공통점은 기획단계와 설립 취지를 문서로 만드는 작업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다. 문서화 작업에는 기관 존재 이유나 목적과 역할 그리고 기능이 명확하게 제시되는데, 이는 이후 계획되어야 할 단계의 제시나 운영 시 내용을 결정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46) 송한나. "박물관의 이해". 형설, 2010, p.13.

(2) 라키비움의 소장자료

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따라 도서관 자료가 생성되는데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제 20조 제1항의 납본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료를 망라하여 수집하여 국가 장서를 구축한다. 도서관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납본, 구매, 기증, 국제교환, 기타자료 수집 활동, 연간자료 수집 활동 등으로 분류되며 수집된 자료 대상을 정리하면 일반자료, 전자자료, 특수범주자료, 어린이·청소년 자료, 장애인용 대체자료, 정책자료로 구분된다.⁴⁷⁾

기록관 소장품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떠한 기록을 선택하여 수집하고 보존할 것인가에 관한 선별과 평가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기록이 증거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본성(Authenticity), 신뢰성(Reliability), 무결성(Integrity), 이용 가능성(Usability)을 유지하여야 한다(ISO 15489-1:2001,7.2).⁴⁸⁾ 서은경(2013)은 근대에 들어와서 영구적으로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기록만을 선별하여 지속해서 보존하는 것이 기록관에서 수행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작업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고 하였으며, 평가에 따라 수집 또는 처분하는 선별 및 평가 업무를 주요 기능으로 수행한다⁴⁹⁾고 하였다.

기록관은 ‘기록의 일생 주기’ 개념에 근거한다. 즉 기록물이 ‘생산-관리-보존(또는 처분)’의 단계로 순환되는 과정⁵⁰⁾에서 마지막 보존단계에 이르러서야 보존기록관(Archives)에 이관되는 것이다. 이해영(2013)은 기록생산시스템에 의하여 생산부서의 처리과에서 현용단계의 기록관리를 맡고,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에서 준 현용단계의 기록관리를 맡으며, 보존기간이 30년이거나 준영구 혹은 영구인 비 현용 단계의 기록관리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담당한다⁵¹⁾고 하였다. 즉 기록물은 현용, 준현용, 비현용 단계에 따라 담당하는 기관이 다르며, 이 과정에서 정리, 이관, 보존 또는 폐기되기도 한다.

47) <http://www.nl.go.kr/nl/intro/service> 국립중앙도서관.

48) 한국기록관리학회. “기록관리론”. 아세아문화사, 2013, p.19.

49) *ibid.*, pp.149-150.

50) 한미경 외(2010). *op.cit.*, p.29.

51) 한국기록관리학회(2013). *op. cit.*, p.392.

기록관의 소장자료를 매체별로 분류하면 일반문서, 시청각 문서, 행정 박물관, 전자 기록물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보유현황⁵²⁾을 보면 일반문서류가 전체 기록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시청각류 중에서도 사진류가 그다음을 차지하며, 행정 박물관류는 1%의 비율도 되지 않는다.

박물관의 소장자료는 매우 중요하며, 박물관의 존재 이유는 ‘인간과 인류 환경의 물리적인 증거물’ 혹은 ‘소장품’을 수집·관리하는 것이며, 박물관의 소장품은 외견상 박물관이 어떠한 활동을 수행하는지 대중에게 제시해주는 수단⁵³⁾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박물관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 중에서 소장품의 내용에 따라 미술박물관, 역사박물관, 과학박물관, 자연사박물관 등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박물관의 소장품은 실물 위주의 소장품으로서 발굴조사, 기증, 기탁, 구매, 교환, 대여, 반환 등의 방법을 통하여 수집하게 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2조에 의한 박물관 자료란 박물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 박물관 자료는 박물관의 성격에 따라 주제, 시대, 재질, 매체 등 다양하게 분류된다.

박물관의 소장품 대상과 도서관 및 기록관과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유산을 포함한다는 점이다. 문화유산의 반대개념인 자연유산은 인간이 창조하지 않은 동물, 식물, 광물, 해양, 우주 등을 의미한다. 대다수의 자연계 박물관은 자연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형태도 다양하다.

둘째, 유물은 가능한 폐기하지 않고 보관한다는 점이다. 도서관과 기록관에서 평가에 걸쳐 이관하거나 영구보존 또는 폐기 등의 절차가 주요 업무임에 반하여 박물관에서는 특정한 경우에만 폐기처분의 절차를 거쳐 처분하게 된다.⁵⁴⁾

이처럼 보존의 기능이 강화된 기록관 및 박물관과 도서관의 수집정책은 차이가 있다. 도서관의 소장품은 도서관의 목적에 따라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자료를 수집

52) *ibid.*, p.393.

53) 이보아. “박물관학 개론”. 김영사, 2005, p.149.

54) 윤선영(2016). *op.cit.*, p.70.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도서관은 다양한 이용층을 대상으로 많은 양과 다양한 종류의 자료를 수집한다. 기록관은 도서관과 박물관 소장품과 공통된 사항이 있으나 대부분 문서 위주의 형태라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디지털로 된 소장품이 세 기관 모두의 공통점으로 압축된다. 세 기관의 자료 특성을 비교하면 <표 2-13>과 같다.

[표 2-13]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소장자료 비교 및 라키비움 소장자료 분류⁵⁵⁾

구분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
원자료 특성 및 정책	중복성(출판본), 복사본가능 대체성 있음 (분실 시 복구 가능) 규격화, 판권 수서 중심 정책 장서선정	유일성, 원본만 인정, 대체성 없음(분실시 복구 어려움) 비규격화, 비판권 보존 중심 정책 가치평가 중심 (박물관에 따라 다름)	
사용자, 생산기관 및 평가	불특정 다수집단이 이용 객관성 주제 중심 생산기관, 작성자의 의도, 목적이 중요 개별적 평가		특정 집단 이용 주관성 출처 주의 작성자, 저자의 의도가 직접적으로 중요하지 않음 복합적 평가
개방성	이차적자료 개방성(개가제)	일차적자료 보존공간:폐가제 전시공간:개가제	일차적, 이차적자료 비개방성(폐가제)



라키비움의 소장자료	
· 보존처리가 요구되는 자료	
·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 (도서, 문서, 실물, 시청각 등)	□
· 활용 가능한 자료 (전시, 개방형 수장고에 활용)	
· 활용 가능한 대체적 자료 (열람, 대출, 순회, 교육에 활용)	
· 특수, 기타 자료 (장애인 및 특수 대상층에 활용)	

이처럼 세 기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소장자료의 수집대상이나 분류 차이에 따라

55) 김민경.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공간협력방안. 2013.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pp.90-92. 표[13] [표14] 재구성.

라키비움의 소장자료로 통합하는 경우에는 보존되는 자료, 활용 자료, 특수 및 기타 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보존되는 자료는 보존처리가 필요한 자료와 보존이 가능한 자료로 나누어진다.

둘째, 활용 자료에는 활용이 가능한 자료와 활용 가능한 대체적 자료로 세분화된다. 활용이 가능한 자료는 전시, 열람, 개방형 수장고 열람 등 이용자들에게 서비스가 가능한 자료들을 의미한다. 활용이 가능한 대체적 자료들은 대출, 교육, 순회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로 도서관에서 주로 다루는 중복성을 가진 복사본과 대체 가능한 이차적 자료이다.

셋째, 특수 및 기타자료는 도서관에서 이용자에 따라 전문적으로 다룬 자료로 장애인, 다문화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3) 라키비움 전문인력

도서관 고유업무를 담당하는 사서 직원은 행정직과 별도로 자료의 선정, 수집, 정리, 분석, 제공 등의 고유업무를 수행한다. 사서직은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과 조직, 제공과 보존관리, 이용행태 및 주제자료의 유통 동향 분석, 도서관 및 이용자를 위한 연구조사, 이용 교육 등의 전문적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사서 외에 정보 전산화 업무, 각종 정보기기의 관리와 활용, 평생학습 및 행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다른 직렬의 전문가 및 보조직원이 필요하다.⁵⁶⁾

SAA 용어집 [A Glossary for Archivists, Manuscript Curators and Records Manager]에 의하면 기록전문가는 크게 아키비스트(Archivist), 레코드 매니저(Record manager), 매뉴스크립트 큐레이터(Manuscript curator) 이 세 가지로 구분된다. 아키비스트 및 레코드 매니저 모두 조직 및 개인 활동 레코드를 관리하는데, 이는 정보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 배열, 접근 및 검색과 관련된 작업이며, 적절한 기구 및 환경적으로 보존에 용이한 지역에 자료를 보관하여 이를 보호하는 것

56)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기준특별위원회(2013). op.cit., pp.31-32.

이다.⁵⁷⁾ 그러나 취급 대상에 차이가 있다. 레코드 매니저는 기록의 일생 주기에 따라 기록물을 관리하는 기관 내의 책임자를 뜻하는 기록행정관으로 우선적 의무는 레코드 생성조직에 있다. 아키비스트의 주된 업무는 취급 아카이브를 선별, 보존 및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⁵⁸⁾

박물관의 조직은 조사·연구, 수집·보존, 전시, 교육, 관람객 서비스, 관리·경영·행정 등의 박물관 기능을 기초로 조직된다. 박물관은 설립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최소한 기본적인 세 가지의 구성요소인 학예연구(수집, 보존, 조사·연구), 프로그램(전시, 교육), 행정이 포함되는 경영구조로 형성되며, 각각의 업무와 역할의 분담에 따라 세부구조가 결정된다.⁵⁹⁾ 학예연구 부서는 다시 조사·연구부서, 유물수집, 유물 보존처리 및 관리 등 세부적으로 나뉘며 프로그램 부서 역시 전시와 교육을 분리할 수 있다. 행정에는 시설관리, 유지보수, 보안, 인사, 재정 등의 업무 외에 대외홍보, 마케팅, 관람객 서비스, 자료실 운영 등을 담당한다. 규모가 큰 박물관에서는 내부적으로 출판, 디자인, 뮤지엄 샵 등의 업무를 직접 처리하기도 한다.

넓은 의미의 박물관 전문직에서는 박물관 전문직 종사자를 관리위원회, 관장, 학예연구원, 교육담당자, 전시 디자인, 편집인, 보존과학자, 자료관리사, 사서, 홍보 기획담당자, 서무담당자, 시설관리담당자, 안전요원 등 13개 직종으로 구분하며, 좁은 의미의 박물관 전문직은 박물관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학예사, 교육담당자, 등록담당원, 보존처리사, 전시기획자, 소장품관리자를 의미한다.⁶⁰⁾ 박물관에서는 학예사의 연구(Research) 역할에 중점을 두는데, 버코(Burcaw, 2004)는 소장품에 근거한 연구가 박물관의 투입(Input)이고 그 산물(Output)은 공중교육이라고 하며, 박물관이 교육적 기관이라는 타이틀을 얻으려면 소장품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필수적⁶¹⁾이라고 하였다.

세 기관 전문가는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 관리 및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수집하는 자료의 종류와 기관의 수집정책이 각각 다르기 때

57) 한미경, 노영희(2011). op.cit., p.38.

58) 캐롤라인 윌리엄스(2008). op.cit., p.25.

59) 이보아(2005). op.cit., p.95.

60) ibid., pp.111-112.

61) 조지앨리스 버코, 양지연 역. "큐레이터를 위한 박물관학". 김영사, 2004, p.187.

문에 세분화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기록관리자(레코드 매니저)와 도서관 사서직은 정보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여 이용하기 쉽도록 접근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자료를 관리하고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박물관 학예사(큐레이터)는 대체로 입체적인 자료를 수집, 연구, 정리하는 데 비해서 기록관리자는 주로 종이문서, 필름, 전자기록 등을 대상으로 한다.⁶²⁾ 또한 박물관의 전문인력은 학예사 외에 전시전문가, 교육전문가, 보존처리 전문가 등이 요구된다.

라키비움에서는 각각의 전문가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수집정책이 통합될 경우에는 그 역할들이 중복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라키비움의 규모에 따라 사서, 기록관리자, 학예사 등 모두가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세 기관의 전문가 역할을 비교 정리하여 라키비움 전문인력 구성 통합안을 제시하면 <표 2-14>와 같다.

[표 2-14]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전문인력 비교 및 라키비움 전문인력 구성⁶³⁾

구분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전문가	사서	기록관리자	학예사
공통점	정보자료의 수집, 관리, 보존 및 이용 제공		
업무 분야	문서, 도서(시청각 자료, 전자기록 포함) 매체를 주로 다룸		박물, 자연, 문서 등 광범위한 자료를 다룸
	자료의 활용에 중점	자료의 활용보다 보존에 중점	
기관별 차별성	이용자서비스 중심의 자료관리, 정보제공에 중점	자료의 수집, 평가, 보존, 정리 등에 중점	자료의 수집, 보존 외 연구 수행에 중점
↓			
라키비움 전문인력			
수집, 보존, 관리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 평가, 기록, 분류 - 보존처리 - 관리 - 연구 	
이용 및 활용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서비스 제공(대출/반납, 문화프로그램) - 커뮤니티 프로그램 - 교육 프로그램 - 전시 프로그램 	

62) 한국기록관리학회. "기록관리론". 아세아문화사, 2013, p.32 재인용.

63) 윤선영(2016). op.cit, p.70 재구성.

세 기관의 전문인력에 대한 공통업무를 재구성하는 경우는 라키비움의 업무를 크게 두 가지의 전문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수집·보존·관리 전문가이다. 이들은 수집, 평가, 기록, 분류, 보존처리, 관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둘째, 이용·활용 전문가이다. 이들은 대출, 반납 등의 이용자 서비스와 교육이나 전시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여 운영하는 업무를 주로 맡는다.

2.2.3 라키비움의 특성

라키비움은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기능을 융합하여 이용자가 요구하는 정보 자원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라키비움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⁶⁴⁾

첫째, 각 기관의 공통된 업무에 대한 통합과 협업이 나타난다. 수집, 관리, 보존, 서비스 등의 기본적 업무의 형태는 기관마다 비슷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수집하는 자원들의 형태는 다르지만, 각각의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목적은 유사하다.

도서관은 [도서관법], 박물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기록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유기능과 업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수집한 자료들의 관리와 보존 업무와 연구 제공, 전시, 견학 및 교육, 강좌 프로그램 구성 등 소장 자원을 바탕으로 활용하는 서비스의 업무는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라키비움으로의 구축과 발전은 업무 통합과 조직의 일원화를 통해 예산 지출을 줄이고 인력 배치의 효율적인 활용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법적으로도 문화유산 기관 간의 협력을 명시하고 있다. [도서관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도서관은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미술관·문화원·문화의 집 등 각종 문화시설과 교육 시설, 행정기관, 관련 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른 문화유산 기관과의 협력은 명시되어

64) 김미연. 공공도서관 사서의 라키비움에 대한 인식연구 :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2016. 인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pp.15-16.

있지 않고 다른 유형의 기록관과 협력만 제시되어 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는 제33조 제4항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상호협력에서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도서관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원·도서관·문화예술회관 등 다른 문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다른 문화기관과의 협력에 대하여 명시하였다.⁶⁵⁾

둘째,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하다. 각 기관마다 구축된 고유한 전문 영역에는 그에 맞는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소장 자료의 특징에 맞는 기술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같은 개념을 서로 다른 용어로 지칭하거나 이와 반대로 다른 개념이지만 같은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존재한다.⁶⁶⁾ 그렇기 때문에 협력에 있어 호환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관의 공통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우선 협업이 가능한 부분부터 업무를 수행하여 그 범위를 넓혀간다면 기관 간의 간극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협업적 형태는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효율적으로 충족 시켜 줄 수 있으며, 콘텐츠의 효과적 이용을 기대할 수가 있다.

셋째, 각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을 공유할 수 있다. 라키비움의 공간은 보존, 관리, 서비스 공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기관의 특징과 핵심을 담은 공간들을 공유한다면 라키비움의 통합과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내용과 같이 각각의 문화유산 기관들이 그들이 가진 자원을 통합하고 관리하는 라키비움으로 구축된다면 모든 문화유산 정보로의 접근이 쉬워질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제도적·경제적 등의 이유로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다.

65) 최연경. 라키비움 관점에서 문화유산 기관의 특성을 살린 통합 보존방안에 관한 연구. 2018.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p.28.

66) 안진영. 국립중앙도서관의 라키비움 정향성 : 아카이브로서 개인문고 활성화를 중심으로. 201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p.26.

2.2.4 라키비움의 현황

(1) 기능 지원 사례

캐나다에서는 아카이브와 도서관을 합병하여 캐나다 도서관 기록관(LAC, Library and Archives Canada)라는 명칭으로 바꾸고 컬렉션을 확장하여 전시도 진행한다. LAC에서는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국가적 기록유산을 보존하고, 문화적·사회적·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모든 지식의 원천이 되도록 하고 지식의 획득, 보존, 확산에 연관된 커뮤니티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며, 캐나다 정부의 지속적인 기억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물리적 측면에서는 산하 기관 간의 협업을 위해 시설을 공동으로 관리·운영하도록 지원하여 기록물 관리 절차별 필요한 시설을 분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능적으로도 통합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을 관리·제공하고 있다.⁶⁷⁾

영국의 MLAs(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는 영국의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아카이브를 전략적으로 이끄는 기관이며 비정부 공공기관으로서 각 부분별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와 정부 정책에의 자문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다. 정책 수립부터 집행까지 수행하며 박물관에 관한 조사, 박물관 정책연구, 정책제안, 출판, 정보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다.⁶⁸⁾ MLAs는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을 통한 보다 나은 사회는 모든 국민들에게 지식에 대한 접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현 가능하며 이는 지식의 보고인 박물관, 도서관 그리고 기록관의 파트너십과 협력에 의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MLAs의 중요한 기능은 박물관, 기록관 그리고 도서관 간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이들 기관의 자료와 서비스를 모든 사람들이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⁶⁹⁾

미국 워싱턴 D.C. 에 본사를 두고 있는 IMLS(Institution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는 전국의 박물관과 도서관, 관계자 및 이용자들을 지원하는 연구,

67) 최연경(2018). op.cit, p.1.

68) 양현미 외, "박물관·미술관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2. 정책과제 2002-17, pp.145-146.

69) 서혜란. "도서관과 기록관의 협력방안 모색". 한국비블리아학회, vol.13, 2005, p.119.

정책개발, 인허가 등을 수행하는 기구이다. IMLS에서는 개인과 사회에게 지식, 문화유산 그리고 평생교육에 광범위한 공공적 접근을 할 수 있는 민주사회를 지향한다.⁷⁰⁾

노르웨이 문화부 소속의 ABM-Utvikling의 정식 명칭은 Norwegian Archive, Library and Museum Authority로 기존의 국립도서관, 박물관, 기록관의 기능을 합친 구조를 가진 기관이었으나 현재는 Arts Concil Norway에서 문화라는 명칭 아래 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⁷¹⁾ ABM-Utvikling은 개별적으로는 세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세 부문의 단결을 통해 영향력을 강화하기도 하고 각각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던 박물관 네트워크, 도서관 네트워크, 기록관 네트워크 그리고 예술 네트워크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노르웨이에서는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 간의 협력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이들 기관을 통합하거나 같은 건물 또는 지역에 설치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⁷²⁾

위의 사례를 통해 라키비움은 단일기관이 아닌 세 기관 간의 공통적인 특성들을 인지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 또는 기구들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라키비움의 형태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조직이 융합되고 협력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보여주고 있다.

(2) 기능융합 사례

도서관과 기록관, 박물관이 기능 및 공간적으로 융복합된 사례는 고대 알렉산드리아의 뮤제이온을 예로 들 수 있다. 최초의 박물관으로 여겨지는 뮤제이온에는 부설기관으로 도서관이 있다. 이곳에서는 연구와 학술 활동 외에도 도서와 문서 종류를 보관하는 기록관의 기능도 함께 수행되었다. 이처럼 알렉산드리아의 뮤제이온은 신전임과 동시에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의 역할도 수행했다. 이는 현대의 문화복합 공간과 같이 문화행사와 연구, 조사, 수집, 보존 등의 기능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70) <http://www.ims.gov/about/default.aspx>.

71) <http://www.kulturradet.no/english>.

72) 서혜란(2005). op.cit., p.118.

따라서 현존하는 세계의 도서관은 박물관이자 기록관이라 볼 수 있다. 수많은 박물관에는 서고와 아카이브를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러시아 등 유럽의 국립도서관에는 고대 도서를 포함하여 예술품과 유물 등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다. 호주 국립도서관은 인터뷰, 녹음으로 이루어진 구술 자료와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셰익스피어도서관은 셰익스피어의 원고 외에도 연극, 예술과 관련한 컬렉션과 전시와 연극, 연주회 등의 문화 이벤트가 진행되어 공연장의 기능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위와 같은 사례들은 라키비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지만,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 뉴욕주에 있는 모건 도서관 및 박물관, 링컨도서관 및 박물관, 프리츠커 박물관 및 도서관처럼 기관 명칭에 두 기관을 함께 명시하는 경우도 있다.

20세기 후반부터 유럽의 다양한 복합문화시설은 도서관과 기록관 그리고 박물관의 기능을 병행하여 문화 전반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문화예술의 복합공간으로 등장하여 커뮤니티 공간, 공연 공간, 전시 공간, 자료 공간, 휴게 공간 등을 단일 건물 내에서 수용하였다.⁷³⁾ 1980년대에 들어 정보화 사회라는 현대사회의 패러다임 변화와 정보 공공화의 필요성 및 요구의 증대 그리고 매체의 디지털화, 새로운 매체인 멀티미디어의 등장과 그로 인한 정보전달 매체의 다양화는 정보의 저장과 접근, 소통에 대한 개념적 변화를 주게 되었고, 이와 같은 변화는 정보시설에 대한 새로운 모색을 불러일으켜 ‘미디어테크’라는 시설을 등장시켰다.⁷⁴⁾

미디어테크는 기존의 도서관과 미술관, 박물관을 통합함으로써 정보의 파편적 수용이 아닌 문화 전반에 걸친 이질적이면서도 다양하고 복잡한 지식과 프로그램들을 수용하는 거대한 복합문화시설이다.⁷⁵⁾ 미디어테크는 공공문화시설이자 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모색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유형, 무형의 정보 그리고 텍스트와 이미지로 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제공

73) 김은정, 박언곤.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복합문화시설의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 발표대회논문집, vol.24,no.1, 2004, p.68.

74) 임호균. 공공도서관 공간체계의 변화와 특성에 관한 연구. 2007.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p.90.

75) 한희정.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공공도서관 공간설계에 관한 연구. 2011. 전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p.54.

한다는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기존의 도서관과 미술관, 박물관의 기능과 프로그램을 통합하게 되었다.⁷⁶⁾ 퐁피두센터를 필두로 20세기 유럽의 공공도서관이 정보사회시설로서 이용자 중심의 다중심적 공간구조로 전환되어 네트워크 공간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미디어테크가 등장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실마리가 되었다.⁷⁷⁾ 최초의 미디어테크라 불리는 프랑스의 퐁피두센터는 1977년 파리에 개관하였다. 퐁피두센터는 기존의 전통적인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의 내용과 형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문화공간을 제시하였다.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장시켰으며 가변적이고 열린 공간을 지향하며 건축적 외관 역시 이를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현재 광주광역시에 건립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라키비움과 같은 개념으로 운영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복합문화 단지로서 민주평화교류원, 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어린이문화원, 예술극장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한 곳에 조성하여 통합적인 콘텐츠 관리로 운영하고 있다. 국립민속박물관의 경우 2006년부터 민속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주로 디지털화 작업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아카이브는 열람공간과 보존공간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고 세종시에 개관한 대통령기록관은 기본적인 기록관 이외에도 상설 및 기획전시관, 교육 공간 등으로 구분하였다.

① 라이브러리 파크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문화정보원 내에 위치한 라이브러리 파크는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기능을 통합하여 라키비움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지식정보 공간으로 탄생한 아시아 문화 향유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이다. 이곳에서는 아시아 문화예술 관련 정보를 열람하고 전시하며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 문화예술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신념이 만나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결과물을 생산해내는 국제적인 예술기관이자 문화교류 기관으로

76) 김용원. 도서관 기능의 재구성을 통한 프로그램 복합화에 관한연구. 2007.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pp.8-9.

77) 최영실(2012). op.cit, p.21.

그 규모는 연면적 161,237㎡, 부지면적 134,815㎡로 민주평화교류원, 어린이문화원, 문화정보원, 예술극장, 문화창조원, 아시아문화광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15] 라이브러리 파크 개요

명칭	라이브러리 파크		
위치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38	개관 년도	2015년
연면적	1,364㎡	구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설립목적	지역 균형 발전, 문화적 위상 강화	규모	지하 3층-4층
주요활동	아시아 문화자원 수집·연구, 문화 자원 수집·관리·제공·교육		

이 중 라이브러리 파크가 속해있는 문화정보원은 아시아 문화자원에 대한 수집과 연구를 통해 지식을 생산하고 전파하는 아카이브 공간이자 연구기관이다. 수집된 아시아 문화자료를 기초로 아시아가 주체가 되는 아시아적 시각에 의한 아시아 문화연구의 거점이자 허브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아시아 문화 재원을 수집·관리하고, 수집된 자원을 라이브러리 파크에서 제공하며 교육하는 역할을 한다.⁷⁸⁾

[표 2-16] 라이브러리 파크 공간 현황

위치	구성 요소	
지하 3층	전문 컬렉션	아시아 인문·예술·사회 분야를 다루는 13개 주제
	개인 컬렉션	정추, 지춘상 등 개인이 기증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컬렉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생산된 각종 기록 자료 수집
	일반 장서	아시아 및 보유 컬렉션의 이해 증진
	국제교류전	주요 아시아 문화예술기관과의 콘텐츠 교류
지하 4층	수장시설	향온 향습 시설
	보존시설	매체별 자료 보존 및 디지털 자료변화
	특별열람실	희귀 도서 자료 및 아카이브 자료 열람
	미디어 자료열람실	시청각 자료 열람

78) 한동우(2017). op.cit, p.43.

라이브리리 파크는 문화정보원에서 아시아문화자원을 연구하고 수집한 콘텐츠를 라이브러리 파크를 통해 전시, 체험, 검색, 열람하는 공간으로 대중에게 창작 소재를 제공하는 접점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라이브러리 파크는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이 결합한 라키비움의 형태로 지하 3층과 4층에 걸쳐 1,364㎡의 규모로 전시·열람, 서가, 수장고, 특별 열람실 등을⁷⁹⁾ 갖추고 있다.

라이브리리 파크는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열람할 수 있는 주제 전문관(아시아문화예술 전문아카이브)과 기획관(특별기획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건립 아카이브관, 국제교류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대한 자료와 함께 최적화된 열람공간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아시아 전역의 전문가들이 수집한 주제별 자료와 도서, 이미지, 영상 등을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주제별 강연, 체험 워크숍, 상영회를 개최하며 아시아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⁸⁰⁾



[그림 2-8]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라이브러리 파크 (출처: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홈페이지)

② 한국원자력연구원 라키비움

한국원자력연구원 라키비움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기술정보의 안전한 영구보존 및 효율적인 관리와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위한 최고의 기술정보를 지원하기 위한 기록관 및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북 카페나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역사와 연구를 보여주는 전시 공간 등 부대시설의 구축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⁸¹⁾

79) *ibid.*, p.43.

80) *ibid.*, p.44.

[표 2-17] 원자력 라키비움 개요

명칭	한국원자력연구원 라키비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111	개관년도	2014년
연면적	2,898㎡	구분	연구기관, 지식정보센터
설립목적	연구기술 영구보존, 효율적 관리, 최고의 기술정보 지원	규모	지상 1층-3층
주요활동	원자력 기술기록 사업, 공공기록물 관리, 기술정보 시스템 운영		

원자력 라키비움은 기존 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2014년 7월에 지상 3층 규모로 개관하였다. 1층은 기록 1관으로 주로 아카이브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 사용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생산한 연구기술정보의 기록물 보관을 위해 모빌렉(이동식 서고)와 자동소화 설비, 향온향습기, 공기조화설비, 이중잠금장치, 디지털 온·습도 함, 향균 방충 장치, CCTV, LED 조명등 보존을 위한 환경이 구축되어 있다.

2층은 기록 2관으로 주로 박물관의 기능을 수행한다. 기록물의 전시와 열람 공간, 기록정보데스크가 있으며 원자력과 관련된 자료 이용이 가능하다. 3층은 도서관 및 자료실로 주로 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용자 문화 공간과 회의 공간, 정보 데스크가 있으며 간단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표 2-18] 원자력 라키비움 공간 현황⁸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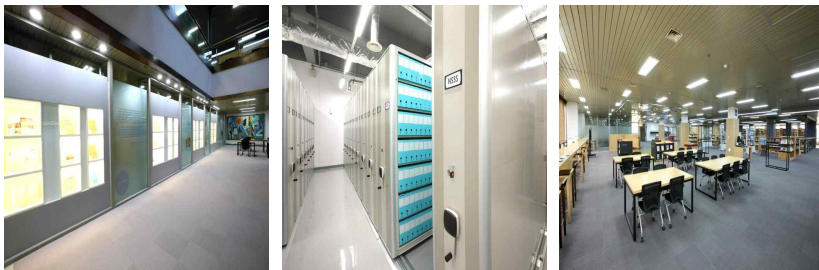
위치	구성 요소	
	핵심기능	공간기능
1층 (Archives)	원자력 관련 주요 기록물 보존	기록물 관리 공간, 기록물 보존처리공간, 보존시설 환경
2층 (Museum)	역사적 기록물 전시	박물관 보존 수장고, 박물관전시 공간
3층 (Library)	도서 수서, 자료열람/검색, IC(Information Commons) 공간	도서 자료 열람·보존, 참조, 지식전달·교육, 이용자 편의시설 공간

위와 같은 원자력 라키비움이 설립되면서 여러 긍정적인 변화가 발생했는데 먼저 이용자들이 증가하였다. 기존의 이용자들을 위한 편의 공간이 부족하였던 도서

81) 오정훈 외. "전문도서관 라키비움 구축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vol.25,no.2, 2014, pp.237-238.

82) 김미연(2017). op.cit., pp.25-26.

관의 공간들이 원자력 라키비움⁸³⁾이 설립되면서 북 카페, DVD 코너 등과 같은 문화 공간과 학술세미나실, 창의연구실, 멀티미디어 실, 회의 공간 등 복합문화공간들로 바뀌면서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크게 증가하였고 연구기록물들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존이 가능하게 되었다. 기존의 도서관에서는 연구기록물들이 각각의 부서에 산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되지 못하였으나, 원자력 라키비움⁸³⁾이 설립되면서 기록관이 구축되어 연구기록물들을 한 곳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민들의 원자력 공감대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기록전시관이 구축되면서 주요기록물의 전시 및 홍보가 가능하게 되었고 원자력 연구원의 조직 구성원 외 지역주민 등 일반 시민들에게 원자력에 관한 공감대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⁸³⁾



[그림 2-9] 원자력 라키비움(출처:원자력라키비움 홈페이지)

③ 국립중앙도서관 라키비움

국립중앙도서관은 2015년 11월 [도서관에서의 라키비움 실현을 위한 제도연구] 보고를 통해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 제공과 국가 대표도서관의 역할 수행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본관 1층에 이에 따른 자료를 주제별 전시공간으로 마련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2층 문학실은 2016년 3월에 라키비움

83) 유안나. “도서관 공간의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다 한국 원자력연구원 도서관 : 우리나라 전문도서관 최초의 라키비움, ‘원자력 라키비움’ “.국회도서관 연구보고서, 2014. p.242.

의 형태로 새롭게 구축되었다.

[표 2-19] 국립중앙도서관의 개요

명칭	국립중앙도서관 라키비움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개관 년도	2016년 3월
연면적	34,722㎡	구분	국립도서관
설립목적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요구에 부합할 통합정보서비스 제공	규모	본관(지하1층-지상7층), 자료보존관(지하2층-지상4층), 디지털도서관(지하5층-지상3층), 어린이도서관(지하2층-지상4층)
주요활동	도서 열람, 도서관 주간 및 전국 독서교실개최 등		

새롭게 변화된 문학실은 백석, 서정주, 윤동주 등 한국의 대표 근대 문학작품 전시와 함께 자료실로 구성되어 이용자들은 독서 공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의 전시와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 문학실은 기존 도서관에서 많이 사용하던 5단 서가의 규격화된 틀을 벗어나 3-8단의 복식 서가와 유리 진열장을 추가로 설치하여 단순히 책을 보는 장소의 도서관이 아닌 문화를 향유하는 교육적 공간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2017년 2월에는 전시공간과 체험, 교육공간으로 문화, 정보, 지식을 담고 있는 각종 기록 매체들의 가치를 알리고, 과학기술발전으로 끊임없이 진화하는 기록 매체의 과거와 현재, 미래 통찰을 위한 기록 매체 박물관을 개관하였다.



[그림 2-10] 국립중앙도서관 라키비움 문학실, 기록 매체 박물관

기록 매체 박물관은 기록 매체 이야기를 주제로 문화, 지식, 정보를 담고 있는 각종 기록 매체의 가치를 알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끊임없이 진화하는 기록 매체의 과거와 현재를 통찰함으로써 미래를 꿈꾸는 공간을 경험할 수 있다.⁸⁴⁾

④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라키비움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은 지역문화 콘텐츠의 허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콘텐츠 진흥원 내 문화 콘텐츠 관련 복합문화공간인 라키비움 시설구축을 완료하여 2013년 12월에 개관하였다. 국내 유일의 문화 콘텐츠 진흥원 내 라키비움으로서 문화 콘텐츠의 관리에 대한 필요성의 대두와 수집, 보존, 활용 등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에 대한 증가로 설립되었다. 라키비움은 진흥원 내 4층에 위치하며 연면적 390㎡에 문화 콘텐츠 관련 복합공간으로 아날로그·디지털 정보제공, 콘텐츠 체험 및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표 2-20]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개요

명칭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라키비움		
위치	경북 안동시 영가로 16	개관 연도	2013년 12월
연면적	4,407㎡	구분	준정부기관
설립목적	문화 콘텐츠 산업을 대표적 수출산업으로 육성	규모	지하 1층 - 지상 6층
주요활동	콘텐츠 유통 마케팅 지원, 콘텐츠 제작 지원, 창업 및 인큐베이팅 지원, 문화사업 인프라 조성과 정보제공 활동		

진흥원 내에는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이 한 장소에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경상북도 지역의 문화자료와 문화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수집, 검색, 이용, 보존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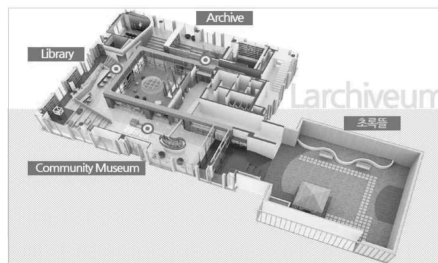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라키비움은 2013년 12월 13일에 개소한 이후 현재까지 약 6만 명의 방문객이 방문한 라키비움 건축으로, 가족 단위나 일반 관람객의

84) 뉴시스. “국립중앙도서관, 책의 일생을 알려주마”. 2017년9월25일, www.newsis.com

수가 많아지고 있다. 도민들에게 질적인 문화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라키비움은 매년 이용률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 누림터’를 구성하여 누구든 라키비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타 기관과 비교해서 체계적으로 잡혀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서관 자료와 전시, 아카이브 등을 한 공간에 복합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입주기업과 연계하여 경상북도 문화 콘텐츠를 수집하고 정리함으로써 일반인은 물론 기업에게 문화 콘텐츠 정보서비스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일반인뿐만 아니라 기업인들이 찾아오게 하는 라키비움을 구축하게 되었다.⁸⁵⁾



[그림 2-11]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라키비움



[그림 2-12]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라키비움 구성도

85) 안지혜. 라키비움 서비스에 대한 사서 인식 연구 : 국회도서관 구성원을 대상으로. 2018.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pp.38-39.

2.3 선행연구

2.3.1 선행연구 고찰

(1) 대학도서관 관련 선행연구

본 논문은 대학도서관에서 라키비움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대학도서관의 라키비움 특성에 관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대학도서관의 공간분류와 공간체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남영준 외(2009)는 C 대학교 중앙도서관 중심으로 공간구성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리모델링 전후의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결과를 통해 이용자가 원하는 도서관 공간 활용 가운데 열람공간과 휴게공간에 대한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김소희(2012)의 연구는 건축설계를 위한 공간 프로그래밍의 색상 사용을 상세하게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도서관의 공간 프로그램과 기능은 새로운 미디어와 디지털 정보시스템과 함께 바뀌었는데 해결책은 정보를 디지털로 저장하고 공공공간을 침해하지 않고 확장할 수 있도록 책을 위해 특별한 지정 공간을 만드는 것이 포함 된다고 제안하였다. 이용재 외(2012)의 연구에서는 P 대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사례조사를 수행하여 대학도서관이 사용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한 공간 구성의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대학도서관 공간 관련 국내외 연구를 정리하고 주요 대학도서관을 탐방하여 공간 구성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례들을 비교분석 하였고 P 대학교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이용자들의 요구 사항이 이 연구에서 발견한 국내외 대학도서관 공간구성의 방향성과 거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연구의 결과로는 대학도서관이 공간을 개선하고 사용자 지향적인 도서관마케팅을 수행하는데 참조가 되도록 조사 되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정재영(2012)은 새로운 도서관 공간을 구상하고 제공하는 데 있어 대학도서관의 학문적 성격을 고려하여 복합학습공간을 지향할 필요가 있으며, 대학도서관의 목적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용자의 요구, 장서의 활용방안 그리고 사서의

역할 및 배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공순구 외(2013)의 연구는 대학도서관의 공간 구성과 정보 변화에 따른 공간의 재구성을 통하여 사용자를 위한 연구 및 연구공간과 개인 및 그룹을 위한 통신공간과 같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Hybrid) 라이브러리 모델을 제안하여 공간 운영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장아리(2013)는 대학도서관의 공간 특성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대학도서관의 공간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대학도서관의 특성, 변화를 수용하고 보다 전문화, 차별화된 도서관 환경의 방향을 이끌 수 있도록 현재 계획되는 자료실들의 공간 특성을 파악하여 차별화된 계획방안을 제시하였다. 장윤금(2014)의 연구는 다른 연구자들의 선행연구에 많은 횡수로 인용되고 있는데 대학도서관 공간구성에 대한 변천 과정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조사를 통해 대학도서관의 공간구성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하는 도구 개발과 미래의 공간구성 및 평가 전략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다. 노동조(2015)와 박시윤 외(2015)는 대학도서관 공간 관련 감성어휘를 도출하여 향후 도서관 설계 및 평가근거 사항을 마련하였고, 공공도서관의 실내 공간 구성요소 특성을 구축적 요소와 장식적 요소를 나누어 분석하였다. 안준석(2015)은 지역 대학도서관의 서고 공간을 중심으로 대학도서관의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공간시설의 관점에서 제시하였고, 함유진 외(2015)는 노동조와 마찬가지로 지정 대학도서관의 공간분석을 통하여 세부공간에 감성어휘들을 제시하였다. 김소라 외(2015)는 UX Design⁸⁶⁾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페인 포인트 니즈를 파악하고 도서 정보 공유와 추천을 위하여 도서관 소셜 네트워크 경험 디자인을 제시하였고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 빠르게 책이 있는 구역과 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즉각적으로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김주희 외(2017)는 리모델링이 실시된 도서관들을 대상으로 실내 공공공간의 색채 경향을 파악하고 특성을 정리하였으며, 임선정(2017)은 공유공간 개념을 바탕으로 대학도서관의 공간구성 분류

86) UX Design : User Experience Design. 사용자가 제품, 서비스,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체험하는 데 있어 지각하는 것이 가능한 조직적 상호교감 적인 모델을 창조하고 개발하는 디자인. 사용자 중심 디자인의 원리에 기반하고 있어 인간공학,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정보 아키텍처, 휴먼 팩터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사용성 공학(Usability Engineering) 분야와 많은 공통된 요소를 가지고 있음. UI Design(User Interface)과 혼돈이 있을 수 있지만, UI Design은 사용자가 제품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도록 만드느냐를 디자인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실제로 마주하게 될 시각화된 디자인의 개념.

체계를 정립하여 층별 공간 분석을 통해 커뮤니티 공유공간의 클러스터 평면 모델을 제시하였다. 정지혜(2021)는 대학도서관의 공간과 시대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공간들을 종합하여 전통성과 미래 가치가 공존하는 주요 기능별 대학도서관 공간분류를 도출하고 대학생 이용자의 요구를 구체화하여 대학도서관 공간개선의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에 관한 연구는 주로 예산, 서비스, 인력과 관계된 인문학적 연구가 많았다. 그리고 사회적 변화에 따라 이용자의 요구 변화 따른 대학도서관의 방향성 등을 제시하였다. 이 외 디자인과 건축적인 관점에서 다뤄진 연구는 대학도서관 공간을 평가하는 연구에서 실내요소를 나눠 평가하거나 선행연구의 문헌을 토대로 기준을 정하여 평가하는 방향을 보였다. 이용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선호도나 만족도 등 중요요인들을 도출해낸 연구도 있었으며 공간별 색채분석을 진행한 연구도 있었다.

[표 2-21] 대학도서관 선행연구

제 목	저자/년도	대상 공간	내 용	평가 방법
대학도서관 리모델링 전·후의 공간구성에 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연구	남영준 외/ 2009	국내 C 대학 도서관	C 대학도서관의 리모델링 전·후의 공간구성 변화를 분석, 이용자 만족도를 측정하고 향후 대학도서관의 효율적인 계획 방향 제시	문헌 조사, 현장 분석, 이용자 설문조사
대학도서관 공간 구성 연구	이용재 외/ 2012	국내 P 대학 도서관	이용자에게 더욱 다가가기 위한 방안을 개발하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대학도서관 공간구성의 방향성 제시	국내외 사례분석, 현장 분석, 설문조사
대학도서관 공간 활용 방안 연구	정재영/ 2012	국내 대학 도서관	대학도서관의 필수 구성요소인 시설, 장서, 사서, 이용자 기준에서 문제점 분석 후 고려요소 제시	선행연구 조사, 이용자 설문 조사
대학도서관 주제 자료실의 실내공간 특성에 관한 사례 연구	장아리/ 2014	국내 대학 도서관	대학도서관의 공간 특성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공간 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자료실의 공간 특성을 파악하여 차별화된 계획방안 제시	현장 방문, 사례조사
대학도서관 공간구성 변화 및 평가방안 연구	장윤금/ 2014	국내 대학 도서관	대학도서관의 공간구성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하는 측정 도구의 개발과 미래의 공간구성 및 평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제시	문헌 조사,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심층면접

(계속)

[표 2-21] (계속)

제 목	저자/년도	대상 공간	내 용	평가 방법
공공 도서관의 실내 공간 구성요소 특성에 관한 연구	박시윤 외/ 2015	국외 핀란드 공공 도서관	공공도서관 실내 공간 구성요소의 특성을 구축적 요소, 장식적 요소로 나누고 분석	문헌 연구, 사례분석
시애틀공공도서관의 공간프로그램과 색채사용 연구	김소희/ 2012	국외 시애틀 공공 도서관	공간프로그램에 따른 주조색, 보조색 등의 색채와 공간프로그램의 연관 관계 분석	문헌 조사, 방문 조사, 육안측색작업 spyder cube
개가식 도서관의 공간효율 제고 방안	안준석/ 2015	국내 대학 도서관	대학도서관의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공간 시설의 관점에서 제시	현장 답사
도서 정보 공유 및 추천을 위한 도서관 소셜 경험 디자인에 관한 연구	김소라 외/ 2015	국내 대학 도서관	UX 디자인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페인 포인트 니즈 파악, 도서 정보 공유 및 추천을 위한 도서관 소셜경험 디자인 제시	문헌 연구, 사용자 리서치, 현장 관찰, 심층 인터뷰
대학도서관 커뮤니티 공유공간의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임선정/ 2017	국내 외 대학 도서관	공유공간 개념을 바탕으로 대학도서관 공간구성 분류체계를 정립하고 층별 공간 및 분석을 통해 커뮤니티 공유공간 클러스터 평면 모델 제시	문헌 조사, 현장 분석, 선호도 조사
이용자 의식조사를 통한 대학도서관의 공간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정지혜/ 2021	국내 외 대학 도서관	선행연구를 토대로 국내외 대학도서관의 공간분류, 사례분석, 이용자의 이용행태와 선호도 조사, 공간의 중요도 분석	문헌 조사, 공간체계분석 선호도 조사 중요도 분석

(2) 라키비움 관련 선행연구

라키비움 관련한 선행연구는 라키비움의 용어가 대두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 간의 협력에 의한 연구사례가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라키비움에 관한 연구로서 국내 최초의 연구자는 최영실과 김유승이라 할 수 있다. 2012년부터 연구논문이 발표되기 시작하였는데 먼저 최영실(2012)은 캐나다 LAC(Library and Archives Canada) 등의 몇몇 문화정보 기관들이 각 기관 간 통합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기록관리 전문가로서 이용자에게 다양한 정보물을 제공할 수 있는 복합적 문화정보기관의 공간을 계획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한 복합정보 공간인 라키비움에 주목하여 라키비움을 설계할 때 실무적 입장에서 기록관리 전문가가 공간 기획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라키비움의 공간요건을 계획하기까지의 필요한 요소 등 본질적인 기관의 구성 인프라를 논리적으로 배치하고 설계하는 절차를 제시한 것으로 라키비움의 공간에 대한 시설 중심의 설계도 안이나 공간배치안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김유승(2012)의 연구는 국회 문화유산과 지식정보를 공히 다루는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헌정기념관 이 세 기관의 통합적 발전 전략으로서 '국회 라키비움' 수립에 대한 필요충분조건을 분석하고 그 전망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그리고 이를 위한 협력정책의 필요성, 절차, 성공 요인에 대한 다양한 문헌을 살피고, 협력 사례들을 그 수준과 지리적 범주를 기준으로 유형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 기억기관 간의 비전 공유와 신뢰 구축 활동으로부터 국회 라키비움의 내용적 완성에 이르는 단계적 전략을 제시하였다.

최영실(2013)은 국내의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을 대상으로 라키비움 리모델링에 필요한 기관 현황분석 활동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방법적으로는 기존 라키비움 공간기획 연구의 절차를 정밀화하였고, 분석 도구로는 관련 법률과 지침 등을 활용하였다. 따라서 더욱 현실적인 라키비움 공간기획의 실행 방안을 제안하였다. 배성중 외(2014)는 소규모대학교에서 대학도서관, 대학기록관, 대학박물관의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라키비움을 제안하였는데 문헌 조사 및 현황조사를 분석하고 각 기관 담당자와 면담을 수행하여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할 방안을 제시하고 소규모대학교에서 모든 정보의 관리, 보존 및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 구성을 제안하였다. 오정훈과 이응봉(2014)은 라키비움의 도입 절차 및 구축 방법과 관련된 실제 적용사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표적 전문도서관 중 하나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원자력 라키비움을 대상으로 구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전문도서관에 적용할 수 있는 라키비움의 도입 방안과 구축 절차를 제시하였다. 장미경(2015)의 연구에서는 중규모대학교 도서관의 라키비움 구축모형 개발에 관하여 연구하였는데 대학교 도서관, 박

물관, 기록관 각각의 기관에 따른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라키비움 개념 도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2015)의 연구에서는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통합적 정보서비스의 제공과 국가대표도서관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도서관에서의 라키비움 기능 구현을 위하여 요구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하였고 이 연구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이 라키비움의 기능을 실현하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별 도서관 관련 법규 및 주요 국가도서관의 자료수집 및 서비스 정책을 조사,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윤선영(2016)은 라키비움을 중심으로 국내 경제발전의 중심인 국가산업단지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인식하고 현재 관점에서 문화적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 35개의 국사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현재 지니고 있는 잠재적 산업유산에 관하여 조사하고 분석하여 문화적 활용 가능성을 찾고자 문화적 활용 도구로 라키비움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콘텐츠와 라키비움의 기능 관계를 산업사적 콘텐츠와, 생활사적 콘텐츠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산업사적 콘텐츠는 건축물시설·장비, 생상품, 기술·데이터 시스템, 노동운동으로 분류하고, 생활사적 콘텐츠는 생활문화와 생활환경으로 분류하여 그에 따른 보존과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향후 라키비움이라는 융복합 공간에서 소장자료의 범위가 확대되고 보존과 활용 방법도 다양해지며 커뮤니티 활동과 평생교육의 기능이 다양한 모습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하였다. 김미연(2016)은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의 역할 제고를 위해 공공도서관 사서의 라키비움 인식 및 구축의 필요성과 구축방법, 선결 요건, 기대효과 등을 연구하였다. 한동우(2017)의 연구를 보면 대구를 기반으로 가장 활발하게 국채보상운동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채보상운동 기념관의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중요한 가치를 지닌 기록유산인 국채보상운동의 기록물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 및 활용되도록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지수(2018)는 문학관의 개념과 의미 및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고찰하고 한국 근대문학관의 증축 안인 한국 근대문학 라키비움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라키비움 개념에 의한 문학관의 구체적인 디자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박승진(2018)의 연구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최근 메이커 운동을 반영한 라키비움 구축을 위한 전략으로써 정보와 문화, 예술을 향유하는 라키비움 구축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이용자의 능

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메이커 스페이스, 자연과 건강, 호기심 자극 등의 키워드를 통해 생태적 개념을 적용한 매력적인 공간 구축 전략을 제시하였다. 장 찬(2020)은 대학교의 대학기록관 설치에 관한 논의부터 대학기록물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대학 라키비움 구축방안에 대하여 주목하면서, 대학 라키비움이 대학교에서 발생하는 기록물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독자적인 대학기관설립이 아닌 대학박물관·대학도서관과의 통합을 통한 운영을 제안하였다.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라키비움의 필요성과 기능계획을 언급하여 라키비움 도입에 대한 방안과 구축을 제시한 연구가 있었으며 국내 현실에 맞는 라키비움 구축을 위해 도서관을 중심으로 공간을 확보하고 기록관의 업무기능을 중심으로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의 기능 및 협력 등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지방대학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대학도서관을 이용한다는 조건으로 실질적인 라키비움 구축 시 필요성, 공간 특성을 고려한 공간계획, 이용자의 공간 이용 기대효과 등을 알아봄으로써 추후 라키비움 구축에 대한 공간평가의 기초자료를 위함이다.

[표 2-22] 라키비움 선행연구

제 목	저자/년도	대상 공간	내 용	연구 방법
국회 라키비움의 전망에 관한 연구 : 기억기관 협력정책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김유승/ 2012	국회 도서관, 기록보존소, 헌정기념관	국회 도서관, 기록보존소, 헌정기념관의 통합적 발전 전략으로서 국회 라키비움 수립에 대한 필요충분조건 분석, 전망 모색	문헌 연구, 사례 유형화, 통합을 위한 대안 모색, 전략제시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기능융합에 의거한 라키비움 공간기획연구	최영실/ 2012	국내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개념과 유형 분석, 공간기획 방법의 적용방안제시, 공간기능 요건의 비교분석, 라키비움 공간기획의 개발 절차 제시	문헌 연구, 공간기능의 요건분석, 공간기획의 개발 절차 제시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공간협력방안	김민경/ 2014	국내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 세 기관의 업무기능, 공간기능의 특성과 전문성 분석, 협력 모형제시	문헌 조사, 전문가 인터뷰, 모형제시
라키비움 공간기획을 위한 리모델링 대상 기관의 현황분석연구	최영실/ 2013	국내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기존 라키비움의 공간기획 연구 절차 정밀화 관련 법률과 지침을 활용, 현실적인 라키비움 공간기획의 실행방안 제안	문헌 연구, 조사분석

[표 2-22] (계속)

제 목	저자/년도	대상 공간	내 용	연구 방법
소규모대학교에서의 라키비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	배성중 외/ 2014	국내 소규모 대학	소규모대학교에서 대학도서관, 대학기록관, 대학박물관의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라키비움 제안	문헌 연구, 현황분석, 공간적용 방안 제언
전문도서관 라키비움 구축에 관한 연구 : 원자력 라키비움을 중심으로	오정훈 외/ 2014	원자력 전문 도서관	한국원자력 라키비움을 대상으로 구축 전반에 관한 사항 심층분석,	문헌 연구, 분석 라키비움 구축모델 제안
라키비움 구현을 위한 메타데이터 설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정지훈/ 2014	국립 중앙 도서관, 박물관, 국가 기록원	디지털 자료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공통의 표준으로서 라키비움 메타데이터 제안	문헌 조사, 메타데이터 요소 비교분석
도서관에서의 라키비움 실현을 위한 제도 연구	국립 중앙 도서관/ 2015	국립 중앙 도서관	도서관 관련 법·제도 조사, 라키비움 구현을 위한 법제도 분석	사례조사, 법제도 분석 구현을 위한 제안
중규모 대학교 도서관의 라키비움 구축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장미경/ 2016	중규모 대학교 도서관	대학교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 각각의 기관에 따른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라키비움 개념 도입의 타당성 및 필요성 제시	자료수집 및 현황분석 구축모형 제시
국가산업단지의 문화적 활용에 관한 연구 : 라키비움을 중심으로	윤선영/ 2016	국가산업 단지	국가산업단지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인식하고 현재 관점에서 문화적 활용방안 모색, 라키비움 적용	산업유산과 라키비움 문헌 조사 활용방안 제언
공공도서관 사서의 라키비움에 대한 인식 연구	김미연/ 2016	인천 광역시 공공 도서관	라키비움 인식 및 구축의 필요성, 구축 방법, 선결 요건, 기대효과 등을 조사·분석 및 설문조사	문헌 연구, 사례조사, 분석, 시사점 제언
고은 라키비움 구성 연구	오춘옥/ 2016	고은 문학관	고은 시인의 작품을 기념하고 보존, 향유하기 위한 라키비움 공간계획, 활용방안 제시로 이용자의 문학적 편의 증진	문헌 연구, 공간계획안, 활용방안 제시
국채보상운동 아카이브의 라키비움 구축방안	한동우/ 2017	국채보상 운동 기념관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 및 활용되도록 해결방안 제시	문헌 연구, 사례분석, 구축안 제시
라키비움 개념에 의한 문학관의 프로그램 특성과 공간디자인	김지수/ 2018	국내·외 문학관	한국 근대문학 라키비움 프로젝트 진행, 라키비움 개념에 의한 문학관의 구체적인 디자인 방법 제시	사례분석, 디자인 프로세스구성, 디자인 방법제시

(계속)

[표 2-22] (계속)

제 목	저자/년도	대상 공간	내 용	연구 방법
라키비움 관점에서 문화유산기관의 특성을 살린 통합 보존방안에 관한 연구	최연경/ 2018	문화유산 기관	도서관, 자료실, 박물관의 전통보존 방법 연구, 라키비움에 대한 보존 프로세스 제안, 관리와 협업을 위한 메타데이터 기반 프레임 워크 제안	문헌 연구, 보존 프로세스 제안
복합문화시설로서 도서관의 라키비움 도입전략 연구	곽승진 외/ 2018	국내 라키비움	복합문화시설로서 도서관의 라키비움 도입 전략 제시	문헌 연구, 사례분석, 기획안도출
대학 라키비움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정찬/ 2020	국내 A 대학 도서관	사례조사와 분석 후 지방대학 라키비움 구축방안 제안	문헌 연구, 사례조사 현장답사

2.3.2 연구의 차별성

위에서 고찰한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차별성은 대학도서관에 라키비움을 도입하기 위하여 대학도서관과 라키비움에 관한 개념을 고찰하고 선행연구를 면밀히 분석하여 라키비움이 가지는 기능적 요소와 공간적 요소를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라키비움 도입을 위한 공간 특성을 도출한다.

도출된 공간 특성의 항목들과 세부지표로 중요도 조사와 검증을 통하여 공간평가의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실증연구를 진행하였고 최종 공간평가모형을 개발한 점에서 차별성이 구분된다. 이를 통해 대학도서관의 라키비움 도입을 위한 공간의 활성화 및 개선, 공간계획의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판단된다.

우선 라키비움 도입을 위한 공간평가지표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의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기능성, 적응성, 접근성, 다양성, 상호작용성, 쾌적성, 유연성의 종합적 세부지표를 도출하였으며 1차 전문가 설문조사와 FGI를 통한 심층 면접, AHP 중요도 조사를 통한 공간평가의 상대적 중요성을 분석하여 공간 특성 세부지표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공간평가지표의 가중치와 평가함수를 포함한 평가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평가모형을 분석할 경우 평균점수로는 각 세부지표의 선호 응답을 알 수 있고 배점표로는 평가자별로 공간평가에 대한 수치화를 알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가중치 종합 표를 바탕으로 실제 대학도서관의 라키비움 도입 시 공간평가 방법으로써 평가체계의 상대적 중요성과 사용자의 영향구조나 만족도 등을 종합하여 라키비움의 활성화 및 공간개선, 공간계획의 기초를 제시하는데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제3장

라키비움의 도입

3.1 대학도서관의 라키비움 도입 필요성

3.2 대학 라키비움의 기능적 요소

3.2 대학 라키비움의 공간적 요소

3장 라키비움의 도입

3.1 대학도서관의 라키비움 도입 필요성

[고등교육법] 제 28조에 의한 대학의 목적을 살펴보면 대학은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 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⁸⁷⁾고 명시하고 있듯이 대학은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며 그 인재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지역사회에 있어서 오랫동안 지역의 중심 교육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의 직·간접적인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그동안 대학 캠퍼스는 도시와 지역사회에 대해 대학 자체가 가지는 고용 창출의 효과와 구성원들에 의한 경제적인 파급효과, 인구 유입의 효과,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 주변 지역과 지역사회 환경의 개선 효과 등 다양한 형태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었으며 지역사회와 지속해서 공존, 공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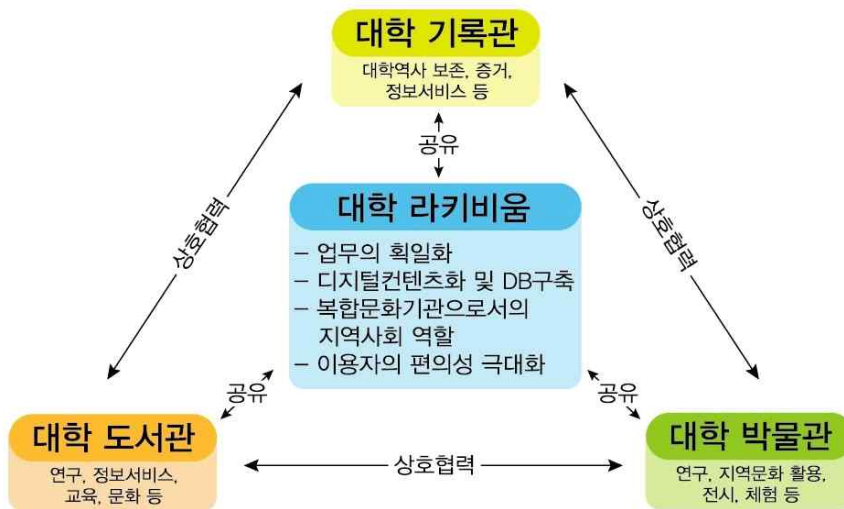
라키비움을 대학과 접목할 경우 대학교 내 자료유산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아카이브 기능, 유물과 유산을 전시하면서도 후대에 전수하기 위해 보존하는 박물관 기능, 도서관으로서의 도서관 기능, 더불어 아카데미 기능이 어울려진 하나의 복합문화공간이 설립되는 것이다.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복합화 현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 유형의 기관 사이에는 차이만큼이나 중요한 근본적인 동질성을 발견하게 된다. 도서관과 기록관 모두 인간의 지식과 활동에 대한 문헌을 수집·정리하여 활용하고 후세를 위해 보존하는 사회적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문헌’이란 정보를 기록하여 전달해 주는 모든 유형의 매체를 통칭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도서관과

87) 교육부(고등교육정책과). “고등교육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3.23., www.law.go.kr

기록관이 소위 ‘문화유산기관(Cultural heritage institutions)’ 또는 ‘기억기관(Memory institutions)’으로 범주화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대화 이후 도서관과 기록관은 모두 엄청난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고 특히 인터넷 환경은 두 기억기관의 협력에 필요충분조건을 제공해주었다. 이에 따라 21세기의 도서관과 기록관들은 다양한 형태의 상호협력을 실험하고 실천하는 경향을 보인다.⁸⁸⁾

이러한 도서관과 기록관 기능의 복합화 현상은 앞서 언급한 근대 이전 도서관과 기록관의 태생적 중첩 기능으로의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박물관 역시 문화유산기관 혹은 기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기능을 이행하는 도서관, 기록관과 함께 실제로 많은 협력 프로젝트에서 파트너로 동참하고 있다. 이에 단일한 목적으로 기능이 한정되었던 기록관, 박물관, 도서관에 대한 현대 이용자들의 요구는 더 다양해졌고 21세기 이후에는 지역문화 공동체 혹은 테마형 정보관 등 다양한 형태의 융합형 ‘복합문화시설’이 등장하게 되었다.⁸⁹⁾



[그림 3-1] 대학 라키비움 모형

88) 서혜란. “기록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도서관과 기록관의 협력”. 한국비블리아학회, Vol.16,no2, 2005, pp.25-41.

89) 최영실(2012). op.cit., p.41.

대학 라키비움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성을 살펴보면 첫째, 각 기관의 기능 중 공통 업무의 협업 또는 통합이 나타난다.⁹⁰⁾ 각 기관의 업무의 형태가 수집, 관리, 활용 등으로 유사하기 때문인데 이는 각 기관들이 수집하는 자료의 형태는 다르지만, 기관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목적이 비슷한 점에서 기인한다. 기관의 목적에 맞는 자료의 수집, 수집된 자료의 보존, 관리된 자료를 통한 연구제공, 전시, 세미나 제공 등 각 기관의 자료의 형태를 제외한다면 각 기관의 업무는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특징에 따라 각 기관들의 라키비움 구축을 통한 통합은 업무와 조직의 일원화를 가능하게 하여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막고 인력과 공간 활용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둘째, 협업을 통한 경제적 효율 및 전문성이 강화된다. 지방대학의 경우 학교의 규모 및 재학생 인원에 따라 예산의 규모가 결정된다.⁹¹⁾ 이에 학교마다 박물관, 기록관 설치 여부와도 크게 관련이 있다. 다음 표를 살펴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권, 수도권, 지방권 지역대학의 총 재학생 인원을 정리한 표이다. 대학알리미 홈페이지 공시정보의 재학생 현황을 참고로 도출하였고 선정의 기준은 사립이면서 학생 수 10,000명 이상인 4년제 대학 중 서울권, 수도권, 지방권 대학을 선정하여 작성하였다.

[표 3-1] 서울권, 수도권, 지방권 4년제 대학 재학생 현황 <단위 : 명>

구분	서울권 대학		수도권대학		지방권(전라)대학		지방권(경상)대학	
	A	B	C	D	E	F	G	H
2018년	26,063	21,080	18,517	10,690	15,250	11,294	12,448	15,623
2019년	26,430	21,165	18,550	10,724	15,011	10,874	12,255	15,180
2020년	25,875	20,822	18,678	10,755	15,007	11,126	12,454	14,825

<표3-1>을 살펴보면 가장 최근인 2020년 통계를 봐도 서울권 > 수도권 > 지방권 순서로 나열이 된다. 이는 대학재정과도 매우 큰 관련이 있다. 대학 입학자원의

90) 김미연(2016). op.cit., p.14.

91) 장 찬. 대학 라키비움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 강원지역 A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2020. 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pp.13-15.

감소는 대학 운영재정의 대부분을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실적인 가장 큰 위기이다. 즉 등록금을 납부하는 주체인 대학생들이 대학교에 지불하는 전체비용이 점차 작아진다면 대학의 운영은 어려워지며, 통계상에 나온 것처럼 지방대학의 경우 학교 운영에 있어서 매우 불안정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 현실을 맞이한다.

[표 3-2] 각 대학 등록금 수입 (단위 : 백만) 출처:국가도서관 통계:대학도서관통계

구분	지방 대학 등록금 수입							
	A 대학	B 대학	C 대학	D 대학	E 대학	F 대학	G 대학	H 대학
2020	292,980	353,317	167,956	93,361	124,132	80,081	83,400	104,303

이처럼 대학지원자의 수가 줄어드는 환경에서 각각의 기관을 설치, 인력배치 등 운영을 한다면 지출 비용의 증가로 인하여 학생을 위한 대학의 질적 운영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위 세 기관을 라키비움으로 통합하여 운영한다면 각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그 외 기본행정업무는 통합하여 기관 운영을 실시한다면 인건비 절감과 시설 운영에 대한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라키비움 구축을 통해 공통된 업무 및 서비스는 분담하고 고유의 업무는 세분화하여 수행함으로써 효율적인 활용 및 인력의 배치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이용자에게 양질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각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적 부분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⁹²⁾ 각 기관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소장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보존공간,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공간, 이용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공간을 공유함으로써 공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사서, 기록관리 전문 요원, 큐레이터의 중첩된 보존업무, 관리업무, 서비스 업무를 통합하여 업무의 양을 줄일 수 있다.

넷째, 문화유산기관 이용자 요구 측면이다. 이용자들은 원하는 정보를 유형과 관

92) 배성중 외. "소규모대학교에서의 라키비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 vol.14,no.4, 2014, p.68.

계없이 한꺼번에 얻을 수 있다. 즉 도서, 기록, 박물관 등의 유형과 관계없이 각 주제 별로 통합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하나의 공간에서 복합적으로 열람, 검색, 전시, 관람, 문화체험 등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문화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네트워크의 통합을 통해 대학박물관, 대학기록관, 대학도서관의 정보를 통합함으로써 정보제공의 영역을 확장하고, 이용자의 편의성과 양질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험 확대와 편의를 증진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이용자의 만족도와 이용률의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다섯째, 대학 라키비움은 재학생 및 지역주민들의 생활 활력소가 될 수 있다. 라키비움은 여가활동 및 취미활동의 장소이자 휴식을 위한 장소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문화 활동의 기회가 많아짐으로써 재학생 및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재교육할 수 있는 공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섯째, 학교 홍보 효과로써 이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대학의 브랜드와 가치, 그리고 학교의 질적 수준과 연관이 있기에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기에 대학이 내세울 수 있는 가치와 특징, 개성, 교육성 등을 핵심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대학의 경우 지방에 대한 기피로 인하여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에 매우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에 복합문화시설이자 지역대표 문화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라키비움으로 홍보를 한다면 신입생 유치 및 대학 이미지 제고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⁹³⁾ 또한 홍보를 통해 재정적인 부분을 개선할 수도 있다. 대학 라키비움 홍보를 통하여 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기부금 등을 모금한다면 대학 라키비움 운영에 있어서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진 라키비움은 정보화 사회로 발전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문화유산과 이를 처리할 공간의 부족과 예산 문제, 그리고 높아진 이용자들의 문화 인식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문화유산 기관들의 협력과 통합의 필요성을 말해 주고 있다. 또한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법률에서 협력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도서관법]은 제7조에서 박물관·미술관·문화원·문화의 집 등 각종

93) 김익수. 특성화된 대학원대학교의 효과적인 홍보 방안에 관한 연구. 2011. 목원대학교 언론광고홍보대학원, 석사학위. p.10

문화시설과 교육 시설, 행정기관,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⁹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도 제31조에서 다른 문화기관과의 협력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⁹⁵⁾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도 제9조에서 기록물 관리에 관한 교류·협력을 규정하므로 다른 문화유산기관과의 협력에 대한 가능성⁹⁶⁾을 열어두고 있는 등 문화유산기관들의 협력 및 통합에 대한 법적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과 박물관의 빈약한 콘텐츠 및 그에 따른 부족한 서비스로 인한 이용자들의 만족도 및 이용률 감소 현상과 예산 및 인력 등의 문제로 독립된 시설로 마련되기 어려운 기록관의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통합된 복합문화정보기관인 라키비움 구축은 필요한 것이다.

현재 국내 대학의 기록관은 사료관이나 역사관, 기록보존소 등 명칭이 다양하지만 실상 대학과 학생들의 활용도가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반면 대학도서관은 학내 주요 정보시설이자 학습과 커뮤니티 공간으로 복합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대학박물관은 대학을 넘어 지역사회로까지 확장하여 문화적 기능을 지향하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활용도가 저조한 기록관과 본연의 기능을 확장하고자 하는 도서관과 박물관이 통합된다면 대학을 넘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행정기록과 문화유산, 문헌을 한꺼번에 제공할 수 있다.⁹⁷⁾

[표 3-3] 대학도서관의 라키비움도입 필요성

순번	내용
1	각 기관의 기능 중 공통 업무의 협업 또는 통합
2	협업을 통한 경제적 효율 및 전문성 강화
3	각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적 부분을 공유
4	문화유산기관 이용자 요구
5	재학생 및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
6	학교 홍보 효과와 재정 문제 개선

94) “도서관법”. op.cit., 제7조2항.

95)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3.23., www.law.go.kr - 33조2항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도서관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원·도서관·문화예술회관 등 다른 문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한다.

96) 행정안전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3.23., www.law.go.kr - 제9조 제2항 기록물에 관한 교류·협력.

97) 최영실(2012). op.cit., p.24.

3.2 대학 라키비움의 기능적 요소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은 모두 소속 사회와 이용자를 위하여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정보물을 선별적으로 수집하고 체계적인 관리 절차와 장기 보존을 통하여 일반 대중에게 열람, 전시, 교육 등을 제공함으로써 후대에 문화유산을 계승하는 사회적 기구의 역할을 이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들 기관의 세부적인 항목을 살펴보면 공통적인 업무 요소가 있으나 업무 절차와 행태, 대상 정보자원의 종류 및 처리 방법에 있어서 다소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본 소절에서는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기능을 비교하고 각 기관의 고유 핵심 업무와 공통 업무를 분석하여 라키비움의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도서관의 업무를 살펴보면 업무 영역, 경영지원 영역, 사회문화적 영역으로 구분된다. 업무 영역에서는 도서 자료의 수집과 정리·활용을 도모하고, 경영지원 영역에서는 도서관의 업무를 지원하고 평가하며 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사회문화적 영역에서는 도서 자료와 정보에 대한 온라인 검색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 기능과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한다. 그중에서도 도서관의 고유 업무 영역은 도서 자료를 수집하여 이용자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화하고 활용을 지원한다.

기록관의 업무는 기록물 관리 영역과 서비스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기록물 관리영역에서는 기록을 조사, 수집, 등록, 보존 및 폐기, 평가, 정보 서비스의 기능을 포괄한다. 그리고 서비스 영역에서는 이용자의 문화적 정보요구와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를 제공한다. 이 중에서 기록관 고유의 기본 기능은 라키비움의 업무 기능에 반영해야 할 업무 중 하나이다.

박물관의 업무는 크게 학예 연구 영역으로 수집, 보존, 조사·연구 분야로 나뉘고, 문화·교육 서비스 영역으로 전시, 교육 분야로 나뉘며, 경영 영역으로는 행정 및 운영·서비스 지원 분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가운데 학예 연구영역과 전시 및 교육 등 이용자 대상의 문화·교육 서비스 영역은 박물관의 핵심 업무이다.⁹⁸⁾

98) 최영실, 이해영.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기능을 융합한 라키비움의 기능계획". 한국비블리아학회지, vol.23,no.4, 2012, pp.462-465.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각각의 고유업무 기능 이외에 이 정보기관들이 지향하고 있는 복합문화정보의 다양한 확장 서비스를 비교해 보면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점을 알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세 기관 모두 지역 문화의 정체성과 문화적 거점으로서의 시설을 지향한다. 둘째, 다양한 이용자를 세분화하여 변별성 있는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이용자들의 높아진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넷째, 기관의 홍보와 이용자의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이용 확장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이와 같은 다양한 확장 서비스 기능은 각 기관이 제공하는 전통적 업무기능과 같이 대학 라키비움 구축 시 고려해야 할 기능 및 업무이다.

[표 3-4]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및 라키비움 기능 분석⁹⁹⁾

구분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자료	도서, 연속간행물, 전자매체	기록물	박물(문화 관련)
기능	· 도서의 수집, 정리, 열람, 검색, 봉사 기능 · 도서의 열람·참고, 보존 · 지식전달·교육	· 기록물의 보존, 관리, 평가, 폐기 · 기록정보센터	· 문화유산의 연구, 수집, 분류, 정리, 등록, 보존, 전시, 교육 등 기능 · 전시, 문화교육 등
수집방법	구매, 기증, 교환 등	이관, 기증, 수집 등	구매, 기증
정리방법	도서 분류체계	기록관리 기준표	등록 대장 /야장(野帳)
운영형태	개가제	폐가제	혼용
열람형태	온·오프라인 열람		전시(온·오프라인)
서비스	정보서비스	기록 정보서비스	전시 관련 서비스
	· 전시, 출판·견학·이용 교육·강좌, 세미나·영상 상영 등		
공간요소	· 열람·보존 : 일반열람실, 디지털 열람실, 보존서고 · 참조·정보 : 참고정보 서비스 데스크, 대출복사 서비스 데스크 · 교육/지식전달 : 멀티미디어실, 교육실(강의실), 세미나실	· 기록관리 및 보존 : 입수·등록·정리실, 기술·평가실, 소독·탈산실, 복원실, 스캐닝실, 인코딩실, 마이크로필름제작실, 수장고(종이, 디지털류), 비밀 수장고	· 보존 : 수장고 · 전시 :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전시준비실 · 교육 : 교육실(강의실), 세미나실



99) Yoo Donghwan & Choi Aream. "Larchiveum Based Digital Heritage Museum".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Letters, vol.52, 2014, pp.102-107과 배성중 외(2014). op.cit., p.69 재구성.

[표3-4] (계속)

라키비움 기능	세부기능	공간 형태
통합적 정보서비스	연구, 문서	기록관
	브라우저, 검색	도서관/유비쿼터스
	공개행사, 전시	전시, 박물관
지적콘텐츠 촉진	공공 교육, 전문교육	교육적 공간
	공동연구 및 조사	연구 실험실
	공동연구 및 조사	스튜디오/ 유비쿼터스
	UCC, Youtube	
문화 활용의 확장	지역 정보 보급의 문화재 촉매	커뮤니티 공간
	사회문화적 즐거움	극장, 공연무대, 갤러리
	이용자 편의 시설	식당, 편의점
	PR 활동 지원	마케팅 관련 공간
정보의 효율적 관리 와 보존	집약적 정보관리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매체별 정보 보존	

앞선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의 기능 분석과 각 기관의 문화 확장 서비스, 각 기관에서 분산적으로 제공하던 이용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이용자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보다 다양한 문화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측면에서 볼 때 라키비움에 요구되는 핵심 기능을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적 정보 서비스 기능이다. 연구, 브라우저, 검색, 전시 등을 제공하는 기능으로 연구는 기록관의 형태로, 브라우저와 검색은 도서관의 형태로, 전시는 박물관의 형태를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둘째, 지적콘텐츠 촉진 기능이다. 공공 및 전문교육, 공동 연구 및 조사, 콘텐츠 개발 및 제공, UCC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으로 각 기관이 가진 교육적 공간, 연구 실험실 등을 하나의 집약된 공간의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 셋째, 문화 활용의 확장 기능이다. 커뮤니티 공간의 형태로서 지역 정보 보급의 문화적 촉매 기능, 극장, 공연, 갤러리 등의 공간 형태로 사회 문화적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식당, 편의점 등 각종 이용자 편의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보존 기능이다. 각 기관이 가진 핵심 업무 및 기능을 구현하여 집약적으로 정보를 관리하고 매체별로 정보를 보존하도록 하는 기능이다.¹⁰⁰⁾

3.3 대학 라키비움의 공간적 요소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제시한 한국도서관 기준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능별로 분류하면 보존공간, 이용공간, 업무공간, 지원공간과 같으며 도표와 하면 다음 <표 3-5>와 같다. 고흥권(2013)은 공공도서관 퍼실리티 프로그램을 자료열람 부문, 문화교육 부문, 업무관리 부문, 공용부문, 기타부문으로 분류하였다.¹⁰¹⁾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시한 공공도서관의 요구공간 및 시설은 대출 및 반납 공간, 열람 및 학습·연구에 필요한 시설, 참고·정보서비스를 위한 시설, 자료보관 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한 시설, 전시 및 집회 시설, 이용자 편의 시설, 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시설, 직원의 업무 및 휴게공간 등 9개로 분류하였다.¹⁰²⁾

[표 3-5] 도서관 요구시설¹⁰³⁾

공간	시설	세부시설
보존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수용 및 보존에 필요한 · 향토자료나 지역정보 등의 보존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가제 자료실, 폐가제 서고 · 지역대표도서관의 경우 당해지역을 위한 · 공동보존서고로서 역할을 위한 시설
이용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서비스에 필요한 시설 · 전시 및 집회를 위한 시설 · 시청각자료실 · 대출 및 반납에 필요한 시설 · 열람 학습 연구에 필요한 시설 · 참고 정보서비스에 필요한 참고열람실 · 멀티미디어 자료의 운영에 필요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용 장비를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위한 공간, 전용주차장, 장애인용 화장실 · 개가제 종합자료실(또는 코너), 어린이자료실(또는 코너), 청소년자료실(또는 코너) · 멀티미디어 자료실 또는 디지털자료실(또는 코너)

(계속)

100) 한동우(2017). op.cit., pp.30-31.

101) 고흥권. 공공도서관 스페이스프로그램의 모형 제안연구. 2013. 홍익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p.72.

102)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매뉴얼”. 2012, pp.12-14.

103) 한국도서관기준2013(2013). op.cit., pp.43-45.

[표 3-5] (계속)

공간	시설	세부시설
업무 공간	· 직원을 위한 시설	· 관장실, 사무실, 직원용 회의실, 휴게실, 물품보관소, 기타 부대시설
지원 공간	· 도서관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타시설 · 아동 문고용 자료 운반과 서비스 준비에 필요한 작업실과 차고	· 엘리베이터, 공조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장소, 청소기기의 보관장소

전홍필(2009)에 따르면 기록관 공간에 대해 아카이브 기능구성과 소요 공간의 분류체계에 따라 크게 기록물 보존기능, 시설유지관리기능, 기록물 활용기능, 공용기능의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보존처리, 서고, 사무, 시설관리, 설비, 열람, 전시, 교육, 이용자 서비스, 일반 공용의 10개 기능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다음 <표 3-6>과 같다.

[표 3-6] 기록관 요구시설

기능	영역범주	세부 소요실
기록물 보존기능	보존처리 영역	인수수집영역 (하역장, 인수등록실, 정리실, 임시 서가)
		평가기술영역 (평가실, 기술실)
		보존업무영역 (마이크로필름제작실, 스캐닝 실, 인코딩 실, 간행물처리실, 전자매체처리실, 행정박물관처리실, 복원처리실, 탈산처리실, 소독실, 편철제본실)
	서고 영역	일반문서고 (문서류, 일반문서고 등)
		시청각 기록물서고 (컬러필름서고, 흑백필름서고, 자기 매체서고)
		행정박물관서고 전자기록물서고
시설유지 관리기능	사무영역	사무실, 관장실, 회의실, 전산실, 직원휴게실 등
	시설관리영역	방재센터, 당직실, 경비실 등
	서비스영역	기계실, 전기실, 중앙감시실, 공조실, 통신실 등
기록물 활용기능	열람영역	열람사무실, 열람실 등
	전시영역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등
	교육영역	강의실, 세미나실, 강당 등
공용기능	이용자 서비스영역	로비, 안내, 휴게 코너, 카페테리아, 기프트 샵 등
	일반 공용	각층 홀, 복도, 화장실, 계단실, 엘리베이터 등

다음 <표 3-7>과 같이 최영실(2012)은 박물관 공간기능을 전시·열람, 수집·보존, 교육, 사무, 시설관리, 이용확장 서비스, 공용 등 7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세분화하였다.

[표 3-7] 박물관 요구시설

기능영역	시설	세부 소요실
전시·열람 영역	전시시설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등
	전시지원시설	전시준비실, 전시업무부속실 등
	열람 시설	도서관, 자료열람실, 부속서고 등
수집·보존 영역	반출입시설	하역장, 화물 엘리베이터 등
	보존시설	폐가식 보존 수장고, 일부 개가식 수장고, 전시수장고, 전실, 전시 비품 창고 등
	보존처리시설	매체별 작업실, X-Ray 실, 훈연실 등
	전시수납	창고, 유물카드정리실 등
	옥외작업	수세장, 건조장, 정리장 등
	수장 부대시설	세척실, 유물정리실, 유물포장실 등
시설관리 영역	보안시설	중앙감시실, 수위실, 경비초소 등
	유지시설	중앙감시실, 수위실, 경비초소 등
	시설관리	중앙제어실, 숙직실 등
	기계시설	기계설비사무실, 보일러실, 공조실 등
	전기시설	발·축전기실, 변전실 등
교육영역	집회시설	강당, 시청각실, 영사실 등
	교육시설	강의실, 실기실, 세미나실 등
	어린이 교육	어린이체험교육관 등
사무·연구 영역	관장시설	관장실 등
	사무시설	사무실, 자원봉사자실, 회의실 등
	연구시설	연구실, 실험실, 학예연구실 등
이용확장 서비스 영역	문화시설	다목적 공연장 등
	안내·홍보시설	매표소, 안내소 등
	식음료시설	식당 등
	수익시설	문화상품점 등
	이용자별 편의시설	수유실, 장애인시설, 어린이시설 등
공용영역	공용시설	로비, 홀, 화장실, 물품보관소 등

세 기관의 공간기능을 분석하면 공통적인 기능 공간으로는 시설유지공간 및 공공의 이용자 공간이다. 소장품 보존기능과 소장품 활용기능은 공통적이지만 세부적인 내용이나 성격은 상이하다. 도서관은 보존보다는 이용 및 서비스공간이 강하고, 기록관은 보존기능이 강하며, 박물관은 연구, 전시 및 교육 기능이 강하다. 라키비

움의 공간기능을 종합하면 시설유지 관리공간, 공용공간, 수집·보존공간, 이용·활용 공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세 기관에서 시설유지 관리공간 및 공용공간은 일반적인 문화시설에 필요한 공간으로 기관 간의 큰 차이는 없었다. 수집·보존공간에서는 공통적으로 수장공간 및 서고 공간이 요구된다. 그러나 도서관·기록관에서는 서고 공간이 보다 세분화되며, 기록관에서는 평가기술실이 박물관에서는 연구실 등 수집시설, 보존처리시설, 보존업무시설 등에서의 요구가 좀 더 세분화된다. 도서관의 주요 기능인 이용·활용공간에서는 대출·열람·검색 서비스공간이 강조되어 세분화 된 열람 공간을 가진다. 또한 유아·어린이·청소년·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통해 이용자를 세분화하였다. 반면 기록관의 이용자 서비스는 복사 및 열람이 주를 이룬다. 박물관의 이용은 전시와 교육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별도의 전시지원공간과 교육실이 요구된다. 공통적인 수장공간에도 일부 개방형 수장고를 만들어 전시공간으로 활용되어 관람객들에게 소장품을 보여주는 활용방식이 증가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도표화하면 <표 3-8>과 같다.

[표 3-8]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공간 비교 및 라키비움 필수공간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시설유지 관리공간	· 보안시설, 유지시설, 시설관리, 기계시설, 전기시설 · 사무공간 (관장실, 사무실, 직원휴게실, 회의실 등)		
공용공간	· 로비, 안내, 휴게공간, 화장실 등 · 식음 공간, 상점 등 · 홀, 복도, 계단실, 엘리베이터 등 · 물품보관소, 수유실, 어린이이용시설, 장애인시설 등		
수집·보존 공간	수장공간, 서고 공간		
	일반문서고, 시청각 기록물서고, 전자기록물서고 등 세분화		
		수집시설, 보존처리시설 및 보존업무시설 평가기술실	연구실
이용·활용 공간	전시공간, 열람공간, 교육공간, 집회공간		
	검색, 대출, 열람 서비스가 주기능이며 이용자별 세분화된 열람실	열람 및 복사 정도의 이용자 서비스가 주를 이룸	상설·기획·기증 특별전시실 등 세분화되며 별도 교육공간 및 전시지원공간



(계속)

[표 3-8] (계속)

라키비움 필수공간	
시설유지·관리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시설, 유지시설, 시설관리, 기계시설, 전기시설 · 사무공간
공용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비, 안내, 휴게공간, 화장실 등 식음 공간, 상점 등 홀, 복도, 계단실, 엘리베이터 등 물품보관소, 수유실, 어린이, 장애인시설
수집·보존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장고 · 서고, 기록물서고 · 보존처리공간, 수집 및 평가공간 · 연구실
이용·활용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공간 · 교육공간 · 전시공간 · 집회공간 · 이용자 서비스공간(복사, 대출 등)

제4장

대학도서관의 라키비움 도입을 위한 평가

4.1 공간 특성 추출

4.2 평가항목 예비지표

4.3 평가 예비지표 검증

4.4 공간평가 항목에 대한 AHP 중요도 조사

4.5 소결

4장 대학도서관의 라키비움 도입을 위한 평가

4.1 공간 특성 추출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라키비움의 기능적 요소와 공간적 요소를 토대로 라키비움의 기능적 특성과 공간적 특성을 추출하는데 선행연구의 공간분석 고찰을 통해 특성들을 추출하였다. 라키비움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문헌정보학 분야와 기록학 분야 그리고 박물관학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주로 공간구성의 이용자 만족도 조사, 운영체계의 분석 연구, 기능융합에 따른 라키비움 공간기획연구, 공간협력 방안 등의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며 대학도서관에 라키비움을 도입하는 공간평가 분야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선행 연구를 토대로 라키비움의 공간 특성을 추출하고 대학도서관에 라키비움을 도입시키기 위한 본 연구는 라키비움 공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미래지향적 특성을 보인다는 점을 도출해낸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분석한 라키비움의 공간 특성을 조사한 결과 세부적인 특성 도출까지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았으나 연구자들의 개인적인 기준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고 있었으며, 그 내용적 의미는 공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이나 기록관·박물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라키비움 도입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여 끊임없는 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은 변화를 넘어서 라키비움 화로 진화해가는 대학도서관의 의미미함을 나타내며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서의 특성들을 유형화하기 위한 재분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특성들을 종합하여 라키비움에 도입할 수 있는 명확한 공간 유형을 구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라키비움 선행연구에서 추출한 특성을 종합하면 기능적 특성은 통합적 정보서비스(A), 지적 콘텐츠 촉진(B), 문화 활용의 확장(C),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보존(D) 이 4가지 특성으로 추출되었고 공간적 특성은 의미상으로 종합하여 빈도순으로 정리하면 7가지 특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분류된 특성은 기능적인(E), 적응이

용이한(F), 접근이 편한(G), 다양한(H), 상호작용적인(I), 환경적으로 적합한(K), 유연한(N) 이라 구분하였다.

[표 4-1] 선행연구의 라키비움 기능적, 공간적 특성

연구자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김유승 (2012)	●	●	●	●	-	●	●	●	●	-	-	-	-	●	-
최영실 (2012)	●	●	●	●	●	-	-	●	●	-	-	-	-	-	-
김민경 (2013)	-	●	-	●	●	-	●	-	-	-	●	-	-	-	-
배성중 외 (2014)	●	●	●	●	●	●	●	-	-	-	●	-	●	●	-
오정훈 외 (2014)	●	-	-	●	-	-	●	-	●	-	●	-	-	-	-
정지훈 (2014)	-	-	-	●	-	-	-	-	●	-	●	-	-	●	-
장미경 (2016)	-	-	●	●	-	-	-	●	●	-	●	-	-	-	-
윤선영 (2016)	●	-	-	●	-	●	●	●	●	-	-	-	-	-	-
김미연 (2016)	●	-	●	-	●	-	●	●	-	-	-	-	-	-	-
오춘옥 (2016)	-	●	-	●	-	-	●	-	●	-	●	-	-	-	-
한동우 (2017)	●	●	●	●	●	-	-	●	●	-	-	-	-	●	-
김지수 (2018)	-	●	-	●	-	-	●	-	●	-	-	-	-	-	-
최연경 (2018)	●	-	-	●	●	-	-	-	-	●	-	●	-	-	●
곽승진 (2018)	-	●	●	-	-	-	-	-	●	-	●	-	-	●	-
장 찬 (2020)	●	●	●	●	●	-	●	-	-	-	●	-	-	●	-
빈도수	9	9	8	13	7	3	9	6	10	1	8	1	1	6	1

A: 통합적 정보서비스, B: 지적 콘텐츠 촉진, C: 문화 활용의 확장, D: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보존, E: 기능적인, F: 적응이 용이한, G: 접근이 편한, H: 다양한, I: 상호작용적인, J: 유도하는, K: 환경적으로 적합, L: 안전한, M: 효율적인, N: 유연한, O: 놀라운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빈도순으로 정리된 7가지의 특성들을 의미상으로 재분류하는데 기능적인-기능성, 적응이 용이한-적응성, 접근이 편한-접근

성, 다양한-다양성, 상호작용적인-상호작용성, 환경적으로 적합-쾌적성, 유연한-유연성으로 명확히 하였다.

[표 4-2] 대학 라키비움의 공간 특성 도출

구분	내용
기능성	욕구충족이나 목표달성을 위한 것으로 존속하기 위한 공헌적 활동
적응성	공간의 장소성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차이 생성 적인 공간 시스템
접근성	공간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지점과 밀접한 상호 연계성 또는 상호 연관성이 생기는 것
다양성	공간과 연계된 다양한 주변 환경 특성을 수용할 수 있는 다원론적 가치
상호작용성	공간과 사용자, 공간과 공간, 공간과 요소들 간의 관계 맺음 활성화 구조
쾌적성	편리성과 효율성, 기분의 전환, 감성적 체험으로 육체적, 감정적 쾌적성을 높이는 것
유연성	공간 프로그램의 활용 측면에서 다양한 확장, 수용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

대학 라키비움의 공간 특성에 따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능성(Functionality)

기능(Function)이란 어떤 활동 분야에서 그 구성 부분이 하는 구실 또는 작용을 말한다. 즉, 인간의 목표 달성이나 욕구충족을 위해 유용한 활동이라 볼 수 있으며 어떤 시스템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어떠한 활동이 공헌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배성중 외(2012)는 기능별 공간설계는 각 기관이 가진 공간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지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라고 하였고 그러기 위해 라키비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와 그렇지 않다면 건물을 새로 건설해야 하는 문제와 공간 부족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김미연(2016)은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여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와 이용률이 저조한 장서를 서고 공간에 그대로 둘 것인지, 보존서고로 옮기고 라키비움 공간기능을 구현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언급하였다. 또 중복되는 공간이 있으면 그냥 두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통합하고 또 다른 기능을 충족시키는 공간을 만들 것인가도 연구과제라고 언급하였다. 최연경(2018)은 각각의 공간들은 서로 협업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동

선의 체계화와 최소한의 자원이나 인력으로 이러한 공간의 기능성을 실용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공간을 갖춰야 한다고 하였다.

(2) 적응성(Adaptability)

‘적응’은 인간이 주변 환경에 맞추어 변화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의 단어이며, 다양한 세부적인 의미를 지닌다. 물리 화학적 관점에서의 ‘적응(Adaptation)’이란, 생명체가 ‘자연 선택이라는 진화의 과정을 통하여 특정 환경에서 잘 살아가게 된 모습’을 의미하며, 이 정의함에서의 키워드는 생물학적, 진화적 의미에서의 적응, 다시 말해서 자연 선택의 필연적인 결과물을 이야기한다.¹⁰⁴⁾

생명과학 분야에서의 적응은 생명체의 대사기능 또는 몸의 형태 등이 주변 환경에 맞춰 변화하는 것으로, 장기간에 걸친 주변 환경의 영향에서 유전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경우(Adjustment)와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표현형의 변화로 머무르는 경우(Adaptation)로 구별한다.¹⁰⁵⁾ 철학 및 정신분석 관점에서의 적응은, 적절하고 유익하게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으로써 외부 세계의 현실에 적당히 맞추는 활동과 환경을 바꾸거나 더 적절하게 통제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한다. 한 개인의 내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외부 환경의 조건 값을 바꾸는 것을 ‘외부적 변형(Alloplastic)’이라고 부르고, 외부 환경에 맞추어 자신을 내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내부적 변형(Auto plastic)’이라고 하는데, 적응은 이러한 내부 변형과 외부 변형을 조절하며, 개인과 환경이 함께 어울리는 것(Adaptedness)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역량을 포괄하는 용어라고 판단된다. 정신 분석학적인 관점에서는 이러한 적응의 여부에 따라 자아 기능의 건강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적응적인 역량을 향상하는 것은 더욱더 안정된 인격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더욱 더 생산적인 삶을 살 수가 있고, 평안한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¹⁰⁶⁾

적응성 공간은 공간 디자인학에서의 문화 통합적인 관점을 불러일으켜 줄 수 있

104) 임민택. 적응성 공간의 변용과 재전유 체계 연구. 2021.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p.22.

105) 백수연. 대학 기숙사의 거주환경 요소가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6.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p.11.

106) Hartmann, H. "Ego Psychology and the Problem of Adaptation". New York: Int. Univ. Press, 1958.

는 공간의 가치를 말한다.

적응성 공간에서의 적응은 심리 철학, 정신 분석학의 관점에서처럼 합리적이고 유익하게 공간 사용 프로그램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하며, 적응성 공간은 어떠한 가변적 통일성을 내포하여 공간 사용성을 향상하거나, 더욱더 나은 장소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변화하는 차이 생성 적인 공간 시스템을 말한다.

새로운 기술 환경(SNS, 스마트 폰, 디지털, 융합, 유비쿼터스, 인공지능, 계면 활성화 기술 등)은 시공간의 놀라운 확장 시대로 진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으며,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관계 맺음을 갖게 해 주었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공간은 서로서로 생성을 야기시키며 내재성의 힘에 따라서 새로운 존재 양태의 관계를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성은 물리적 현실과 함께 공존하게 되는 가상현실, 더 나아가 증강 현실에서의 미술과 철학,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 기술은 생성의 화신으로써 잠재적 가능성의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될 것이 확실하다.¹⁰⁷⁾

현재까지의 공간은 변화하고 있었으며 변용되며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미래 공간의 가치는 현재의 연속성에서 비롯될 것이며 이러한 연속성은 종말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생성의 관계구조는 적응성 공간을 형성시키며 우리에게 새로운 공간 가치의 의미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적응성 공간은 주변 환경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 그 중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신기술기반의 변형의 역량일 것이다.¹⁰⁸⁾

적응성은 시간성이 내재한 특성으로 어떤 것의 형태, 성질 또는 외관의 변화가 사용성과 환경 조건 값에 따라서 나타나게 된다. 공간의 구조, 형태 또는 외관의 물리적 변화와 더불어 내외부의 재료(Skin) 등 화학적인 변화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공간 사용자의 행위 누적에 따라서 공간은 분화되고 변화한다. 적응형 특성은 이러한 시간성에 대한 변화에 지속 가능하도록 대처하고자 하는 비물리적 공간 요소라고 하겠다.

김유승(2012)은 국회도서관의 라키비움 화를 전망하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도서

107) 이광래, “해체주의와 그 이후”. 열린책들, 2007, p.306 재구성.

108) 임민택(2021). op.cit., p.45.

관이 아닌 라키비움 화 되었을 때 사용자들이 얼마나 공간을 잘 활용하면서 이 공간 안에서 적응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하였다. 기존의 도서관이나 기록관, 박물관의 각각 구별되는 고유 특성의 공간이 효율적인지, 이 기본 틀에서 벗어난 라키비움이 사용자에게 혼란을 주는지 잘 적응할 수 있는지에 적응성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배성중 외(2012)는 이에 더불어 이러한 라키비움이 적용되었을 때 사용자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적응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다. 라키비움 화 되었을 때 기존의 공간이 아닌 새로운 공간 사용 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는지 기존의 전통 공간의 방식이 더 안정적인지, 학습이나 독서, 관람 등을 수행할 때 좀 더 집중되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부분이다. 윤선영(2016)은 도서관을 라키비움 화하는 과정에서 미래의 라키비움 성장을 위해서 공간의 증축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증축한 후에 공간에 대한 적응성으로 볼 수 있다.

건축가 승효상은 ‘빈자의 미학’에서 공간은 공간디자이너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적응형의 주체는 공간에 적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의해서 변화되는 공간이어야 할 것이다. 그 때문에 적응형 특성은 하나의 공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갖게 되는 장소의 성격과 해당 공간에서 나타나는 시간과 사건의 흔적, 이를 통한 사용성의 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⁰⁹⁾

(3) 접근성(Accessibility)

접근성은 직접적으로 물리적 환경이나 수단을 이용하여 목적지에 도달하기 쉽고 가깝다는 접근성뿐만 아니라, 심리적 혹은 관념적으로 접근이 용이하다고 느끼는 성향까지 포함하는데, 이것은 공간적으로 사용되는 지점과 밀접한 상호 연계성 또는 상호 연관성이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¹¹⁰⁾

복합시설 내에서 접근성 향상을 고려한 공간계획은 더욱 중요하다. 시설의 복합성을 고려하여 사회구성원 중 잠재방문객들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공간적 구성

109) *ibid.*, p.125.

110) 정재희. 복합민자역사의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연구. 2011.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p.78.

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시설이 지역사회 전체 공간 시스템에서 어떠한 위치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는 물론, 특히 광범위한 각 영역 내에 복합화된 개별 공간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관계성은 매우 중요하다. 궁극적으로는 탈 장르적 공간들의 복합화에 있어서, 다양한 배경과 계층의 사회구성원들이 심리적으로 접근이 용이하다는 느낌을 받게 함으로써 자발적 접근을 유도하고 시설이용의 편의와 만족을 끌어낼 수 있는 ‘유입·매개 요소’의 공간적 적용이 요구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요 건물과 연계된 광장, 조각공원 등 야외 커뮤니티 공간의 경우 콘텐츠나 체험프로그램이나 공간계획에 있어서 공간의 유기적 구성 장치가 된다. 또한 잠재방문객들의 자연스러운 접근을 유도하고 실내외 확장된 체험을 위한 동선 연결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방문객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건물 내부 다양한 문화체험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형태로 조성되어야 한다.

접근성을 높이는 집객시설의 배치는 단지 전체의 활성화 및 전체 도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¹¹¹⁾ 쇼핑 시설 외에도 여가와 문화, 휴식공간의 배치를 통해 고객의 의도된 체류와 재방문을 높여 고객의 소비 만족과 재방문을 극대화한다.¹¹²⁾ 또한 공간구성에 있어서 접근성은 ‘실제로 사람이 가시성이 확보된 공간으로 갈 수 있는가, 혹은 얼마나 쉽게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변수이다.¹¹³⁾ 이러한 접근의 용이함은 물리적 거리보다는 방향 전환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각 예술 장르와 대중이 만나는 열린 공간, 자발적 참여로 이끄는 촉매의 장으로 효과적 방문객 유입과 차별화된 체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 접근의 용이함을 넘어 적극적으로 관람객을 끌어들여 시설 운영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만족도와 재방문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입·매개 요소를 계획해야한다.¹¹⁴⁾

111) 조영수. 도심 활성화를 위한 복합용도개발의 계획 방법에 관한 연구. 2005. 중앙대학교 건축대학원, 박사학위. p.69.

112) 심재관. 복합테마형 상업시설 집객요인이 이용만족도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2011. 광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p.58.

113) 이종렬. 접근성에 기반한 공간구조 분석 모델에 관한 연구. 2009.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공간구문론의 분석은 시각적 지각에 바탕을 두는 가시성을 기반으로 하여 ‘실제로 사람이 가시성이 확보된 공간으로 갈 수 있는가’, 혹은 ‘얼마나 쉽게 갈 수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접근성(permeability)에 따른 인지에 의하여 발생하는 실제적 접근성(accessibility)에 의하여 사람의 공간 이용행태(spatial behavior)를 정량화하는 분석방법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114) 김지예. 대학뮤지엄의 복합문화 커뮤니티공간 조성을 위한 지표개발. 2020,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오춘옥(2016)은 라키비움이 건립되는 장소는 접근성이 용이한 도심이거나 도시에서 멀지 않은 주변이 적절하다고 하였는데 오늘날 뚜렷하게 드러나는 도서관 공간계획의 특징은 생활 밀착형 지역 공공도서관이며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교육, 커뮤니티 등이 결합한 ‘복합화 방식’의 도서관이 다양하고 새로운 요구를 수용하여 조성하는 방식이며,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는 친근한 분위기의 열린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감지되면서 우리나라도 변모하는 추세로서, 예전의 일방적인 전달 목적이 아닌 소통을 전제로 지식이 구성되는 마당과 플랫폼 등의 교육 및 토론 공간으로써 열린 공간을 지향한다고 하였다. 또한 외부에서 내부건물로, 입구에서 건물의 모든 부분으로의 접근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간 플랜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열린 공간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접근성도 제시되고 있다. 장 찬(2020)은 서로 분리된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을 한곳에 모아 접근성을 높여서 원하는 정보를 빠른 시간 안에 취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자율성을 촉진하는 사회적인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광승진(2018)은 자유로운 접근성을 특징으로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4) 다양성(Diversity)

다양성은 다양한 특성이나 여러 모양을 가진 성질로 사전적 정의를 내릴 수 있다. 또 모양, 형태, 빛깔, 양식 등의 다양한 특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는 본 연구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다양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지만, 다양성에 관련한 변인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을 제시할 것인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권영걸에 의하면 다양성을 추상적으로 표현하여 공간에서의 다양성을 강조한다. 공간의 다양성이란 복잡한 행동 양식을 수용하되 균질적이지 않은 공간을 뜻하며 놀이와 학습, 일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단일화될 수 있는 공간 또는 현실과 이상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라 주장했다. 이는 공간 속 동선의 경제적인 계획이나 적정

규모, 조화원리를 기초한 배색, 효율적인 재료의 사용, 합리적인 배치와 구성이 계획된 공간 요소를 갖춘 공간이 아닌 다각적 해석이 가능한 공간을 의미한다. 이는 다소 주관적인 해석을 야기할 수 있지만, 접근 방식에 한해서는 본 논문에서 추구하는 대학도서관의 라키비움 화에 대한 내용에 부합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양성을 연령, 성별, 개인, 집단, 단계별 특성에 맞는 공간 규모와 종류, 시설의 다양한 특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한동우(2017)는 라키비움의 공간 내 지적 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공간이 다양해야 하고 공공 및 전문교육관, 연구하는 공간, 검색공간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광승진(2018)은 라키비움 구축의 전략으로 다양한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는데 다양한 만남은 정보와 정보의 만남, 정보와 이용자의 만남, 이용자와 이용자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다양한 정보와 생각을 교류하고 또 다른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정보광장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라키비움이 갖추고 있는 정보를 사용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사용자의 연령대를 고려한 정보제공의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윤선영(2016)은 이용공간에 다양성을 갖춰서 유아,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을 위한 자료실이나 별도공간을 갖춰야 한다고 하고 이용자를 세분화하는 특징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별도의 전시지원 공간과 개방형 수장고를 만들어 전시공간으로 활용되어 관람객에게 소장품을 보여주는 다양한 공간 활용 방식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김미연(2016)은 서비스 공간에서 이용자에게 충분한 자유와 선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5) 상호작용성(Interactiv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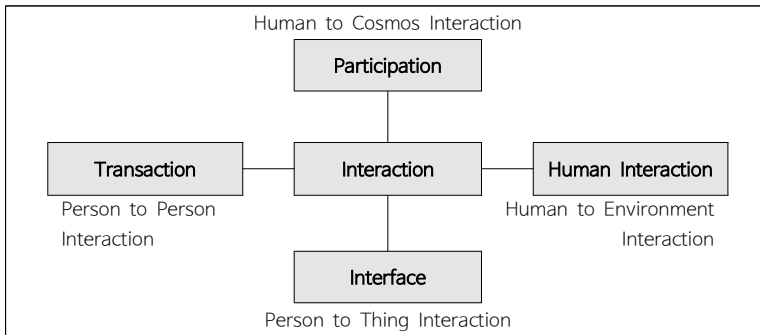
상호작용성 즉 인터랙션(Interaction)이란 단어는 두 개의 부분 ‘inter’와 행동을 의미하는 ‘action’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상호 간의 행동 혹은 ‘영향’을 의미한다.

상호작용성은 사이버공간에 들어와서 무엇인가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 것은 아니다. 현재 사는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환경, 주위에 수많은 상호작용성이 존재하고 있고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벌써 수많은 상호작용성을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 상호작용성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고 행하는 우리의 일상이

다.115)

이런 상호작용성의 또 다른 표현으로써 인터랙션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디자인에서 통용되는 의미로 다시 정리하면 인터랙션이란 Action과 Reaction의 조합으로서 인간이 어떤 작용을 취하면 사물(Object)로부터 그 반응을 받고 다시 그 반응에 대해 인간이 정보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랙션은 이렇게 인간과 사물 간에 행동과 반응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116)

인터랙션 디자인 개념을 확립한 사람 중에 하나로 꼽히는 미국 카네기멜런 대학의 리처드 뷰캐넌(Richard Buchanan)은 인터랙션 디자인을 4개의 유형 <그림 4-1>로 설명하였다.



[그림 4-1] 리처드 뷰캐넌, 인터랙션 4가지 유형

첫 번째로는 사람과 사물의 상호작용성이며 그것은 인간과 사물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터페이스(Interface)가 해당한다. 두 번째로는 사람과 사람의 상호작용성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언어나 행위 안에 내재한 기호(Sign)성을 나타내며 교류(Transaction)를 뜻한다. 세 번째는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성, 휴먼 인터랙션(Human Interaction)이며 여기서는 환경 속에서 인간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주제가 된다. 마지막으로 뷰캐넌은 인간과 우주 사

115) 신재욱, "인터랙션과 인터랙티브 디자인". 웹인터랙션, 디자인정글, 2001.6. (<http://jungle.co.kr/megazine>)

116) 배연준. 공간과 오브제의 상호작용성에 관한 연구. 2006.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석사 학위. p.22.

이의 상호작용성을 제시했다. 여기서 우주는 인간의 문화, 사상, 종교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며 인터랙션 디자인은 사물에서 시작해서 인간의 정신세계와의 접점으로 도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단계를 참여(Participation)라는 모호하고 추상적 표현으로 정리했다.¹¹⁷⁾

PC가 일반화되고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사회는 커뮤니케이션의 범위, 속도, 양적 측면에서 급속히 발전했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발달로 인해 단순히 수용적 측면의 사용자는 또 다른 정보의 생산자로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함으로써 수용자와 미디어의 관계는 수평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나타난다. 이렇게 쌍방향적 의사소통 방식은 각자가 정보의 수용자일 뿐 아니라 적극적인 생산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정보사회의 초기 단계에 지배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이었던 단방향적 네트워크가 이제는 상호 작용하는 네트워크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인터랙션이라는 사회적 특성을 관계 대상과 그들 간의 관계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 행위 주체의 다원화를 가능하게 하며 기존의 수동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인 주체의 입장으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¹¹⁸⁾ 이런 것이 이른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화 현상이다. 멀티미디어를 비롯한 미디어 매체가 대중화됨으로써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용자들 간의 영상, 음향, 문자 등의 데이터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기 때문에 이미 현실의 시간적, 공간적 한계 개념이 사라진다.

또 다른 사회적 변화 특성 중 사회 조직 관계에서의 변화는 연령, 지위에 의한 수직적 관계보다는 커뮤니케이션으로 형성된 관계 중심으로 재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내 인간관계는 점차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구조로 전환되며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나 장소와 같은 외형요소보다는 교환되는 메시지 내용이 더욱 중요해지는 변화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사회구조의 탈중심적 변화이며 이러한 양상은 커뮤니케이션 매체에 의해 더욱 극대화된다고 볼 수 있다.¹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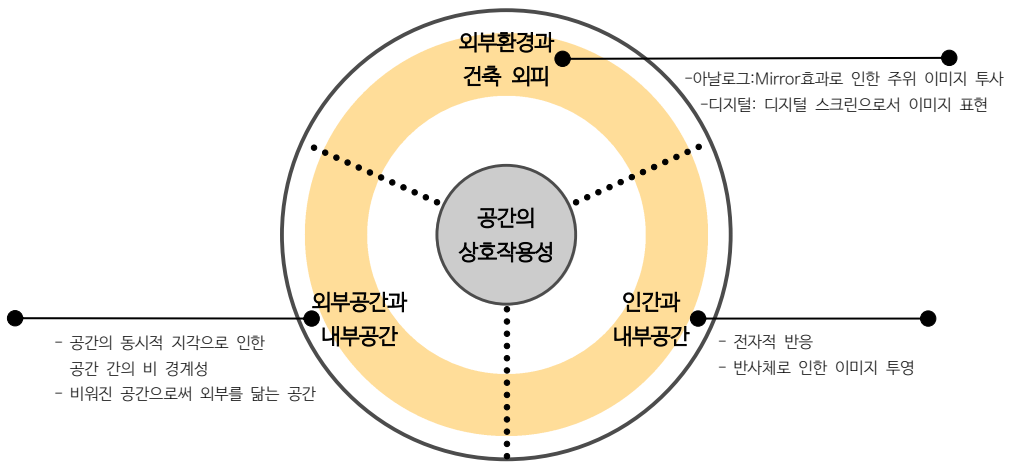
현대의 건축 공간은 이제 더 이상 견고한 구축물로써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

117) 강성중, 권영걸. "공간에서의 인터랙션 디자인 개념 적용에 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vol.14, no.3, 2005, p.236.

118) 이수찬. 디지털 기술사회의 특성이 적용된 현대건축 경향에 관한 연구. 2003.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p.35

119) 배연준(2006). op.cit., p.28.

임없이 주위 환경,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고 변하는 상호작용적인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간에서 나타난 상호작용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환경과 건축 외피와의 상호작용성, 두 번째는 내 외부 공간의 상호 침투성으로 인한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의 상호작용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과 공간의 상호작용성이다. 120)



[그림 4-2] 공간에서의 상호작용성

곽승진(2018)은 라키비움 내 업무공간이나 이용자 공간이 상호작용하지 못하고 충돌해서는 안 되며 만약 한곳에 배치되었다면 공간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배치하고 각 공간은 공간의 특성(라키비움의 특성)을 살리면서 잘 융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김지수(2018)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고 독서와 기록열람, 전시의 기능 이외 휴식이나 커뮤니티 공간, 서비스 공간을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문화와 창작, 협업의 공간을 갖추고 있는지와 공간사용자와 미디어를 연결하는 공간도 충분히 갖춰야 하고 공간 안에서 사용자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한동우(2017)는 각 기관마다 공유업무가

120) *ibid.*, p.29.

있다면 공유할 공간이 계획되어 있어야 하고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공간과 각각의 기관들의 자료인 도서, 기록물, 박물관과 관련된 정보 및 서비스를 한 장소에서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김유승(2012)은 디지털시대의 도전에 대한 대응은 특정한 기본 특성을 공유하는 것인데 각 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혼자 할 수 없다는 것, 현재 업무 관행과 비용구조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기관마다 협력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6) 쾌적성(Amenity)

어메니티(Amenity)'는 라틴어 '아모에니타스(Amoenitas)'에 어원을 두고 있으며 '쾌적한', '기쁜' 등과 같은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이다. 복수로는 '어메니타스(Amenities)' 라고 쓰이며, 이는 장소나 기후 등 주변 환경이 매력적이거나 바람직하다는 의미로 쾌적한 환경을 의미한다. 특히 아모에니타스의 어원은 라틴어 '아마레(Amare)'로 '사랑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사람 간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생물, 사물, 주변의 환경까지 확장된 넓은 의미의 사랑을 말한다.

'쾌적한, 기쁜, 매력적인'과 같은 감각은 인간에게 각각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게 된다. 어메니티의 개념은 단일화된 개념으로 정의하기보다 '분위기(Atmosphere)'와 같이 징후 적으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어메니티의 개념을 공간에 적용하였을 때에 만들어지는 '어메니티 공간(Amenity space)' 역시 그러하며 이에 관한 논의 역시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어메니티라는 단어는 충분히 다의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관점에서든 인간에 관한 공간의 쾌적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메니티 공간이란 '쾌적성을 지닌 공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¹²¹⁾

공간의 쾌적성을 아우르는 어메니티의 개념과 특성을 정리해 보면 크게 4가지의 특성이 있는데 첫째 그린 어메니티, 둘째 기능 어메니티, 셋째 심미 어메니티, 넷째 문화 어메니티의 특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환경 측면의 그린 어메니티는 휴양 적, 심미적 가치를 제공해주며 기후나 풍토,

121) 김철영. 스타트업 공간에서 어메니티의 감성적 특성 연구. 2018.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pp.37-38.

자연환경 등 공간에서의 이용자들을 위한 인간적인 친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환경은 쾌적하고 깨끗하며 자연 친화적인 요소를 도입하여 사용자들의 심리적인 안전감을 더하여 자연스러운 관계를 마련하는 데 있다.

공간에서의 환경은 성격과 분위기를 형성시키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대부분의 시간을 업무공간에서 생활하는 업무자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실내공간에 포함된 자연적 요소의 시각적 지각과 심리적 건강에 대한 상호 작용에 관한 이해가 기본이라 할 수 있다.¹²²⁾

실내공간에서 자연의 요소는 사람에게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요소를 제공하기에 디자인적 Concept 또는 감성적인 도입 및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¹²³⁾

건축과 달리 한정된 실내공간에서 자연요소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과 재료적이며 형태적으로 혹은 자연요소가 갖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표현되고 있다.¹²⁴⁾ 더불어 자연적 환경을 연출하기 위하여 자연적 소재의 요소를 도입하여 공간에 표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간의 경계를 만들어 영역을 분리하고 공간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물리적인 환경으로 제공된다.

기능 어메니티는 건물에 거주하는 이용자의 시점에서 건물이 가지고 있는 기능 또는 성능을 말한다. 공간의 편리를 위한 기능성은 시설을 적극적 활용함으로써 사용자의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접근성을 높여 이용을 지속 가능하게 한다. 인간은 생활을 위하여 장소의 공간을 이용하고 활용하여 개인의 역할에 맞는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기능적인 부분을 창조한다. 더불어 의도적으로 창조한 공간에서 개인의 사회적인 활동을 자유롭게 영위하며 인간의 심리적 만족을 통해 정신과 육체를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한다.¹²⁵⁾

공간 기능적 특성으로는 기능의 유동성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하나의 공간을

122) 김지우. 공간디자인에서의 웰빙요소에 의한 업무환경 평가 연구. 2009.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p.28.

123) 강 희. 현대건축 내·외부에 나타나는 자연도입 유형과 특성 연구. 2010.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석사학위. p.42.

124) 한인호. 현대 상업공간 실내에 나타난 자연요소의 감성적 표현과 인지에 관한 연구. 2009.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p.19.

125) 백수연. 코워킹 스페이스에 나타난 어메니티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2016.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석사학위. p. 31.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도 한다. 한 가지의 요소가 놓이는 위치에 따라 공간의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책상이 되거나 의자 수납공간이 될 수 있는 등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도록 한다. 기능 어메니티를 통해 효율적이고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¹²⁶⁾

심미 어메니티는 ‘기분에 맞음-쾌적함’이라고 하는 의미로 특히 1980년대 후반에 심신의 쾌적함이나 이상적인 환경을 추구하는 경향에서 부상된 말이다. 시각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조용함의 아름다움, 프라이버시, 마음이 고운 것도 여기에 들어간다.¹²⁷⁾ 공간에서의 심미적 표현으로 구조와 색채, 가구나 소품 등 더불어 실용적이어야 사용자에게 긍정적 효과가 있다.

공간 속 표현되는 예술로 어메니티 디자인의 심미적 표현으로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감성을 자극하는 데 있다. 어메니티 디자인의 ‘심미성’은 공간의 아름다움을 말하며, 시각적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조용함과 아름다움, 프라이버시, 마음이 고운 것까지 모두 포함하여 공간을 설계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색채와 구조의 미적 기능을 말한다.¹²⁸⁾

마지막으로 문화 어메니티는 공간의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지닌 환경으로 문화 시설이나 문화행사 및 이용을 통해 느끼는 쾌적함이나 쾌적함을 불러일으키는 장소에서 오는 문화성을 지닌 이벤트 등으로 활용되어 체험할 수 있는 디자인이다. 예술적인 감성이 공간에 녹여져 있어 사용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공간의 가치를 변화시킨다.

문화라는 용어는 한 사회의 개인이나 인간이 자연을 변화시켜온 물질적, 정신적 과정의 산물이라고 정의할 수는 있고 다양함도 가졌다. 또 사전에서의 의미로는 자연 상태의 것을 이용하여 사회구성원들 사이에서 재생산된 생활양식으로서의 습득, 공유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의식주를 비롯하여 종교, 언어, 학문, 예술, 제도, 풍습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정의된다.¹²⁹⁾

126) 최정현. 업무공간에서 창의성 지원을 위한 환경 심리요소와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2010.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p.55.

127) 사카이 겐이치, 김해창 역, “어메니티”. 도서출판 따님, 1998, p.90.

128) 김철영(2018). op.cit., p.42.

129) ibid., p.42.

공간에 있어서 문화적 체험이란 예술과 문화를 시설이나 기능 등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물리적인 표현에서 벗어난 감각적 체험의 공간으로 심리적, 지각적 체험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험으로 감성적인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장소라 볼 수 있다. 이에 경험적 체험을 통하여 공간에 대한 새로운 문화로서의 인식을 통해 정체성을 느낄 수 있도록 제공한다.¹³⁰⁾

[표 4-3] 어메니티 특성 분류

종류	설명	특성
그린 어메니티 (Green Amenity)	온·습도, 기온의 요소를 활용한 심리적 쾌적성	환경성
	시각적 안정감 확보, 물리적 자연물의 직접적 도입	물리적 자연요소
	심리적 자극, 공간의 자연요소 추상화	자연의 추상성
기능 어메니티 (Functional Amenity)	다양한 업무 형태 지원,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다양성(통합성)
	업무영역의 다양화, 오픈된 장소 업무 자율화	탈영역성
	내부시설기능의 효율화	효율성
심미 어메니티 (Expressive Amenity)	추상, 직유, 은유를 통한 추상적 상징성	상징성
	창조적 사고를 위한 의미 전달자	객체성
	기존의 것을 조합하여 특이한 것을 창조	혼성성
문화 어메니티 (Cultural Amenity)	집단의 특성을 부여하고 내집단의 자부심 부여	사회의 창의성
	공간에 주제를 부여하여 정서적 반응유도	감성적 유희성
	사내 문화행사 및 놀이 적극 참여	참여성

최연경(2018)과 광승진(2018)의 연구를 살펴볼 때 인간 본연 욕구의 자연 회귀 대응을 알고 고려한 생태환경과 조화를 중시한 매력적인 라키비움의 공간 구축, 자연, 건강, 호기심 자극을 키워드로 구축, 자연은 인간의 근본적인 휴식요소인 자연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아름다운 도서관 정원과 매력적인 도서관 환경’, 건강은 눈의 피로를 줄이며 콘텐츠의 시각적 전달력을 높이는 효율적인 전시환경과 자연스러운 움직임 유도를 유도하는 프롬나드(Promenade) 전개와 생각하는 공간으로써 ‘편안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호기심 자극은 시각 정보의

130) *ibid.*, p.42.

과밀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보의 주제를 정돈하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전시·체험·문화 향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장미경(2016)은 소장하고 있는 도서나 박물관과 사용자 간의 적합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라키비움의 자료 보존을 위하여 충분한 환경조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7) 유연성(Flexibility)

유연성은 나무가 외부의 힘으로 휘어졌다가 탄력에 의해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오는 단순한 관찰에서 유래된 말¹³¹⁾로 외부 요인으로 운동성을 지니게 된 사물이 탄력적으로 되돌아오는 특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통용되는 유연성은 탄력에 의한 복구보다는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대응되어 진화되는 의미로 적용되고, 공간에서의 유연성 또한 상황에 맞게 변화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유연성은 운동의 포괄적인 범주 내에서 이해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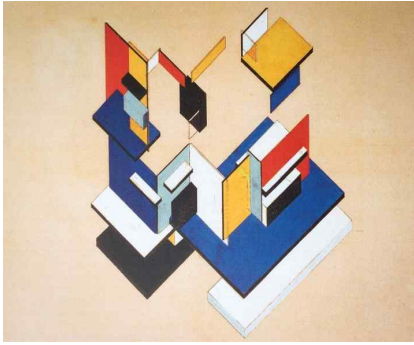
프랑스의 철학자 르페브르(H. Lefebvre)는 그의 저서 [공간의 생산]에서 “공간은 사회적 생산물이다”라고 주장하며 공간과 사회적 관계성을 언급하였다. 공간은 사회적 생산물으로써 사회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생성되며 유연한 공간은 사회의 가치체계 및 변화와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운동성을 지니고 유동적으로 대응되는 개념의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유연성의 관점에서 공간은 두 가지 속성을 지니는데 첫째, 외부요인에 대해 반응되어 변화하는 성질을 띠며 둘째, 변화된 공간은 재생산되어 새로운 가치체계를 연속적으로 생산한다는 것이다.¹³²⁾

패러다임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며 지속해서 변화되는 유연한 공간개념은 기계와 기술의 발전으로 동력 기관에 의한 빠른 속도를 강조하게 되었으며, 속도감의 강조를 통해 건축의 동적인 표현을 주된 모티브로 사용하며 전개되었다. 이러한 공간 디자인에서 운동의 표현은 초기의 단순하고 시각적인 형태적 상징적 의미의 표현에서부터 직접적인 이동과 가변적 구조를 통해 전개되었다.¹³³⁾

131) 리처드세넷,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 문예출판사, 2001, p.60.

132) 윤주희. 노마드적 관점의 유연한 공간에 관한 연구. 2010,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p. 27.

133) ibid., p.27.



[그림 4-3] 반 두스부르흐, 데 스틸 건축의 자유로운
벽체구성. 1928

그림출처 : 김정운 ‘창조의 본고장’ 바우하우스를
가다(15)

성을 구현하였다. 공간과 시간을 인식하기 위한 장치로써 색채를 건축물 표면에 이용하여 공간의 유동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¹³⁵⁾

러시아의 절대주의 또한 개방적인 공간의 유동적 흐름을 통해 역동성을 표현함으로써 상징적인 운동성을 부여하였다. 엘 리시츠키의 프라운 라움은 벽체에 부착된 요소들이 2차원에서 3차원으로 표현되면서 공간 안에서 시간의 흐름을 느끼고 선과 면의 연속성에 따른 확장감을 부여하며 유동적인 흐름을 유도한다. 프라운 라움에서 무한히 확장되는 연속적 공간을 표현하기 위해, 관찰자의 움직임에 따라 6개의 평면에 부착된 요소 주의적 부조들이 무한히 확장되고 반복되는 운동감을 가지도록 디자인했기 때문이다.¹³⁶⁾

과거 공간의 유연성은 사물을 시간 속의 연속체와 운동 변화의 매체로 인식함에

134) 1917년에 결성된 네덜란드의 예술인 디자인 조형 운동으로서 화가 두스부르흐가 리더가 되어 기판지 [데 스틸]을 파리와 레이던에서 발간하여 몬드리안, 조각가 반 톤게를루, 건축가 오우트와 리트펠드 등이 중심이 되어 이 운동을 추진했다. 입체파의 영향을 받은「데 스틸」의 건축과 디자인은 몬드리안의 신조형주의에 반영되고 있으며, 수평선과 수직선에 의한 화면구성과 강렬한 3원색과 무채색이 특징이다. 후에 바우하우스 추상주의, 운동-그래픽, 디자인-실내장식-복식 등의 분야에도 영향을 주었다.

135) 윤주희(2010). op.cit., p.28.

136) El Lissitzky, 김원갑 역 “Russia : An Architecture for World Revolution (러시아 : 세계혁명을 위한 건축)” 세진사, 1994, p.138.



[그림 4-4] 엘 리시츠키, 프라운 라움, 1923

역동성을 과도하게 시각적으로 표현함에 국한되었고, 가변적인 구성은 용도에 어우르지 못하며 실사용자 관점에서 구조의 메커니즘이 완벽하지 못했다. 또한 이동 가능한 건축물의 형태가 시대적 관심사에 머물며 과장된 표현에 머물렀던 점, 기술 발달의 미흡으로 실제로 구현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사실이 한계성으로 남는다.¹³⁷⁾

한동우(2017)는 문화 활용의 확장으로 커뮤니티 공간이 지역 정보 보급의 문화적 촉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와 극장, 공연, 갤러리의 형태로 변화하면서 사회문화적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는가를 언급하였다. 또 이러한 극장이나 공연장 갤러리의 형태 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배치인가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라키비움 내 공간의 유연성이 사용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였다. 장 찬(2020)에 의하면 대학 내 라키비움 구축 시 식당, 편의점, 카페 등 이용자 편의시설을 편의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와 라키비움으로의 공간 변화 시 이러한 변화에 쉽게 이용자가 적응할 수 있는 공간구조를 서비스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137) 윤주희(2010). op.cit., p.32.

4.2 평가항목 예비지표

위 라키비움 선행연구에서 추출한 특성을 종합하여 나타난 기능적인 특성과 공간적인 특성 기준으로 대학도서관의 라키비움 화 도입을 위한 공간평가 안 1차 예비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공간적 특성은 의미상으로 종합하고 빈도순으로 정리하여 도출된 7가지 특성으로 분류하였다. 분류된 특성은 기능적인(E), 적응이 용이한(F), 접근이 편한(G), 다양한(H), 상호작용적인(I), 환경적으로 적합한(K), 유연한(N) 이다. 유도하는(J), 안전한(L), 효율적인(M), 놀라운(O), 이 네 가지 특성은 빈도수 2 이하로 특성에서 배제하였다. 빈도순으로 정리된 7가지의 특성들을 의미상으로 재분류하는데 기능적인-기능성, 적응이 용이한-적응성, 접근이 편한-접근성, 다양한-다양성, 상호작용적인-상호작용성, 환경적으로 적합-쾌적성, 유연한-유연성으로 명확히 하였다. 특성에 대한 개념은 앞서 언급한 <표 4-2> 대학 라키비움의 공간 특성 개념에 서술하였다. 빈도순으로 살펴보면 선행연구자들이 상호작용성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는 라키비움 구축 시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이 서로 같은 공간 내에서 서로의 각 기능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잘 융합되어야 하는가와 여러 공간이 형성되어 사용자에게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많은 빈도수를 차지한 것은 접근성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새로운 문화공간이라 할 수 있는 라키비움에 관하여 부담 없이 호의적으로 접근하여 사용자가 새로운 공간에 유입될 수 있는지와 물리적 환경이나 수단을 활용하여 도달하기 쉬워야만 많은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고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다음으로는 쾌적성, 기능성, 다양성, 유연성, 적응성의 빈도순으로 나타났다.

이 특성을 토대로 이용자에게 바람직한 환경이 되기 위하여 어떤 특성의 항목이 중요한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 예비지표를 제시하였다. 대학도서관의 라키비움 화 도입을 위한 공간평가 안 1차 평가지표 중요도 평가의 예비지표 평가항목 세부 내용은 다음 <표 4-4>와 같다.

[표 4-4] 대학도서관의 라키비움 도입을 위한 공간평가 예비지표 세부내용

공간 특성	세부 지표 내용	중요도 평가 점수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5	4	3	2	1
가능성 (6)	라키비움의 필수공간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가?					
	공간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발휘되는가?					
	라키비움의 기능을 구현할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었는가?					
	각 공간이 협업할 수 있는 동선이 체계화되어있는가?					
	공간별 기능이 중복되는가?					
적응성 (5)	최소한의 자원이나 인력으로 공간을 유지 가능한가?					
	공간이 프로그램 진행 시 유연하게 대처 가능한가?					
	가변적 구조변경 시 이용자가 적응하기 용이한가?					
	도서관에서 라키비움으로 변화된 공간이 안정감을 주는가?					
	공간을 이용할 때 집중도가 높은가?					
접근성 (5)	시간의 변화에 따라 지속가능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가?					
	물리적 환경이나 수단을 활용하여 도달하기 쉬운가?					
	심리적인 접근이 용이한가?					
	방문객들의 유입을 촉진하는가?					
	공간 간의 유기적인 구성이 이루어졌는가?					
다양성 (5)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취할 수 있는 공간 구성인가?					
	다양한 행동 양식을 수용할 수 있는가?					
	정보제공을 위한 공간이 다양한가?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하였는가?					
	공간별 활용방식이 다양한가?					
상호작용성 (6)	사용자의 선택적 공간 이용이 가능한가?					
	내·외부공간이 상호작용하는가?					
	라키비움 내 공간들이 잘 융합되었는가?					
	휴식 및 커뮤니티 공간이 형성되어있는가?					
	공간과 이용자의 쌍방향적 정보교류가 가능한가?					
쾌적성 (7)	지역과 대학 라키비움이 상호작용하는가?					
	지역의 활성화를 촉진하는가?					
	심미적 가치를 제공하는가?					
	도서, 박물관, 구조물 등과 사용자 간의 인터페이스가 적절히 조성되었는가?					
	자료 보존을 위한 충분한 환경이 조성되었는가?					
유연성 (5)	친환경적 공간이 조성되었는가?					
	심리적·정서적 안정감을 취할 수 있는가?					
	문화적 환경으로 사용자의 참여를 촉진하는가?					
	감성적 경험을 통해 정서적 반응을 유도하는가?					
	사용자에 따라 다목적으로 사용 가능한가?					
유연성 (5)	공간이 상황에 따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가?					
	공간 내 확장감을 부여하였는가?					
	용도에 맞는 가변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가?					
	정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가?					

4.3 평가 예비지표 검증

4.3.1 1차 중요도 조사 개요

대학도서관의 라키비움 도입을 위한 공간평가 항목의 유의미성과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앞서 예비항목으로 추출된 39개 세부지표에 대하여 공간디자인 전공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중요도 조사를 하였다. 조사는 2021년 4월 19일부터 5월 2일(2주간) 1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100% 회수하였으며 수합된 표본 총 100부를 분석에 활용하였고, 조사 방법은 기본 면접 설문조사로 진행하고 라키비움 방문사례의 폭을 넓히기 위한 원거리 응답자와 비대면 설문을 원하는 전문가를 위해 온라인으로도 이루어졌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이메일을 통하여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의 대상자는 공간디자인,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와 석, 박사 대학원생으로 구성하였고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라키비움 관련 전문가는 기타로 표시하였다.

중요도 설문 측정은 응답자가 어느 정도까지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하는가에 따라 ‘매우 낮음’ 1점, ‘낮음’ 2점, ‘보통’ 3점, ‘높음’ 4점, ‘매우 높음’ 5점으로 구성(5점 척도)하였고 관련 계산 값은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였다.

통계분석은 IBM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25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 분석, 상관분석, 문항 간 신뢰도 분석, 집단 간 평균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4-5] 전문가 중요도 조사 개요

구분	설명
조사명	대학도서관의 라키비움 화를 위한 공간평가 항목에 대한 중요도 조사
대상자(모집단)	공간디자인 전공자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응답자 수(표본)	100명
조사 방법	면접 설문조사, 온라인조사, 이메일 수합
조사 기간	2021년 4월 19일 ~ 5월 2일(2주간)
통계분석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한 빈도(Frequencies), 상관(Correlations), 신뢰도(Reliability) 등을 수행

[표 4-6] 응답자 현황

구분		사례 수(명)	비율(%)
전체		100	100.0
성별	남자	52	52.0
	여자	48	48.0
전문성	예비전문가	42	42.0
	전문가	58	58.0
전공	공간디자인	55	55.0
	공공디자인	10	10.0
	산업디자인	4	4.0
	시각디자인	5	5.0
	기타	26	26.0
경력	3년 미만	35	35.0
	3년~5년	16	16.0
	6년~10년	16	16.0
	11년~20년	22	22.0
	20년 이상	11	11.0
학력	대학재학~석사 미만	46	46.0
	석사	24	24.0
	박사 재학	5	5.0
	박사 수료	13	13.0
	박사	12	12.0

설문응답자의 현황 및 기본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성별은 남자 52%, 여자 48%, 전문성에 따라 예비전문가 42%, 전문가 58%로 나타났다. 전공 분야는 공간 디자인 전공자가 55%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공공디자인(10%), 시각 디자인(5%), 산업디자인(4%)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전공자는 26%를 기록하였다.

경력은 ‘3년 미만’ 35%, ‘3년 이상 5년’ 및 ‘6년 이상 10년’ 각 16%, ‘11년 이상 20년’ 22%, ‘20년 이상’ 11%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재학~석사 미만이 46%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석사(24%), 박사수료(13%), 박사(12%), 박사 재학(5%)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4-기] 응답자의 대학도서관 이용

구분		사례 수(명)	비율(%)
전체		100	100.0
대학도서관 이용 빈도	거의 없음	8	8.0
	매일	31	31.0
	주 1회~2회	15	15.0
	주 3회~4회	9	9.0
	한 달 1회~2회	20	20.0
	6개월 1회~2회	17	17.0
대학도서관 이용 목적	학술 활동	56	56.0
	여가 활동	10	10.0
	커뮤니티 활동	4	4.0
	미팅 장소	2	2.0
	업무	21	21.0
	기타	7	7.0
라키비움 방문 여부	예	90	90.0
	아니오	10	10.0

대학도서관 이용 관련, 평상시 대학도서관 이용 빈도는 ‘거의 없음’ 8%, ‘매일’ 31%, ‘주 1회~2회’ 15%, ‘주 3회~4회’ 9%, ‘한 달 1회~2회’ 20%, ‘6개월 1회~2회’ 17%로 나타나,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한 달에 1회 이상(75%) 대학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학도서관 이용목적은 학술 활동(56%), 업무(21%), 여가활동(10%), 커뮤니티 활동(4%), 미팅 장소(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라키비움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90%를 기록하였다.

[표 4-8] 공간 특성 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

공간 특성	세부 지표	질문 내용	문항 수	Cronbach's α
기능성	필수 공간 구비	라키비움의 필수공간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가?	6	0.777
	공간기능의 효율성	공간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발휘되는가?		
	충분한 공간 확보	라키비움의 기능을 구현할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었는가?		
	공간 동선의 체계화	각 공간이 협업할 수 있는 동선이 체계화되어있는가?		
	공간별 기능중복 문제	공간별 기능이 중복되는가?		
적응성	효과적 공간 유지	최소한의 자원이나 인력으로 공간을 유지 가능한가?	5	0.744
	공간의 유연성	공간이 프로그램 진행 시 유연하게 대처 가능한가?		
	이용자의 적응 용이성	가변적 구조변경 시 이용자가 적응하기 용이한가?		
	공간 안정감	도서관에서 라키비움으로 변화된 공간이 안정감을 주는가?		
	공간 이용 집중도	공간을 이용할 때 집중도가 높은가?		
접근성	지속가능한 공간환경	시간의 변화에 따라 지속가능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가?	5	0.786
	물리적 도달 용이성	물리적 환경이나 수단을 활용하여 도달하기 쉬운가?		
	심리적 접근 용이성	심리적인 접근이 용이한가?		
	방문객 유입 촉진	방문객들의 유입을 촉진하는가?		
	공간 간의 유기적 구성	공간 간의 유기적인 구성이 이루어졌는가?		
다양성	신속한 정보취합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취합할 수 있는 공간 구성인가?	5	0.739
	다양한 행동 양식 수용	다양한 행동 양식을 수용할 수 있는가?		
	정보제공 공간의 다양성	정보제공을 위한 공간이 다양한가?		
	다양한 연령층 고려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하였는가?		
	공간별 활용 다양성	공간별 활용방식이 다양한가?		
상호 작용성	선택적 공간 이용	사용자의 선택적 공간 이용이 가능한가?	6	0.815
	내·외부 공간의 상호작용	내·외부 공간이 상호작용하는가?		
	공간 간 융합	라키비움 내 공간들이 잘 융합되었는가?		
	휴식커뮤니티 공간 형성	휴식 및 커뮤니티 공간이 형성되어있는가?		
	쌍방향적 정보교류	공간과 이용자의 쌍방향적 정보교류가 가능한가?		
쾌적성	지역과 상호작용	지역과 대학 라키비움이 상호작용하는가?	7	0.825
	지역 활성화 촉진	지역의 활성화를 촉진하는가?		
	심미적 가치 제공	심미적 가치를 제공하는가?		
	공간-사용자 간 인터페이스	공간과 사용자 간의 인터페이스가 적절히 조성되었는가?		
	자료 보존 환경	자료 보존을 위한 충분한 환경이 조성되었는가?		
유연성	친환경적 공간 조성	친환경적 공간이 조성되었는가?	5	0.841
	안정감 향유	심리적·정서적 안정감을 취할 수 있는가?		
	사용자의 참여 촉진	문화적 환경으로 사용자의 참여를 촉진하는가?		
	정서적 반응 유도	감성적 경험을 통해 정서적 반응을 유도하는가?		
	다목적 공간사용 가능성	사용자에 따라 다목적으로 사용 가능한가?		
상황에 따른 공간 대응	공간이 상황에 따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가?			
공간 내 확장감 부여	공간 내 확장감을 부여하였는가?			
가변적 구조 형성	용도에 맞는 가변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가?			
정보환경 변화 대응	정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가?			

평가지표 중요도 평가와 관련 응답자가 각각의 공간 특성 항목 문항에서 일관성 있게 답변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문항 간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를 통해 측정이 가능하며 알파 계수는 0~1 사이의 값(1에 가

까울수록 문항들에 대한 응답이 서로 유사해서 신뢰성이 높음을 나타냄)을 가지고 있고 보통 0.6 이상이면 일관성 있는 응답으로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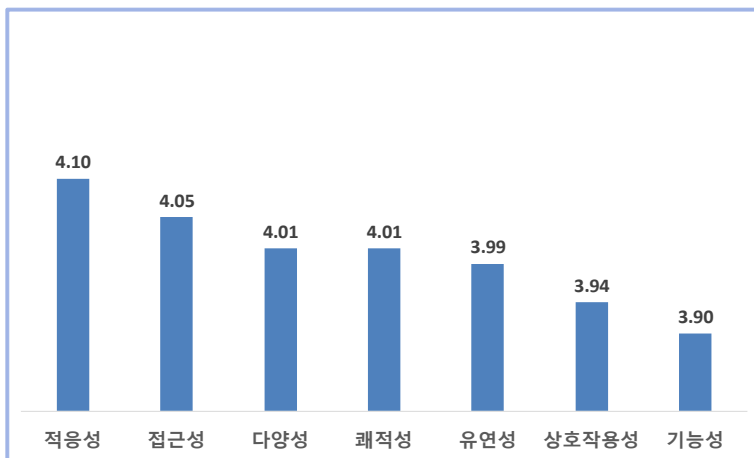
공간 특성 세부 지표의 문항 간 신뢰도 분석 결과 모든 항목에서 Cronbach's α 계수가 0.7 이상의 신뢰도를 나타냈다. 특히 유연성(0.841), 쾌적성(0.825), 상호작용성(0.815)은 0.8 이상의 상당히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4.3.2 1차 중요도 조사 결과

(1) 공간 특성 평가지표의 중요도

공간 특성 평가지표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적응성(4.10), 접근성(4.05), 다양성(4.01), 쾌적성(4.01) 항목은 4점(높음) 이상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다음으로 유연성(3.99), 상호작용성(3.94), 기능성(3.9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적응성은 중요도 점수가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값이 0.584로 가장 작아서 평균에 모여있는 값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유연성 항목은 표준편차가 0.700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다른 평가지표에 비해 평균에서 내려간 값이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5] 공간 특성 평가지표의 중요도 (단위 : 점)

[표 4-9] 공간 특성별 중요도 점수 (단위 : 점)

공간 특성	세부 지표	(순위)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기능성	필수 공간 구비	(7)	2.17	5.00	3.90	0.619
	공간기능의 효율성					
	충분한 공간 확보					
	공간 동선의 체계화					
	공간별 기능중복 문제					
효과적 공간 유지						
적응성	공간의 유연성	(1)	2.20	5.00	4.10	0.584
	이용자의 적응 용이성					
	공간 안정감					
	공간 이용 집중도					
지속가능한 공간환경						
접근성	물리적 도달 용이성	(2)	2.00	5.00	4.05	0.654
	심리적 접근 용이성					
	방문객 유입 촉진					
	공간 간의 유기적 구성					
	신속한 정보취합					
다양성	다양한 행동 양식 수용	(3)	2.20	5.00	4.01	0.634
	정보제공 공간의 다양성					
	다양한 연령층 고려					
	공간별 활용 다양성					
선택적 공간 이용						
상호 작용성	내외부 공간의 상호작용	(6)	2.17	5.00	3.94	0.658
	공간 간 융합					
	휴식커뮤니티 공간 형성					
	쌍방향적 정보교류					
	지역과 상호작용					
지역 활성화 촉진						
쾌적성	심미적 가치 제공	(4)	2.43	5.00	4.01	0.596
	공간-사용자 간 인터페이스					
	자료 보존 환경					
	친환경적 공간 조성					
	안정감 향유					
	사용자의 참여 촉진					
정서적 반응 유도						
유연성	다목적 공간사용 가능성	(5)	2.20	5.00	3.99	0.700
	상황에 따른 공간 대응					
	공간 내 확장감 부여					
	가변적 구조 형성					
	정보환경 변화 대응					

주1: Base N=100 주2: 다양성과 쾌적성은 평균이 4.01로 동일하지만,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살펴 보면, 다양성(4.010)이 쾌적성(4.008) 높아 다양성 지표가 3순위를 기록함.

(2) 공간 특성 평가지표 간 상관관계

공간 특성 평가지표 간 서로 관련된다고 예측되는 두 개의 변수들이 얼마나 선형적으로 연관성이 있는지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우선 두 지표 간 선형적 관련성의 정도는 피어슨(Pearson) 상관계수(완전 음의 선형상관 -1에서 완전 양의 선형상관 +1 사이에 분포)를 활용하였는데, 보통 상관계수가 ± 0.4 이상이면 상관이 있고, ± 0.7 이상이면 상관이 매우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분석 결과 각각의 평가지표 간 0.5 이상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모든 지표 간 상관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쾌적성-유연성(0.709), 쾌적성-적응성(0.697) 지표 간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10] 공간 특성별 상관관계

요소명	기능성	적응성	접근성	다양성	상호작용성	쾌적성	유연성
기능성	1						
적응성	.633** (.000)	1					
접근성	.562** (.000)	.675** (.000)	1				
다양성	.670** (.000)	.655** (.000)	.674** (.000)	1			
상호작용성	.566** (.000)	.636** (.000)	.681** (.000)	.656** (.000)	1		
쾌적성	.637** (.000)	.697** (.000)	.638** (.000)	.690** (.000)	.655** (.000)	1	
유연성	.643** (.000)	.627** (.000)	.597** (.000)	.673** (.000)	.595** (.000)	.709** (.000)	1

주1: Base N=100

주2: 유의확률 $p < 0.01 (**)$ 수준에서 유의함(양측).

4.3.3 1차 중요도 조사 분석

(1) 기능성

공간 특성 평가 항목 가운데 기능성에 대한 집단별 중요도 점수(평균 3.90)를 살펴보면(5점 척도) 다음과 같다. 남자(3.83)보다는 여자(3.97)가 전문가(3.77)보다는 예비전문가(4.08)가 기능성에 대해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특히 전문가와 예비전문가의 중요도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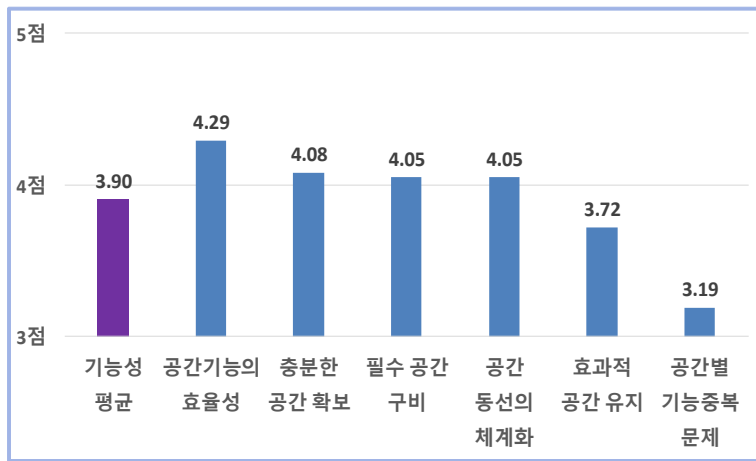
응답자의 전공 분야와 관련해서는 산업디자인(4.21), 공간디자인(3.97), 시각디자인(3.87), 기타(3.81), 공공디자인(3.58) 순으로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경력별로는 3년 미만(4.02), 3년~5년(3.95), 11년~20년(3.86), 6년~10년(3.82), 20년 이상(3.62) 순으로, 학력별로는 대학재학~석사 미만(4.04), 박사(3.90), 박사 재학(3.77), 박사 수료(3.76), 석사(3.73) 순으로 중요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표 4-11] 기능성의 집단별 중요도

공간 특성	집단 구분	사례수(명)	평균(점)	표준편차	t, F	유의도(p)	
기능성	전체	100	3.90	0.619	-	-	
	성별	남자	52	3.83	0.669	-1.175	.243
		여자	48	3.97	0.557		
	전문성	예비전문가	42	4.08	0.525	2.523	.013*
		전문가	58	3.77	0.653		
	전공	공간디자인	55	3.97	0.497	1.232	.303
		공공디자인	10	3.58	0.879		
		산업디자인	4	4.21	0.567		
		시각디자인	5	3.87	0.628		
	경력	기타	26	3.81	0.728	.994	.415
		3년 미만	35	4.02	0.509		
		3년~5년	16	3.95	0.623		
		6년~10년	16	3.82	0.566		
		11년~20년	22	3.86	0.758		
	학력	20년 이상	11	3.62	0.700	1.259	.291
		대학재학~석사미만	46	4.04	0.555		
		석사	24	3.73	0.681		
		박사 재학	5	3.77	0.760		
		박사 수료	13	3.76	0.778		
		박사	12	3.90	0.417		

주: t, F는 통계량 값이며, 유의확률은 $p < .001$ (***), $p < .01$ (**), $p < .05$ (*)임

기능성(전체 평균 3.90) 평가지표를 구성하는 세부지표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공간기능의 효율성’(4.29), ‘충분한 공간 확보’(4.08), ‘필수 공간 구비’ 및 ‘공간 동선의 체계화’(각 4.05), ‘효과적 공간 유지’(3.72), ‘공간별 기능중복 문제’(3.19) 순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그림 4-6] 기능성 세부지표 중요도 점수

[표 4-12] 기능성의 세부지표별 중요도 (단위 : %, 점)

공간 특성 (지표 수)	세부 지표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5점 평균	표준 편차
기능성 (6)	필수 공간 구비	0.0	3.0	16.0	54.0	27.0	4.05	0.744
	공간기능의 효율성	0.0	2.0	10.0	45.0	43.0	4.29	0.729
	충분한 공간 확보	0.0	6.0	16.0	42.0	36.0	4.08	0.872
	공간 동선의 체계화	0.0	5.0	18.0	44.0	33.0	4.05	0.845
	공간별 기능중복 문제	6.0	20.0	36.0	25.0	13.0	3.19	1.089
	효과적 공간 유지	3.0	11.0	22.0	39.0	25.0	3.72	1.055

주: Base N=100

기능성 평가항목을 구성하는 6개 세부지표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검정 유의확률이 모두 0.05 이하이므로 유의수준 0.05 이하 또는 유의수준 0.01 이하에서 모두 선형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선형관련성 정도를 상관계수로 살펴보면, ‘필수 공간 구비’와 ‘충분한 공간 확보’의 상관계수가 0.570으로 양의 선형관련성이 다른 지표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라키비움의 필수공간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은 라키비움 기능을 구현할 공간이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필수공간 구비’와 ‘공간별 기능 중복 문제’, ‘공간기능의 효율성’과 ‘효과적 공간 유지’ 지표 간의 상관계수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그 관련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라키비움의 필수공간이 제대로 구비되었는가와 공간별 기능이 중복되는 문제와의 상관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찬가지로 공간 기능이 효율적으로 발휘되는 것과 최소한의 자원이나 인력으로 공간이 유지 가능한가 하는 것과는 관련성이 그리 높지 않았다.

[표 4-13] 기능성의 세부지표별 상관관계

요소명	필수 공간 구비	공간기능의 효율성	충분한 공간 확보	공간 동선의 체계화	공간별 기능중복 문제	효과적 공간 유지
필수 공간 구비	1					
공간기능의 효율성	.569** (.000)	1				
충분한 공간 확보	.570** (.000)	.567** (.000)	1			
공간 동선의 체계화	.430** (.000)	.517** (.000)	.419** (.000)	1		
공간별 기능중복 문제	.238* (.017)	.312** (.002)	.452** (.000)	.330** (.001)	1	
효과적 공간 유지	.263** (.008)	.238* (.017)	.376** (.000)	.356** (.000)	.267** (.007)	1

주1: Base N=100

주2: 유의확률 $p < 0.05$ (*), $p < 0.01$ (**) 수준에서 유의함(양측).

(2) 적응성

적응성에 대한 집단별 중요도 점수(평균 4.10)는 남자(4.05)보다는 여자(4.17)가 전문가(4.01)보다는 예비전문가(4.23)가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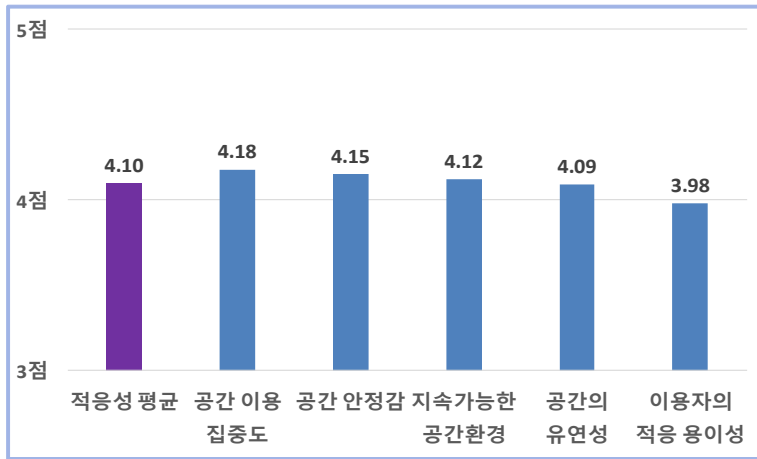
응답자의 전공 분야와 관련해서는 산업디자인(4.50), 시각디자인(4.24), 공간디자인(4.15), 기타(4.00), 공공디자인(3.92) 순으로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경력별로는 3년 미만(4.21), 20년 이상(4.16), 6년~10년과 11년~20년(각 4.05), 3년~5년(3.96) 순으로, 학력별로는 박사(4.23), 대학재학~석사 미만(4.20), 석사(4.03), 박사 수료(3.94), 박사 재학(3.72) 순으로 중요도 점수를 높게 기록하였다.

[표 4-14] 적응성의 집단별 중요도

공간 특성	집단 구분	사례수(명)	평균(점)	표준편차	t, F	유의도(p)	
적응성	전체	100	4.10	0.584	-	-	
	성별	남자	52	4.05	0.604	-1.031	.305
		여자	48	4.17	0.562		
	전문성	예비전문가	42	4.23	0.535	1.836	.069
		전문가	58	4.01	0.606		
	전공	공간디자인	55	4.15	0.524	1.052	.385
		공공디자인	10	3.92	0.464		
		산업디자인	4	4.50	0.663		
		시각디자인	5	4.24	0.518		
	경력	기타	26	4.00	0.727	.639	.636
		3년 미만	35	4.21	0.572		
		3년~5년	16	3.96	0.518		
		6년~10년	16	4.05	0.453		
		11년~20년	22	4.05	0.667		
	학력	20년 이상	11	4.16	0.731	1.336	.262
		대학재학~석사미만	46	4.20	0.536		
		석사	24	4.03	0.661		
		박사 재학	5	3.72	0.610		
		박사 수료	13	3.94	0.568		
	박사	12	4.23	0.577			

주: t, F는 통계량 값이며, 유의확률은 $p < .001$ (***), $p < .01$ (**), $p < .05$ (*)임

적응성(전체 평균 4.10) 평가지표를 구성하는 세부지표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공간 이용 집중도’(4.18), ‘공간 안정감’(4.15), ‘지속가능한 공간환경’(4.12), ‘공간의 유연성’(4.09), ‘이용자의 적응 용이성’(3.9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7] 적응성 세부지표 중요도 점수

[표 4-15] 적응성의 세부지표별 중요도 (단위 : %, 점)

공간 특성 (지표 수)	세부 지표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5점 평균	표준 편차
적응성 (5)	공간의 유연성	0.0	7.0	15.0	40.0	38.0	4.09	0.900
	이용자의 적응 용이성	1.0	5.0	20.0	43.0	31.0	3.98	0.899
	공간 안정감	0.0	3.0	16.0	44.0	37.0	4.15	0.796
	공간 이용 집중도	0.0	2.0	16.0	44.0	38.0	4.18	0.770
	지속가능한 공간환경	0.0	3.0	16.0	47.0	34.0	4.12	0.782

주: Base N=100

적응성 평가항목을 구성하는 5개 세부지표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공간의 유연성’과 ‘공간 이용 집중도’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수준 0.01 이하에서 선형관련성

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선형관련성 정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공간 안정감’과 ‘이용자의 적응 용이성’의 상관계수가 0.555로 양의 선형관련성이 다른 지표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도서관에서 라키비움으로 변화된 공간이 주는 안정감이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은 가변적 구조변경 시 이용자가 용이하게 적응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공간의 유연성’과 ‘공간 안정감’은 지표 간 상관계수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그 관련성은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간이 프로그램 진행 시 유연하게 대처 가능한 것과 도서관에서 라키비움으로 변화된 공간이 안정감을 주는 것의 중요도는 상호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16] 적응성의 세부지표별 상관관계

요소명	공간의 유연성	이용자의 적응 용이성	공간 안정감	공간 이용 집중도	지속가능한 공간환경
공간의 유연성	1				
이용자의 적응 용이성	.327** (.001)	1			
공간 안정감	.291** (.003)	.555** (.000)	1		
공간 이용 집중도	.122 (.226)	.341** (.001)	.384** (.000)	1	
지속가능한 공간환경	.401** (.000)	.406** (.000)	.393** (.000)	.500** (.000)	1

주1: Base N=100

주2: 유의확률 p<0.01(**) 수준에서 유의함(양측).

(3) 접근성

접근성에 대한 집단별 중요도 점수(평균 4.05)는 남자(4.01)보다는 여자(4.10)가 전문가(4.00)보다는 예비전문가(4.13)가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응답자의 전공 분야와 관련해서는 산업디자인(4.65), 시각디자인(4.44), 공간디자인(4.03), 기타(4.00), 공공디자인(3.90) 순으로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경력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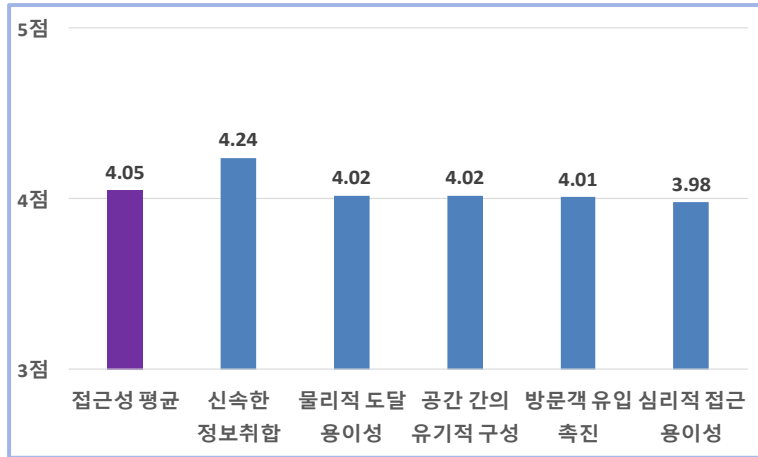
로는 3년 미만(4.15), 11년~20년(4.14), 6년~10년(4.06), 20년 이상(3.98), 3년~5년(3.78) 순으로, 학력별로는 대학재학~석사 미만(4.14), 박사(4.12), 석사(3.96), 박사 수료(3.94), 박사 재학(3.84) 순으로 중요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표 4-17] 접근성의 집단별 중요도

공간 특성	집단 구분	사례수(명)	평균(점)	표준편차	t, F	유의도(p)	
접근성	전체	100	4.05	0.654	-	-	
	성별	남자	52	4.01	0.609	-.674	.502
		여자	48	4.10	0.704		
	전문성	예비전문가	42	4.13	0.610	.969	.335
		전문가	58	4.00	0.685		
	전공	공간디자인	55	4.03	0.669	1.497	.209
		공공디자인	10	3.90	0.675		
		산업디자인	4	4.65	0.412		
		시각디자인	5	4.44	0.385		
	경력	기타	26	4.00	0.647	1.033	.395
		3년 미만	35	4.15	0.626		
		3년~5년	16	3.78	0.719		
		6년~10년	16	4.06	0.520		
		11년~20년	22	4.14	0.596		
	학력	20년 이상	11	3.98	0.896	.596	.666
		대학재학~석사미만	46	4.14	0.585		
		석사	24	3.96	0.685		
		박사 재학	5	3.84	0.899		
		박사 수료	13	3.94	0.640		
	박사	12	4.12	0.798			

주: t, F는 통계량 값이며, 유의확률은 $p < .001$ (***), $p < .01$ (**), $p < .05$ (*)임

접근성(전체 평균 4.05) 평가지표를 구성하는 세부지표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신속한 정보취합’(4.24), ‘물리적 도달 용이성’ 및 ‘공간 간의 유기적 구성’(각 4.02), ‘방문객 유입 촉진’(4.01), ‘심리적 접근 용이성’(3.9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8] 접근성 세부지표 중요도 점수

[표 4-18] 접근성의 세부지표별 중요도 (단위 : %, 점)

공간 특성 (지표수)	세부 지표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5점 평균	표준 편차
접근성 (5)	물리적 도달 용이성	1.0	4.0	20.0	42.0	33.0	4.02	0.887
	심리적 접근 용이성	0.0	6.0	25.0	34.0	35.0	3.98	0.921
	방문객 유입 촉진	1.0	6.0	18.0	41.0	34.0	4.01	0.927
	공간 간의 유기적 구성	1.0	6.0	17.0	42.0	34.0	4.02	0.921
	신속한 정보취합	0.0	3.0	13.0	41.0	43.0	4.24	0.793

주: Base N=100

접근성 평가항목을 구성하는 5개 세부지표 간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검정의 유의확률은 모두 0.01 이하로 두 개 지표변수 간 모두 선형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선형관련성 정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를 통해 살펴보면, ‘물리적 도달 용이성’과 ‘심리적 접근 용이성’의 상관계수가 0.594로 양의 선형관련성이 다른 지표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공간 특성 가운데 물리적 환경이나 수단을 활용하여 도달하기 쉬운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은 심리적 접근의 용이성을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뚜렷하게 높게 나타났다. 반면, ‘공간 간의 유기적 구성’과

‘물리적 도달 용이성’은 지표 간 상관계수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그 관련성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간 간의 유기적 구성과 물리적 환경이나 수단을 활용한 공간 도달의 용이성의 중요도는 상호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19] 접근성의 세부지표별 상관관계

요소명	물리적 도달 용이성	심리적 접근 용이성	방문객 유입 촉진	공간 간의 유기적 구성	신속한 정보취합
물리적 도달 용이성	1				
심리적 접근 용이성	.594** (.000)	1			
방문객 유입 촉진	.356** (.000)	.426** (.000)	1		
공간 간의 유기적 구성	.321** (.001)	.370** (.000)	.544** (.000)	1	
신속한 정보취합	.438** (.000)	.352** (.000)	.340** (.001)	.505** (.000)	1

주1: Base N=100

주2: 유의확률 $p < 0.01$ (**) 수준에서 유의함(양측).

(4) 다양성

다양성에 대한 집단별 중요도 점수(평균 4.01)는 남자(3.92)보다는 여자(4.11)가 전문가(3.91)보다는 예비전문가(4.15)가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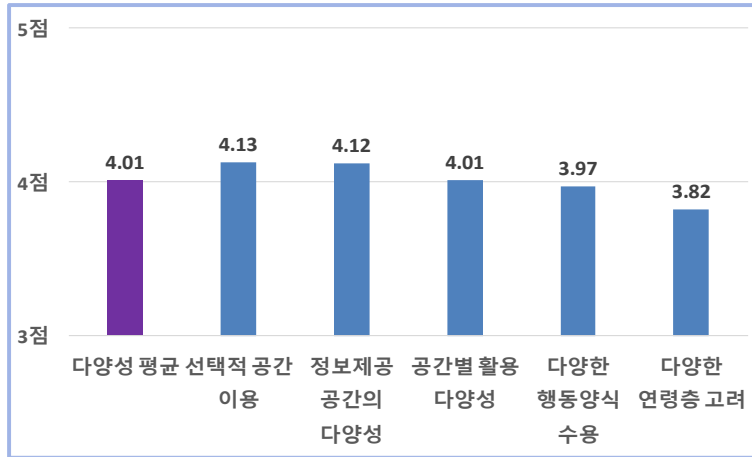
응답자의 전공 분야와 관련해서는 산업디자인(4.35), 공간디자인(4.05), 시각디자인과 기타(각 4.00), 공공디자인(3.68) 순으로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경력별로는 3년 미만(4.13), 3년~5년과 6년~10년(각 3.99), 20년 이상(3.95), 11년~20년(3.89) 순으로, 학력별로는 대학재학~석사 미만(4.09), 박사(4.08), 석사(3.93), 박사 재학(3.92), 박사 수료(3.85) 순으로 중요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표 4-20] 다양성의 집단별 중요도

공간 특성	집단 구분		사례수(명)	평균(점)	표준편차	t, F	유의도(p)
다양성	전체		100	4.01	0.634	-	-
	성별	남자	52	3.92	0.686	-1.500	.137
		여자	48	4.11	0.563		
	전문성	예비전문가	42	4.15	0.689	1.870	.064
		전문가	58	3.91	0.577		
	전공	공간디자인	55	4.05	0.637	1.025	.398
		공공디자인	10	3.68	0.801		
		산업디자인	4	4.35	0.597		
		시각디자인	5	4.00	0.400		
		기타	26	4.00	0.591		
	경력	3년 미만	35	4.13	0.706	.514	.726
		3년~5년	16	3.99	0.514		
		6년~10년	16	3.99	0.481		
		11년~20년	22	3.89	0.613		
		20년 이상	11	3.95	0.815		
	학력	대학재학~석사미만	46	4.09	0.673	.569	.686
		석사	24	3.93	0.441		
		박사 재학	5	3.92	0.657		
		박사 수료	13	3.85	0.813		
		박사	12	4.08	0.629		

주: t, F는 통계량 값이며, 유의확률은 $p < .001$ (***), $p < .01$ (**), $p < .05$ (*)임

다양성(전체 평균 4.01) 평가지표를 구성하는 세부지표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선택적 공간 이용’(4.13), ‘정보제공 공간의 다양성’(4.12), ‘공간별 활용 다양성’(4.01), ‘다양한 행동 양식 수용’(3.97), ‘다양한 연령층 고려’(3.8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9] 다양성 세부지표 중요도 점수

[표 4-21] 다양성의 세부지표별 중요도 (단위 : %, 점)

공간 특성 (지표 수)	세부 지표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5점 평균	표준 편차
다양성 (5)	다양한 행동 양식 수용	1.0	5.0	25.0	34.0	35.0	3.97	0.948
	정보제공 공간의 다양성	2.0	3.0	12.0	47.0	36.0	4.12	0.879
	다양한 연령층 고려	2.0	10.0	18.0	44.0	26.0	3.82	0.999
	공간별 활용 다양성	0.0	8.0	20.0	35.0	37.0	4.01	0.948
	선택적 공간 이용	0.0	1.0	18.0	48.0	33.0	4.13	0.734

주: Base N=100

다양성 평가항목을 구성하는 5개 세부지표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유의확률은 모두 0.5 이하로, 유의수준 0.5 이하 또는 0.01 이하에서 전부 선형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선형관련성 정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정보제공 공간의 다양성’과 ‘다양한 행동 양식 수용’의 상관계수가 0.538로 양의 선형관련성이 다른 지표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정보제공을 위한 공간의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은 다양한 행동 양식을 수용하는 공간 특성을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다양한 연령층 고려’와 ‘다양한 행동 양식 수용’은 지표 간 상관계수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그 관련성은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하는 것과 다양한 행동 양식을 수용할 수 있는가의 중요도는 상호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22] 다양성의 세부지표별 상관관계

요소명	다양한 행동 양식 수용	정보제공 공간의 다양성	다양한 연령층 고려	공간별 활용 다양성	선택적 공간 이용
다양한 행동 양식 수용	1				
정보제공 공간의 다양성	.538** (.000)	1			
다양한 연령층 고려	.218* (.029)	.312** (.002)	1		
공간별 활용 다양성	.371** (.000)	.398** (.000)	.450** (.000)	1	
선택적 공간 이용	.282** (.005)	.226* (.024)	.391** (.000)	.463** (.000)	1

주1: Base N=100

주2: 유의확률 $p < 0.05$ (*), $p < 0.01$ (**) 수준에서 유의함(양측).

(5) 상호작용성

상호작용성에 대한 집단별 중요도 점수(평균 3.94)는 남자(3.90)보다는 여자(3.99)가 전문가(3.87)보다는 예비전문가(4.04)가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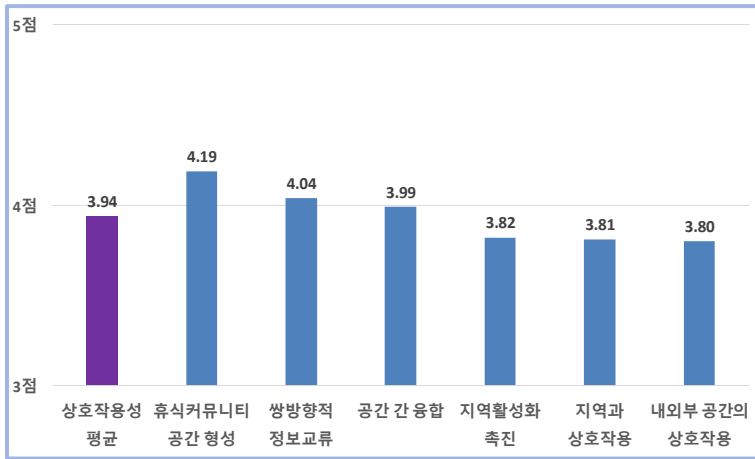
응답자의 전공 분야와 관련해서는 산업디자인(4.50), 시각디자인(4.23), 기타(3.94), 공간디자인(3.91), 공공디자인(3.77) 순으로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경력별로는 11년~20년과 20년 이상(각 3.98), 3년 미만(3.94), 6년~10년(3.93), 3년~5년(3.86) 순으로, 학력별로는 박사(4.29), 대학재학~석사 미만(3.96), 석사(3.86), 박사 수료(3.77), 박사 재학(3.73) 순으로 중요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표 4-23] 상호작용성의 집단별 중요도

공간 특성	집단 구분		사례수(명)	평균(점)	표준편차	t, F	유의도(p)
상호작용성	전체		100	3.94	0.658	-	-
	성별	남자	52	3.90	0.663	-.698	.487
		여자	48	3.99	0.655		
	전문성	예비전문가	42	4.04	0.673	1.325	.188
		전문가	58	3.87	0.642		
	전공	공간디자인	55	3.91	0.660	1.187	.321
		공공디자인	10	3.77	0.854		
		산업디자인	4	4.50	0.577		
		시각디자인	5	4.23	0.480		
		기타	26	3.94	0.593		
	경력	3년 미만	35	3.94	0.709	.089	.986
		3년~5년	16	3.86	0.514		
		6년~10년	16	3.93	0.443		
		11년~20년	22	3.98	0.606		
		20년 이상	11	3.98	1.045		
	학력	대학재학~석사미만	46	3.96	0.663	1.319	.269
		석사	24	3.86	0.510		
		박사 재학	5	3.73	0.346		
		박사 수료	13	3.77	0.815		
		박사	12	4.29	0.759		

주: t, F는 통계량 값이며, 유의확률은 $p < .001$ (***), $p < .01$ (**), $p < .05$ (*)임

상호작용성(전체 평균 3.94) 평가지표를 구성하는 세부지표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휴식커뮤니티 공간 형성’(4.19), ‘쌍방향적 정보교류’(4.04), ‘공간 간 융합’(3.99), ‘지역 활성화 촉진’(3.82), ‘지역과 상호작용’(3.81), ‘내외부 공간의 상호작용’(3.8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10] 상호작용성 세부지표 중요도 점수

[표 4-24] 상호작용성의 세부지표별 중요도 (단위 : %, 점)

공간 특성 (지표 수)	세부 지표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5점 평균	표준 편차
상호작용성 (6)	내외부 공간의 상호작용	1.0	9.0	24.0	41.0	25.0	3.80	0.953
	공간 간 융합	1.0	3.0	18.0	52.0	26.0	3.99	0.810
	휴식커뮤니티 공간 형성	1.0	4.0	12.0	41.0	42.0	4.19	0.873
	쌍방향적 정보교류	0.0	5.0	21.0	39.0	35.0	4.04	0.875
	지역과 상호작용	0.0	14.0	20.0	37.0	29.0	3.81	1.012
	지역 활성화 촉진	0.0	11.0	21.0	43.0	25.0	3.82	0.936

주: Base N=100

공간 특성 평가항목 중 상호작용성을 구성하는 6개 세부지표 간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검정의 유의확률은 모두 0.01 이하로 두 개 지표변수 간 전부 선형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선형관련성 정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를 통해 살펴보면, ‘지역 활성화 촉진’과 ‘지역과 상호작용’의 상관계수는 0.753으로 양의 선형관련성이 다른 지표 가운데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공간 특성 가운데 지역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은 지역과 대학 라키비움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간 간 융합’과 ‘지역과 상호

작용'은 지표 간 상관계수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그 관련성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라키비움 내 공간 간 융합과 지역과 대학 라키비움과의 상호작용 중요도는 상호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25] 상호작용성의 세부지표별 상관관계

요소명	내외부 공간의 상호작용	공간 간 융합	휴식커뮤니티 공간 형성	쌍방향적 정보교류	지역과 상호작용	지역 활성화 촉진
내외부 공간의 상호작용	1					
공간 간 융합	.416** (.000)	1				
휴식커뮤니티 공간 형성	.398** (.000)	.446** (.000)	1			
쌍방향적 정보교류	.433** (.000)	.485** (.000)	.413** (.000)	1		
지역과 상호작용	.379** (.000)	.281** (.005)	.442** (.000)	.385** (.000)	1	
지역 활성화 촉진	.355** (.000)	.317** (.001)	.438** (.000)	.416** (.000)	.753** (.000)	1

주1: Base N=100

주2: 유의확률 p<0.01(**) 수준에서 유의함(양측).

(6) 쾌적성

쾌적성에 대한 집단별 중요도 점수(평균 4.01)는 남자(3.92)보다는 여자(4.10)가 전문가(3.86)보다는 예비전문가(4.22)가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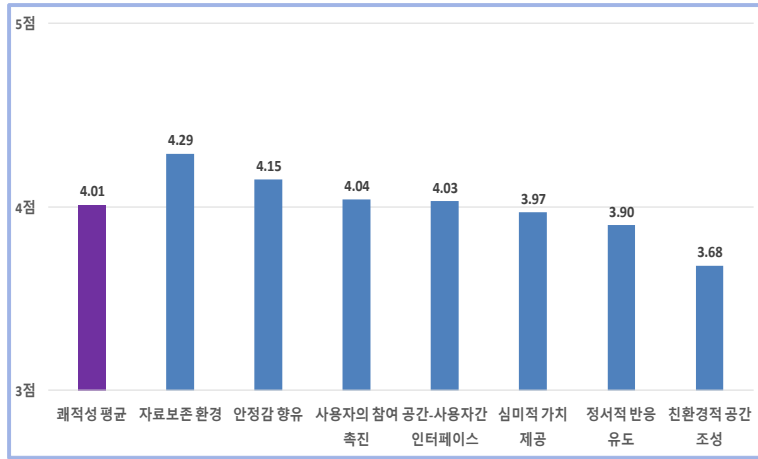
응답자의 전공 분야와 관련해서는 산업디자인(4.46), 공간디자인(4.06), 공공디자인(3.96), 시각디자인(3.94), 기타(3.85) 순으로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경력별로는 3년 미만(4.19), 20년 이상(4.00), 3년~5년(3.92), 11년~20년(3.89), 6년~10년(3.87) 순으로, 학력별로는 대학재학~석사 미만(4.14), 박사(4.06), 박사 재학(3.94), 박사 수료(3.92), 석사(3.79) 순으로 중요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표 4-26] 쾌적성의 집단별 중요도

공간 특성	집단 구분		사례수(명)	평균(점)	표준편차	t, F	유의도(p)
쾌적성	전체		100	4.01	0.596	-	-
	성별	남자	52	3.92	0.607	-1.551	.124
		여자	48	4.10	0.576		
	전문성	예비전문가	42	4.22	0.589	3.112	.002**
		전문가	58	3.86	0.559		
	전공	공간디자인	55	4.06	0.588	1.200	.316
		공공디자인	10	3.96	0.560		
		산업디자인	4	4.46	0.427		
		시각디자인	5	3.94	0.412		
		기타	26	3.85	0.658		
	경력	3년 미만	35	4.19	0.598	1.384	.245
		3년~5년	16	3.92	0.529		
		6년~10년	16	3.87	0.528		
		11년~20년	22	3.89	0.573		
		20년 이상	11	4.00	0.764		
	학력	대학재학~석사미만	46	4.14	0.621	1.482	.214
		석사	24	3.79	0.591		
		박사 재학	5	3.94	0.480		
		박사 수료	13	3.92	0.487		
		박사	12	4.06	0.601		

주: t, F는 통계량 값이며, 유의확률은 $p < .001$ (***) , $p < .01$ (**), $p < .05$ (*)임

쾌적성(전체평균 4.01) 평가지표를 구성하는 세부지표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자료 보존 환경’(4.29), ‘안정감 향유’(4.15), ‘사용자의 참여 촉진’(4.04), ‘공간-사용자 간 인터페이스’(4.03), ‘심미적 가치 제공’(3.97), ‘정서적 반응 유도’(3.90), ‘친환경적 공간 조성’(3.6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11] 쾌적성 세부지표 중요도 점수

[표 4-27] 쾌적성의 세부지표별 중요도 (단위 : %, 점)

공간 특성 (지표 수)	세부 지표	중요도 (%)					5점 평균	표준 편차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쾌적성 (7)	심미적 가치 제공	1.0	1.0	26.0	44.0	28.0	3.97	0.822
	공간-사용자 간 인터페이스	0.0	1.0	23.0	48.0	28.0	4.03	0.745
	자료 보존 환경	0.0	1.0	14.0	40.0	45.0	4.29	0.743
	친환경적 공간 조성	1.0	8.0	35.0	34.0	22.0	3.68	0.942
	안정감 향유	0.0	5.0	13.0	44.0	38.0	4.15	0.833
	사용자의 참여 촉진	0.0	5.0	18.0	45.0	32.0	4.04	0.840
	정서적 반응 유도	1.0	10.0	21.0	34.0	34.0	3.90	1.020

주: Base N=100

쾌적성 평가항목을 구성하는 7개 세부지표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유의확률은 모두 0.5 이하로, 유의수준 0.5 이하 또는 0.01 이하에서 전부 선형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선형관련성 정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를 통해 살펴보면, '심미적 가치 제공'과 '사용자의 참여 촉진'의 상관계수가 0.558로 양의 선형관련성이 다른 지표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공간 특성 가운데 심미적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은 문화적 환경으로 사용자의 참여를 촉진하는 공간 특성을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정서적 반응 유도’와 ‘공간-사용자 간 인터페이스’ 지표는 상관계수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그 관련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성적 경험을 통해 정서적 반응을 유도하는 것과 공간과 사용자 간의 인터페이스가 적절히 조성되었는가의 중요도는 상호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28] 쾌적성의 세부지표별 상관관계

요소명	심미적 가치 제공	공간-사용자 간 인터페이스	자료 보존 환경	친환경적 공간 조성	안정감 향유	사용자의 참여 촉진	정서적 반응 유도
심미적 가치 제공	1						
공간-사용자 간 인터페이스	.480** (.000)	1					
자료 보존 환경	.296** (.003)	.331** (.001)	1				
친환경적 공간 조성	.379** (.000)	.345** (.000)	.336** (.001)	1			
안정감 향유	.405** (.000)	.383** (.000)	.402** (.000)	.384** (.000)	1		
사용자의 참여 촉진	.558** (.000)	.402** (.000)	.435** (.000)	.310** (.002)	.482** (.000)	1	
정서적 반응 유도	.358** (.000)	.230* (.021)	.412** (.000)	.461** (.000)	.529** (.000)	.582** (.000)	1

주1: Base N=100

주2: 유의확률 p<0.05 (*), p<0.01(**) 수준에서 유의함(양측).

(7) 유연성

유연성에 대한 집단별 중요도 점수(평균 3.99)는 남자(3.89)보다는 여자(4.11)가 전문가(3.84)보다는 예비전문가(4.11)가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특히 전문성에 따른 중요도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였다(p<.05).

전공 분야와 관련해서는 산업디자인(4.40), 공간디자인(4.03), 기타(3.95), 공공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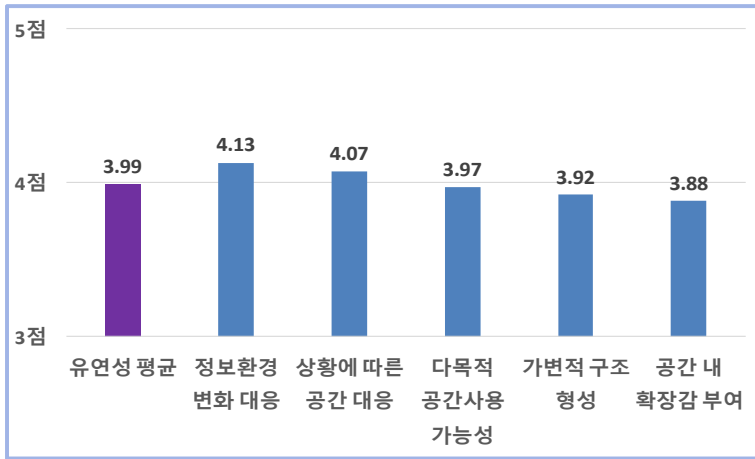
자인(3.88), 시각디자인(3.76) 순으로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경력별로는 3년 미만(4.17), 3년~5년(3.99), 20년 이상(3.98), 11년~20년(3.86), 6년~10년(3.80) 순으로, 학력별로는 박사 재학(4.16), 대학재학~석사 미만(4.10), 박사(4.00), 석사(3.88), 박사 수료(3.75) 순으로 유연성에 대한 중요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표 4-29] 유연성의 집단별 중요도

공간 특성	집단 구분	사례수(명)	평균(점)	표준편차	t, F	유의도(p)	
유연성	전체	100	3.99	0.700	-	-	
	성별	남자	52	3.89	0.755	-1.581	.117
		여자	48	4.11	0.623		
	전문성	예비전문가	42	4.20	0.600	2.638	.010*
		전문가	58	3.84	0.732		
	전공	공간디자인	55	4.03	0.678	.597	.665
		공공디자인	10	3.88	0.818		
		산업디자인	4	4.40	0.712		
		시각디자인	5	3.76	0.639		
	경력	기타	26	3.95	0.730	1.064	.379
		3년 미만	35	4.17	0.618		
		3년~5년	16	3.99	0.651		
		6년~10년	16	3.80	0.790		
		11년~20년	22	3.86	0.762		
	학력	20년 이상	11	3.98	0.745	.909	.462
		대학재학~석사 미만	46	4.10	0.710		
		석사	24	3.88	0.648		
		박사 재학	5	4.16	0.754		
		박사 수료	13	3.75	0.749		
	박사	12	4.00	0.698			

주: t, F는 통계량 값이며, 유의확률은 $p < .001$ (***), $p < .01$ (**), $p < .05$ (*)임

유연성(전체평균 3.99) 평가지표를 구성하는 세부지표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정보환경 변화 대응’(4.13), ‘상황에 따른 공간 대응’(4.07), ‘다목적 공간사용 가능성’(3.97), ‘가변적 구조 형성’(3.92), ‘공간 내 확장감 부여’(3.8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12] 유연성 세부지표 중요도 점수

[표 4-30] 유연성의 세부지표별 중요도 (단위 : %, 점)

공간 특성 (지표 수)	세부 지표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5점 평균	표준 편차
유연성 (5)	다목적 공간사용 가능성	0.0	9.0	13.0	50.0	28.0	3.97	0.881
	상황에 따른 공간 대응	0.0	3.0	26.0	32.0	39.0	4.07	0.879
	공간 내 확장감 부여	0.0	8.0	27.0	34.0	31.0	3.88	0.946
	가변적 구조 형성	0.0	7.0	25.0	37.0	31.0	3.92	0.918
	정보환경 변화 대응	0.0	5.0	15.0	42.0	38.0	4.13	0.849

주: Base N=100

공간특성 평가항목 중 유연성을 구성하는 5개 세부지표 간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검정의 유의확률은 모두 0.000이므로 유의수준 0.01 이하에서 전부 선형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선형관련성 정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를 보면, ‘가변적 구조 형성’과 ‘공간 내 확장감 부여’의 상관계수는 0.641로 양의 선형관련성이 다른 지표 가운데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즉, 공간이 용도에 맞게 가변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은 공간 내 확장감을 부여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공간 내 확장감 부여’와 ‘다목적 공간사용 가능성’은 지표 간 상관계수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다른 세부지표 간의 상관성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간 내 확장감 부여의 중요도와 사용자에 따라 다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것의 중요도는 상호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여타 세부지표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31] 유연성의 세부지표별 상관관계

요소명	다목적 공간사용 가능성	상황에 따른 공간 대응	공간 내 확장감 부여	가변적 구조 형성	정보환경 변화 대응
다목적 공간사용 가능성	1				
상황에 따른 공간 대응	.576** (.000)	1			
공간 내 확장감 부여	.420** (.000)	.435** (.000)	1		
가변적 구조 형성	.484** (.000)	.545** (.000)	.641** (.000)	1	
정보환경 변화 대응	.451** (.000)	.448** (.000)	.510** (.000)	.636** (.000)	1

주1: Base N=100

주2: 유의확률 $p < 0.01$ (**) 수준에서 유의함(양측).

공간 특성 7개 평가항목의 변수집단별 측정 결과를 보면, 기능성, 쾌적성, 유연성의 경우 예비전문가, 전문가 구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였다. 기능성, 쾌적성, 유연성의 중요도에 대해 예비전문가가 전문가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다른 평가항목과 관련하여 성별, 전문성 여부, 전공 분야, 경력, 학력 등에 따른 집단별 평균 차이를 살펴보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즉 앞서 기능성, 쾌적성, 유연성 항목에 대한 전문가와 예비전문가의 차이를 제외하고, 모든 공간 특성 항목에 대한 집단별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아, 공간 특성 항목이 대체로 일반성을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4.3.4 전문가 FGI 심층 면접

중요도 평가 분석 결과 항목별 표준편차에서 다른 평가지표에 비해 평균에서 멀리 떨어지는 1점 이상 나온 4가지 세부지표를 제외하고 평가항목을 재구성하여 종합적인 평가모형을 제안하기 위해 2차 전문가 검증을 하였다. 평가항목의 세부지표 설정을 위해 표적 집단면접법(FGI:Focus Group Interview)¹³⁸⁾을 채택하여 진행하였고 중요도 평가에서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항목의 적합성 여부와 세부지표 내용을 검토하고 인터뷰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로 고려되어야 하는 항목과 수정 및 보완사항 등의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FGI 대상자는 연구의 신뢰도를 위해 공간디자인 관련 분야의 교수 5명으로 선정하였고 심층 면접의 기간은 5월10일부터 5월16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다. 조사 방법은 면접을 기본으로 하고 비대면 면접을 원하는 전문가는 설문에 관련된 내용과 연구목적에 대한 충분한 설명 하에 온라인을 통한 개별 면접을 하였다. 전문가 5명의 설문조사는 모두 회수되었고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지표의 내용을 도출하였다.

[표 4-32] FGI 응답자 현황

구분	응답자 A	응답자 B	응답자 C	응답자 D	응답자 E
성별	남	여	남	남	남
연령	50	47	52	59	60
학위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직업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경력	20년 이상	15년 이상	20년 이상	20년 이상	20년 이상

138) 표적집단면접법(FGI:Focus Group Interview)은 질적 연구 중 하나로서 설문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현실적이고 심층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연구자가 연구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정성영. 공공문화예술기관의 운영성과 향상을 위한 평가요소들의 중요도에 관한 연구. 2019.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p.65.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2차 예비 평가지표의 적합도 결과를 빈도 분석한 결과 모든 평가항목이 적합하며 유의미한 항목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개의 공간 특성 평가항목 중 적응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모든 평가항목이 4점 이상으로 높게 분석되었다.

[표 4-33] 공간 특성 평가항목의 빈도 분석 결과

평가항목	평균(표준편차)	응답자 A	응답자 B	응답자 C	응답자 D	응답자 E
기능성	4.04(0.329)	4.60	3.80	3.80	4.00	4.00
적응성	4.60(0.137)	4.50	4.50	4.75	4.50	4.75
접근성	4.44(0.219)	4.40	4.40	4.80	4.20	4.40
다양성	4.28(0.303)	4.00	4.00	4.60	4.20	4.60
상호 작용성	4.53(0.415)	4.83	3.83	4.83	4.50	4.67
쾌적성	4.40(0.245)	4.60	4.00	4.40	4.40	4.60
유연성	4.28(0.390)	4.80	3.80	4.40	4.00	4.40

FGI 결과 전문가 5명의 대학도서관의 라키비움 도입을 위한 공간평가 세부 문항의 평가 외 추가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인터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전문가 A : 경험을 제공하는 다양한 공간의 역할이 중요**

라키비움은 다양한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라이브러리 파크가 대표적으로 새로 계획되어 조성된 곳인데, 대학도서관을 라키비움 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대학에 근무하면서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지는 않지만, 라키비움 화로 인하여 다양한 공간이 탄생한다면 학생이나 교수의 이용증가율이 높아지고 지역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평가항목이 공간평가모형을 제시하기에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기능성에서 내용이 모호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수정해야 할 부분이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비대면이 늘고 있고 VR 전시 등 온라인 공간사용 및 기능을 활용하는 사용자에게 대한 지표가 추가되면 좋을 것 같다. 이용자에게 경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점점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공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 **전문가 B : 공간에 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평가지표 예상**

전국적인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학의 입지를 보았을 때 대학도서관의 라키비움 화를 통해 학생과 지역, 일반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안을 한다는 점에서 평가지표가 라키비움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전체적인 문항은 공간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소수의 문항이 넓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 수집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더 명확한 개념으로 정리한다면 실제적이고 향상된 평가결과를 얻을 수 있다. 예시로 (상호작용성) 지역의 활성화를 촉진하는가? 라는 항목의 경우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평가에 혼동을 줄 수 있다. 또한 (상호작용성) 내-외부공간이 상호작용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라키비움의 건축적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호한 평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질문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한다면 공간에 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평가지표가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 **전문가 C : 생활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공간디자인 구성 방향 제시**

평가항목의 기능성 세부지표의 내용 중 모호한 문항이 있어 정리가 필요하며 단어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사전적 정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적응성-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차이 생성 적인 공간 시스템 등 설문지에 사전 설명 첨부가 중요하다. 일반 이용자에게 공간평가를 진행할 시 세부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문장구성 해야 한다.

대학도서관이 라키비움 화 된다면 목적을 위한 방문이 아닌 이용자들에게 생활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공간구성과 프로그램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 **전문가 D : 새로운 문화공간으로의 역할 수행**

대학 내 접근성은 이미 확정적이므로 공간의 다양화와 쾌적성, 심미적 안정감으로 재방문 할 수 있는 매력이 필요하다. 코엑스 별빛도서관처럼 학문적 경험의 도서관의 비중을 조금 줄이고 감성적인 카페 휴식공간이나 멀티미디어 공간처럼 다양한 힐링 공간으로서 라키비움을 활용한다면 대학 내 한정적인 도서관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재학생과 지역 내 주민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방문하는 명소의 역할도 충

분히 수행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다양성의 세부내용 중 공간의 다양성과는 거리가 먼 지표 내용은 배제하는 것이 설문에 일관성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 **전문가 E : 대학의 성격에 맞는 라키비움 연구·계획**

국립문화 공간의 라키비움 이용 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대학에서도 라키비움이 도입된다면 도서관 이상의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현실적으로 물리적인 공간 확보는 물리적 공간 한계로 인한(1인당 면적 또는 기능성 공간의 최소 필요 면적)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공간의 쾌적성이 높다는 것은 그 공간이 가진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여 다양하고 쾌적한 공간은 공간 평가 시 필히 중요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공공기관보다 대학이 라키비움을 도입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학에 맞는 라키비움이 연구, 계획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로 라키비움 도입의 공간평가에 대한 본 연구의 방향은 타 연구와의 차별성이 명확하고 대학도서관뿐만 아니라 여느 기관의 라키비움 도입에도 좋은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사료된다.

위 설문조사의 내용 중 지적사항들을 정리하면 기능성의 세부지표 내용 중 모호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수정하고 정리가 필요하며 각각의 공간 특성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설명을 첨부해야 한다. 일반 이용자에게 공간평가 진행 시 이해가 쉽도록 문장을 구성하고 다양성에 관해서는 설문의 일관성을 주기 위해서 거리가 먼 의미의 지표는 배제해야 한다. 소수의 문장에서 내포된 넓은 의미는 데이터 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명확한 개념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나타났다.

위와 같은 의견을 종합한 심층 면접의 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모형 제안의 의미에 맞게 평가항목을 재구성하고 세부적으로는 세부지표의 내용을 구체화한다. 유사 항목의 경우에는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축소 또는 조정하고 전문가 의견의 수집과 교환을 통해 다음 절에서는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지표를 최종 도출하여 대학도서관의 라키비움 도입을 위한 공간평가 항목 AHP 중요도 조사를 한다.

두 차례로 진행된 설문조사 및 분석,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도출된 결과를 보면 평가항목은 기능성, 적응성, 접근성, 다양성, 상호작용성, 쾌적성, 유연성 등 예비지표와 같이 7가지 항목으로 변화가 없고 하위 31개의 세부지표가 도출되었다.

4.4 공간평가 항목에 대한 AHP 중요도 조사

4.4.1 AHP 기법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화 분석법)의 가중치 산출은 계량화된 수치를 통해 공간평가 각 항목(지표)별 상대적 중요도를 제시해 준다. 추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어떤 항목이 중요한지 살펴보기 위해 라운드 로빈(Round robin) 방식으로 계층별 항목요소들의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실시하였다.

전문가들에게 1:1 면접 조사와 온라인 설문을 개별 전송한 후 작성 및 회신을 요청하였고, 회수된 응답지는 그 답변이 통계적으로 일관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일관성 비율(CR, Consistency Ratio)을 측정하고, 만약 CR 값이 0.1보다 큰 경우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¹³⁹⁾

AHP 분석은 그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다음 4가지 기본 공리(송은주, 2014; 광병호, 2007)를 전제한다. 첫째, 동일한 계층 내에 있는 2개 요인을 짝지어 비교하며, 역수 조건을 만족시키는 선호의 강도로서 표현, 즉 A가 B보다 X 배 중요하면 그 역의 중요도는 1/X인 역수성(Reciprocal)을 갖는다. 둘째, 동질성(Homogeneity)을 갖는데 중요도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정해진 척도에 의해 표현, 즉 비교 대상 간 비교 가능한 일정 범위와 기준을 제시한다. 셋째, 독립성(Independency)으로 선호도를 표현할 때 검정기준은 대안(평가요인)의 성질과 독립적이어야 한다. 즉 비교 대상 간 특성이나 내용 면에서 관련성이 없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대성(Expectation)으로 의사결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려 요소들을 계층이 완전하게 포함하고 있음을 가정한다.¹⁴⁰⁾

139) 일반적으로 일관성 비율이 0.1 이내이면 합리적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0.2 이하일 때도 유의한 결과로 용인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0.1 이내 응답자만 유효한 것으로 제한하였다.

박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다기준분석 방안 연구Ⅱ". 한국개발연구원, 2001.

140) 광병호. AHP 의사결정 방법에서 양방향 순위도출 방법을 이용한 쌍대비교의 일관성 검정. 2007. 한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송은주. AHP를 이용한 커피 교육 커리큘럼의 상대적 중요도에 관한 연구. 2014. 경희사이버대학교 호텔관광대학원, 석사학위.

AHP 분석 과정에서 가중치 산정(Weighting) 및 일관성 검증(Consistency test)은 쌍대비교를 통하여 두 요소 간 상대적 중요도의 측정 결과를 종합하여 요소들 간 상대적 가중치를 추정한다. 응답자가 한 수준에서 n 개의 평가항목에 대해 ${}_nC_2$ 회의 쌍대비교를 수행하면 실제적인 상대적 가중치를 알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쌍대비교행렬 $A_{n \times n}$ 을 구성한다.

$$A = [a_{ij}] = \begin{bmatrix} w_1/w_1 & w_1/w_2 & \dots & w_1/w_n \\ w_2/w_1 & w_2/w_2 & \dots & w_2/w_n \\ \vdots & \vdots & \ddots & \vdots \\ w_n/w_1 & w_n/w_2 & \dots & w_n/w_n \end{bmatrix}$$

이때 행렬 A 를 구성하는 a_{ij} 는 요소 j 에 대한 요소 i 의 상대적 가중치 $\frac{w_i}{w_j}$ 의 추정치이다. 행렬 A 는 $a_{ij} = \frac{1}{a_{ji}}$, 주 대각선의 원소(Element)값이 모두 1이 되는 성질을 가진 역수 행렬(Reciprocal matrix)이다. 행렬 A 에 평가항목간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가중치인 열벡터 $w = (w_1, w_2, \dots, w_n)^T$ 를 곱하게 되면 아래 식과 같은 관계를 가진다.

$$\begin{bmatrix} w_1/w_1 & w_1/w_2 & \dots & w_1/w_n \\ w_2/w_1 & w_2/w_2 & \dots & w_2/w_n \\ \vdots & \vdots & \ddots & \vdots \\ w_n/w_1 & w_n/w_2 & \dots & w_n/w_n \end{bmatrix} \cdot \begin{bmatrix} w_1 \\ w_2 \\ \vdots \\ w_n \end{bmatrix} = \begin{bmatrix} nw_1 \\ nw_2 \\ \vdots \\ nw_n \end{bmatrix}$$

여기서 n 은 행렬 A 의 최대 고유치(Maximum eigenvalue)이며 행(또는 열)의 수이다. 그리고 $A \cdot w = n \cdot w$ 로부터 w 의 해를 구한 값을 평가항목별 가중치 벡터로 사용한다. 쌍대비교에 의하여 행렬 A 를 얻는 방법은 각 열의 요소의 중요도를 1을 기준으로 한 후 대각선 상위에 있는 요소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결정하고, 만일 쌍대비교에 의해서 얻어진 행렬 A 의 원 a_{ij} 가 각각 $\frac{w_i}{w_j}$ 의 값을 갖는다면 기수적

일관성, 즉 $a_{ij} \times a_{jk} = a_{ik}$ 가 성립되어야 한다. $a_{ij} \times a_{jk} = a_{ik}$ 의 의미는 i 를 j 보다 x 배 중요하게 생각하고, j 를 k 보다 y 배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i 를 k 보다 $x \times y$ 배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이다. 이때 응답자(비교 수행자)가 얼마나 일관성을 가지고 결과를 평가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일관성 지수(Consistency Index)이다. CI가 0.1 이하이면 일관성을 가지고 비교했다는 의미이다. 또한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RI(Random Index, 임의지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일관성 비율은 일관성 지수를 임의지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임의지수 값은 일반적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값으로 주어진다.

$$C.I = \frac{\lambda_{\max} - n}{n - 1}, \quad C.R = \frac{C.I}{R.I}$$

n	1	2	3	4	5	6	7	8	9	10	...
R.I	0	0	0.58	0.90	1.12	1.24	1.32	1.41	1.45	1.49	...

본 연구는 AHP의 이러한 원리에 기반하여, 설문을 구성하고,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의 엑셀(Excel) 프로그램을 활용하였고,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으므로, 통계표 및 도표내 중요도(가중치)의 합이 1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4.4.2 전문가 AHP 설문조사 개요

(1) 설문지 구성

전문가 AHP 설문조사는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39개의 예비지표를 도출하고, 1차 전문가 중요도 조사 및 2차 전문가 심층 면접(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최종 7개의 영역과 31개의 세부지표를 선정하였다. 도출된 7개의 영역과 31개의 세부지표를 비교하여 각 영역에서의 상대적 중요도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1차 설문 대상으로 포함하였던 예비전문가는 재설문 시 제외했고 전문가들로만 구성하여 이를 통해 각 영역에 어떤 지표가 더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향후 공간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 <표 4-34>는 최종 설문지에 첨부한 공간평가 최종 평가지표 항목이다.

[표 4-34] 대학도서관의 라키비움도입을 위한 공간평가 항목 지표

연번	공간 특성	세부 지표	질문 내용
1	가능성	필수 공간 구비	라키비움의 필수공간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가?
2		공간기능의 효율성	공간의 기능이 효율적이고 동선이 체계화되어 있는가?
3		충분한 공간 확보	라키비움의 기능을 구현할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었는가?
4	적응성	공간의 유연성	공간이 프로그램 진행 시 유연하게 대처 가능한가?
5		이용자의 적응 용이성	가변적 구조변경 시 이용자가 적응하기 용이한가?
6		공간 안정감	도서관에서 라키비움으로 변화된 공간이 안정감을 주는가?
7		공간 이용 집중도	공간을 이용할 때 집중도가 높은가?
8	접근성	지속가능한 공간환경	시간의 변화에 따라 지속가능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가?
9		물리적 도달 용이성	물리적 환경이나 수단을 활용하여 도달하기 쉬운가?
10		심리적 접근 용이성	심리적인 접근이 용이한가?
11		방문객 유입 촉진	방문객들의 유입을 촉진하는가?
12		공간 간의 유기적 구성	공간 간의 유기적인 구성이 이루어졌는가?
13	다양성	신속한 정보취합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취합할 수 있는 공간 구성인가?
14		정보제공 공간의 다양성	정보제공을 위한 공간이 다양한가?
15		공간별 활용 다양성	공간별 활용방식이 다양한가?
16	상호 작용성	선택적 공간 이용	사용자의 선택적 공간 이용이 가능한가?
17		내·외부 공간의 상호작용	내·외부 공간이 상호작용하는가?
18		공간 간 융합	라키비움 내 공간들이 잘 융합되었는가?
19		휴식커뮤니티 공간 형성	휴식 및 커뮤니티 공간이 형성되어있는가?
20	쾌적성	쌍방향적 정보교류	공간과 이용자의 쌍방향적 정보교류가 가능한가?
21		심미적 가치 제공	심미적 가치를 제공하는가?
22		공간-사용자 간 인터페이스	도서, 박물관, 구조물등과 사용자 간의 인터페이스가 적절히 조성되었는가?
23		자료 보존 환경	자료 보존을 위한 충분한 환경이 조성되었는가?
24		친환경적 공간 조성	친환경적 공간이 조성되었는가?
25		안정감 향유	심리적·정서적 안정감을 취할 수 있는가?
26	유연성	사용자의 참여 촉진	문화적 환경으로 사용자의 참여를 촉진하는가?
27		다목적 공간사용 가능성	사용자에 따라 다목적으로 사용 가능한가?
28		상황에 따른 공간 대응	공간이 상황에 따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가?
29		공간 내 확장감 부여	공간 내 확장감을 부여하였는가?
30		가변적 구조 형성	용도에 맞는 가변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가?
31	정보환경 변화 대응	정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가?	

설문 구성에서 쌍대비교 문항과 척도의 설명 예시는 <표 4-35>이고, 각 평가항목 간의 쌍대비교에 사용되는 비교의 척도는 양쪽의 중요도가 동등한 척도1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2점부터 5점까지 상대적으로 중요한 응답자의 주관적인 점수를 수치화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쌍대비교의 5점까지 비율척도는 <표 4-36>과 같다.

[표 4-35] 쌍대비교 문항과 척도 설명 예시

상대평가항목 (왼쪽 평가항목)	상대적 중요도									상대평가항목 (오른쪽 평가항목)
	왼쪽 평가항목이 더 중요함			양쪽의 중요도가 비슷함			오른쪽 평가항목이 더 중요함			
	5	4	3	2	1	2	3	4	5	
필수 공간 구비	5	4	3	2	1	2	3	4	5	공간기능의 효율성
필수 공간 구비	5	4	3	2	1	2	3	4	5	충분한 공간 확보
공간기능의 효율성	5	4	3	2	1	2	3	4	5	충분한 공간 확보

[표 4-36] AHP 기법 쌍대비교 척도의 설명

척도	해석
1	2개의 요인이 동등하게(Equal) 중요함
2	어느 한 쪽이 약간(Weak) 중요함
3	어느 한 쪽이 조금 더(Moderately) 중요함
4	어느 한 쪽이 강하게(Strongly) 중요함
5	어느 한 쪽이 매우 강하게(Very Strongly) 중요함

(2) 자료 수집 및 분석

사전 연구를 통해 도출된 공간평가 항목을 바탕으로, 각 항목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정하기 위해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는 2021년 6월 4일부터 6월 9일(5일간)까지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1:1 면접 조사와 온라인 설문을 하였으며, 응답 회신율은 100% 기록하였다.

[표 4-37] 전문가 AHP 설문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명	전문가 대상 공간평가 항목에 대한 AHP 중요도 조사
조사 목적	대학도서관의 라키비움 도입을 위한 공간평가의 항목에 대한 전문가의 중요도 평가를 통해 그 유의미성과 유용성을 검증
조사 대상	공간디자인, 공공디자인 등을 전공한 관련 분야 전문가 50명
조사 기간	2021년 6월 4일 ~ 6월 9일
조사 내용	쌍대비교를 통해 평가지표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5점 척도로 선택
유효 표본	50부(회수율 100%)

전문가 AHP 설문조사 응답자는 총 50명이며, 남자 28명(56.0%), 여자 22명(44.0%)이 응답하였다. 연령대별로는 20대 1명(2.0%), 30대 19명(38.0%), 40대 25명(50.0%), 50대 4명(8.0%), 60대 이상 1명(2.0%)이며, 학력은 대학-석사 재학 10명(20.0%), 석사 16명(32.0%), 박사 재학 5명(10.0%), 박사수료 9명(18.0%), 박사 10명(20.0%)으로 나타났다. 전공은 공간디자인이 32명(64.0%)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산업디자인 8명(16.0%), 공공디자인·시각디자인 각 5명(10.0%)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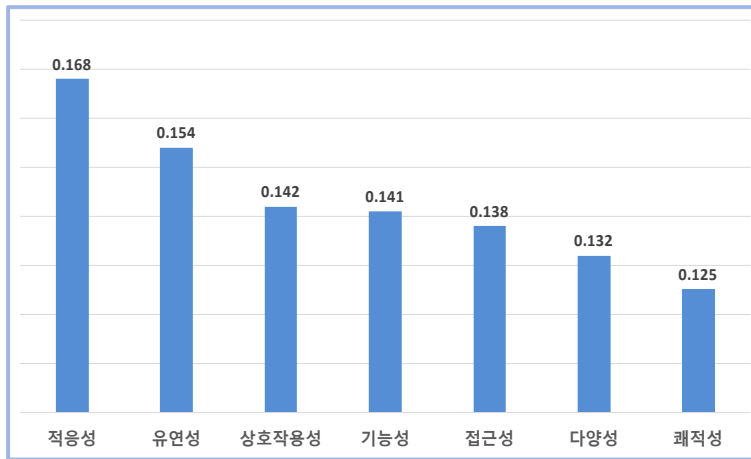
[표 4-38] AHP 응답자 기본 특성

구분	응답 수(명)	비율(%)	
성별	남자	28	56.0
	여자	22	44.0
연령대	20대	1	2.0
	30대	19	38.0
	40대	25	50.0
	50대	4	8.0
	60대 이상	1	2.0
	전공	공간디자인	32
공공디자인		5	10.0
산업디자인		8	16.0
시각디자인		5	10.0
학력	대학-석사 재학	10	20.0
	석사	16	32.0
	박사 재학	5	10.0
	박사수료	9	18.0
	박사	10	20.0

4.4.3 AHP 설문조사 결과

(1) 라키비움 공간평가 지표 평가항목의 상대적 중요도

<표 4-39>는 라키비움 공간평가 전체 영역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우선순위)이며, 공간 특성 평가항목의 중요도는 적응성(0.168) > 유연성(0.154) > 상호작용성(0.142) > 기능성(0.141) > 접근성(0.138) > 다양성(0.132) > 쾌적성(0.125) 순으로 나타났고 일관성 비율은 0.067로 나타났다. 이는 1차 중요도 조사와 FGI 전문가 심층 인터뷰의 결과와도 같이 적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나타났는데 라키비움 도입을 위한 공간평가 시 전문가들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성과 안정감, 집중도 등 적응성 항목을 우선적으로 중요한 항목으로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13] 평가항목 영역의 AHP 중요도

[표 4-39] 평가항목 가중치 표준화 및 평균

요소명	기능성	적응성	접근성	다양성	상호작용성	쾌적성	유연성	(중요도)
기능성	0.102	0.107	0.169	0.164	0.158	0.145	0.145	0.141
적응성	0.210	0.129	0.221	0.164	0.169	0.140	0.140	0.168
접근성	0.132	0.135	0.105	0.156	0.147	0.145	0.145	0.138

(계속)

[표 4-39] (계속)

요소명	기능성	적응성	접근성	다양성	상호작용성	쾌적성	유연성	(중요도)
다양성	0.128	0.153	0.121	0.099	0.134	0.146	0.146	0.132
상호작용성	0.141	0.154	0.124	0.138	0.105	0.167	0.167	0.142
쾌적성	0.132	0.160	0.103	0.130	0.145	0.104	0.104	0.125
유연성	0.156	0.163	0.158	0.149	0.142	0.155	0.155	0.154

[표 4-40] 평가항목 신뢰성(일관성)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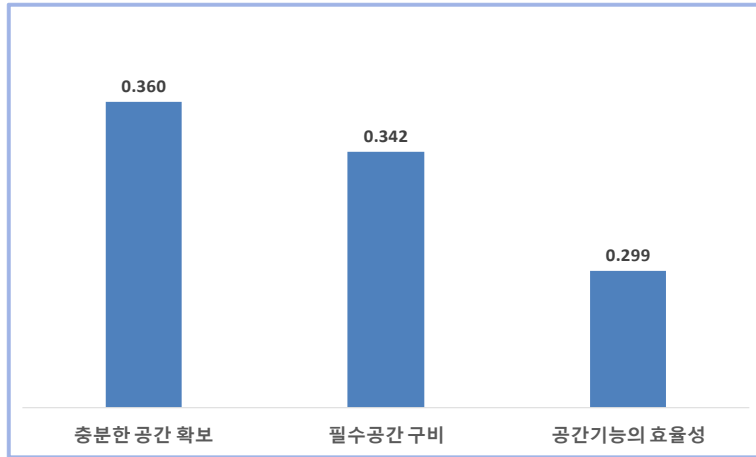
요소명	중요도(A)	행렬의 곱(B)	일관성 측도(B/A)	일관성 지수
기능성	0.141	1.097	7.780	0.130
적응성	0.168	1.277	7.601	0.100
접근성	0.138	1.003	7.268	0.046
다양성	0.132	0.955	7.235	0.039
상호작용성	0.142	1.060	7.465	0.077
쾌적성	0.125	1.004	8.032	0.172
유연성	0.154	1.123	7.292	0.049

[표 4-41] 평가항목 일관성

일관성 평균(CI)	일관성 비율(CR)
0.088	0.067

(2) ‘기능성’ 세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표 4-42>는 전체 평가항목 가운데 기능성의 세부지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우선순위)이며, 기능성의 세부지표 중요도는 충분한 공간 확보(0.360) > 필수 공간 구비(0.342) > 공간기능의 효율성(0.299) 순으로 나타났고 일관성 비율은 0.016으로 나타났다. 이는 라키비움의 특성상 라키비움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충분한 공간 확보가 우선적으로 중요시되고 필수공간의 확보와 공간 각각의 기능이 효율적인지를 순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림 4-14] 기능성 세부지표의 AHP 중요도

[표 4-42] 기능성 세부지표 가중치 표준화 및 평균

요소명	필수공간 구비	공간기능의 효율성	충분한 공간 확보	(중요도)
필수공간 구비	0.299	0.365	0.364	0.342
공간기능의 효율성	0.318	0.239	0.338	0.299
충분한 공간 확보	0.386	0.396	0.298	0.360

[표 4-43] 기능성 세부지표 신뢰성(일관성) 검증

요소명	중요도(A)	행렬의 곱(B)	일관성 측도(B/A)	일관성 지수
필수공간 구비	0.342	1.029	3.009	0.005
공간기능의 효율성	0.299	0.908	3.037	0.019
충분한 공간 확보	0.360	1.082	3.006	0.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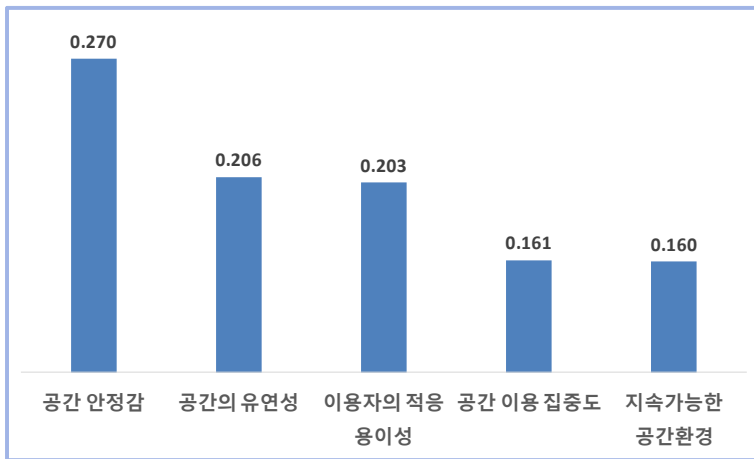
[표 4-44] 기능성 세부지표 일관성

일관성 평균(CI)	일관성 비율(CR)
0.009	0.016

(3) ‘적응성’ 세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표 4-45>는 전체 평가항목 가운데 적응성의 세부지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우선순위)이며, 적응성의 세부지표 중요도는 공간 안정감(0.270) > 공간의 유연성(0.206) > 이용자의 적응 용이성(0.203) > 공간 이용 집중도(0.161) > 지속가능한 공간환경(0.160) 순으로 나타났다. 일관성 비율은 0.039로 나타났다. 적응성 항목은 1차 조사와 FGI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조사되었는데 일반도서관에서 라키비움으로 변화되었을 때 이 공간과 사용자가 함께 어울리면서 사용자에게 안정감을 얼마나 주어서 평안한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항목임을 알 수 있다.

공간 내 프로그램 진행과 변경 시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한지 공간의 유연성 지표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는데 기존의 도서관이나 기록관, 박물관의 각각 구별되는 고유 특성의 공간이 효율적인지, 사용자에게 혼란을 주는지 잘 적응할 수 있는지에 적응성의 초점이 맞춰지고 공간계획 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으로 나타났다.



[그림 4-15] 적응성 세부지표의 AHP 중요도

[표 4-45] 적응성 세부지표 가중치 표준화 및 평균

요소명	공간의 유연성	이용자의 적응 용이성	공간 안정감	공간 이용 집중도	지속가능한 공간환경	(중요도)
공간의 유연성	0.167	0.236	0.234	0.189	0.201	0.206
이용자의 적응 용이성	0.207	0.173	0.214	0.199	0.223	0.203
공간 안정감	0.268	0.272	0.236	0.319	0.255	0.270
공간 이용 집중도	0.183	0.161	0.131	0.134	0.196	0.161
지속가능한 공간환경	0.175	0.158	0.185	0.159	0.124	0.160

[표 4-46] 적응성 세부지표 신뢰성(일관성) 검증

요소명	중요도(A)	행렬의 곱(B)	일관성 척도(B/A)	일관성 지수
공간의 유연성	0.206	1.076	5.223	0.056
이용자의 적응 용이성	0.203	1.020	4.966	0.006
공간 안정감	0.270	1.396	5.170	0.043
공간 이용 집중도	0.161	0.843	5.236	0.059
지속가능한 공간환경	0.160	0.835	5.219	0.0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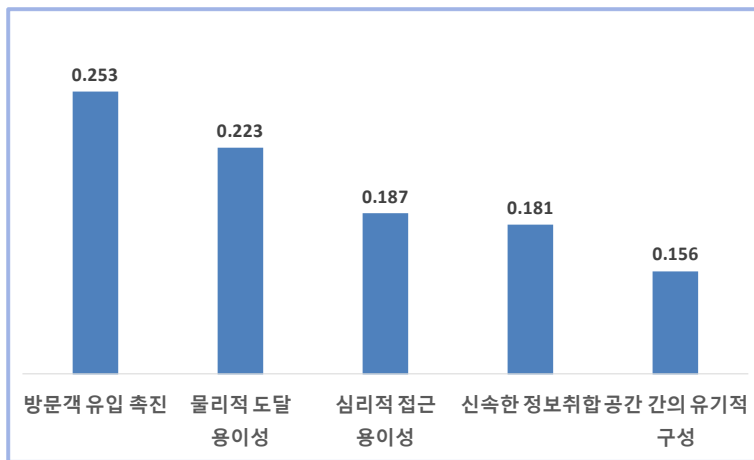
[표 4-47] 적응성 세부지표 일관성

일관성 평균(CI)	일관성 비율(CR)
0.044	0.039

(4) ‘접근성’ 세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표 4-48>은 전체 평가항목 가운데 접근성의 세부지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우선순위)이며, 접근성의 세부지표 중요도는 방문객 유입 촉진(0.253) > 물리적 도달 용이성(0.223) > 심리적 접근 용이성(0.187) > 신속한 정보취합(0.181) > 공간 간의 유기적 구성(0.156) 순으로 나타났다. 일관성 비율은 0.043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간적으로 사용되는 지점과 밀접한 상호 연관성이 생기는 것으로 시설의 복합적인 성질을 고려하여 사회구성원 중 잠재방문객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공간적 구성이 매우 중요함을 나타낸다. 공간들의 복합화에 있어서 방문객의 심리적인 접근이 용이하다는 느낌을 받게 하여 자발적으로 접근을 유도하고 시설이용의 편의와 만족을 끌어낼 수 있는 유입·매개 요소의 공간적 적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16] 접근성 세부지표의 AHP 중요도

[표 4-48] 접근성 세부지표 가중치 표준화 및 평균

요소명	물리적 도달 용이성	심리적 접근 용이성	방문객 유입 촉진	공간 간의 유기적 구성	신속한 정보취합	(중요도)
물리적 도달 용이성	0.173	0.248	0.262	0.207	0.224	0.223
심리적 접근 용이성	0.196	0.155	0.196	0.187	0.199	0.187
방문객 유입 촉진	0.249	0.259	0.218	0.292	0.249	0.253
공간 간의 유기적 구성	0.182	0.151	0.130	0.130	0.188	0.156
신속한 정보취합	0.200	0.187	0.194	0.184	0.141	0.181

[표 4-49] 접근성 세부지표 신뢰성(일관성)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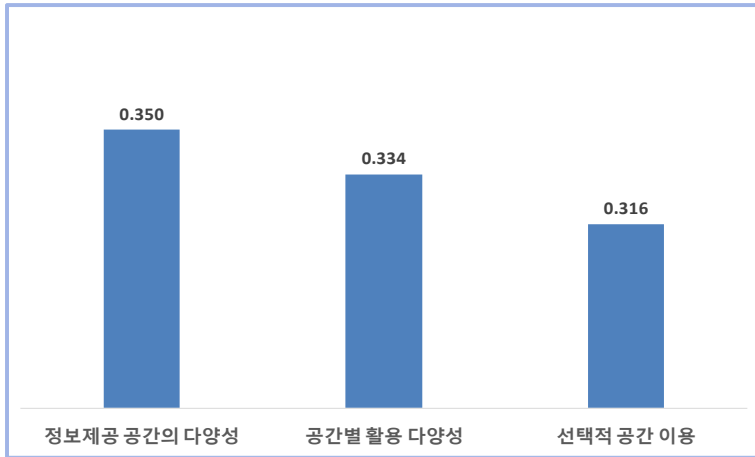
요소명	중요도(A)	행렬의 곱(B)	일관성 척도(B/A)	일관성 지수
물리적 도달 용이성	0.223	1.142	5.121	0.030
심리적 접근 용이성	0.187	0.951	5.086	0.021
방문객 유입 촉진	0.253	1.318	5.209	0.052
공간 간의 유기적 구성	0.156	0.828	5.308	0.077
신속한 정보취합	0.181	0.947	5.232	0.058

[표 4-50] 접근성 세부지표 일관성

일관성 평균(CI)	일관성 비율(CR)
0.048	0.043

(5) ‘다양성’ 세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표 4-51>은 전체 평가항목 가운데 다양성의 세부지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우선순위)이며, 다양성의 세부지표 중요도는 정보제공 공간의 다양성(0.350) > 공간별 활용 다양성(0.334) > 선택적 공간 이용(0.316) 순으로 나타났다. 일관성 비율은 0.021로 나타났다. 라키비움도입에 있어 정보제공 공간의 다양성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라키비움 공간을 표현하기 위함은 바로 정보제공 공간의 다양성과 직결되어있다. 놀이와 학습, 일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단일화될 수 있는 공간, 현실과 이상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 다양성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간별 활용의 다양성은 시설의 다양함을 내포하고 있고 선택적 공간 이용도 다양한 공간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이런 공간들 내에서의 다양한 만남은 정보와 정보의 만남, 정보와 이용자의 만남 등의 장을 마련하여 또 다른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정보광장의 구축 마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4-17] 다양성 세부지표의 AHP 중요도

[표 4-51] 다양성 세부지표 가중치 표준화 및 평균

요소명	정보제공 공간의 다양성	선택적 공간 이용	공간별 활용 다양성	(중요도)
정보제공 공간의 다양성	0.305	0.369	0.376	0.350
선택적 공간 이용	0.336	0.292	0.320	0.316
공간별 활용 다양성	0.360	0.339	0.303	0.334

[표 4-52] 다양성 세부지표 신뢰성(일관성)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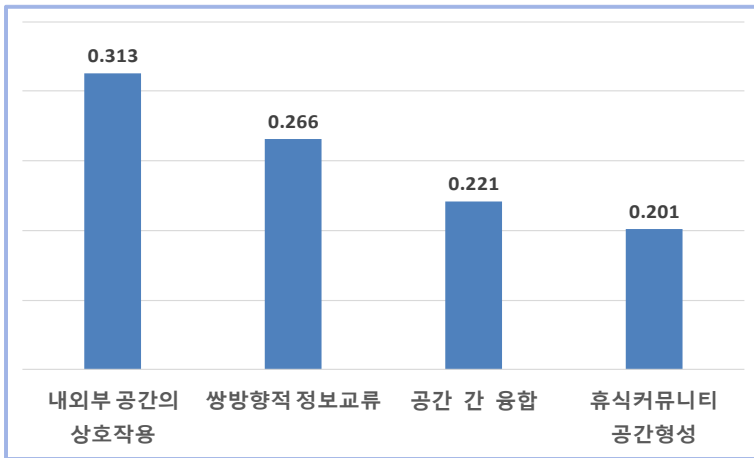
요소명	중요도(A)	행렬의 곱(B)	일관성 척도(B/A)	일관성 지수
정보제공 공간의 다양성	0.350	1.051	3.003	0.001
선택적 공간 이용	0.316	0.954	3.019	0.009
공간별 활용 다양성	0.334	1.020	3.054	0.027

[표 4-53] 다양성 세부지표 일관성

일관성 평균(CI)	일관성 비율(CR)
0.012	0.021

(6) '상호작용성' 세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표 4-54〉는 전체 평가항목 가운데 상호작용성의 세부지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우선순위)이며, 상호작용성의 세부지표 중요도는 내외부 공간의 상호작용(0.313) > 쌍방향적 정보교류(0.266) > 공간 간 융합(0.221) > 휴식커뮤니티 공간형성(0.201) 순으로 나타났다. 일관성 비율은 0.048로 나타났다. 상호작용은 인간과 인간의 상호작용뿐 아니라 인간과 건축물의 네트워크와도 같다. 주위 환경이나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변하는 상호작용적인 공간으로, 내·외부 공간의 상호 침투성으로 인한 공간의 동시적 지각으로 인해 공간 간의 비 경계성이 공간의 상호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림 4-18] 상호작용성 세부지표의 AHP 중요도

[표 4-54] 상호작용성 세부지표 가중치 표준화 및 평균

요소명	내외부 공간의 상호작용	공간 간 융합	휴식커뮤니티 공간형성	쌍방향적 정보교류	(중요도)
내외부 공간의 상호작용	0.247	0.345	0.326	0.333	0.313
공간 간 융합	0.239	0.190	0.218	0.236	0.221
휴식커뮤니티 공간형성	0.226	0.205	0.171	0.201	0.201
쌍방향적 정보교류	0.288	0.261	0.285	0.231	0.266

[표 4-55] 상호작용성 세부지표 신뢰성(일관성)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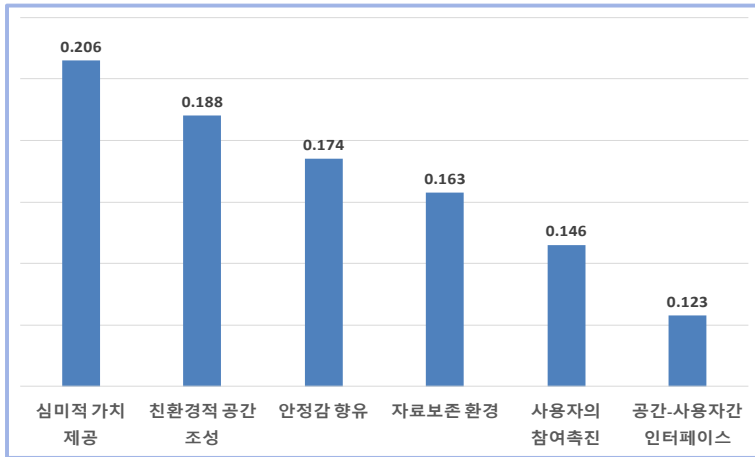
요소명	중요도(A)	행렬의 곱(B)	일관성 측도(B/A)	일관성 지수
내외부 공간의 상호작용	0.313	1.263	4.035	0.012
공간 간 융합	0.221	0.917	4.149	0.050
휴식커뮤니티 공간형성	0.201	0.840	4.179	0.060
쌍방향적 정보교류	0.266	1.102	4.143	0.048

[표 4-56] 상호작용성 세부지표 일관성

일관성 평균(CI))	일관성 비율(CR)
0.043	0.048

(7) ‘쾌적성’ 세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표 4-57>은 전체 평가항목 가운데 쾌적성의 세부지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우선순위)이며, 쾌적성의 세부지표 중요도는 심미적 가치 제공(0.206) > 친환경적 공간조성(0.188) > 안정감 향유(0.174) > 자료 보존 환경(0.163) > 사용자의 참여 촉진(0.146) > 공간-사용자 간 인터페이스(0.123) 순으로 나타났다. 일관성 비율은 0.054로 나타났다. 공간을 볼 때 사용자의 편리성도 중요하지만, 심미적 가치를 제공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간사용자에게 매우 큰 만족도를 나타내게 한다. 심미적 가치제공과 친환경적인 공간조성 등이 사용자에게 안정감을 향유하게 하고 나아가 사용자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19] 쾌적성 세부지표의 AHP 중요도

[표 4-57] 쾌적성 세부지표 가중치 표준화 및 평균

요소명	심미적 가치 제공	공간-사용자 간 인터페이스	자료 보존 환경	친환경적 공간 조성	안정감 향유	사용자의 참여 촉진	(중요도)
심미적 가치 제공	0.169	0.231	0.221	0.217	0.205	0.192	0.206
공간-사용자 간 인터페이스	0.123	0.109	0.119	0.138	0.121	0.130	0.123
자료 보존 환경	0.169	0.161	0.128	0.180	0.176	0.162	0.163
친환경적 공간 조성	0.193	0.171	0.203	0.154	0.195	0.213	0.188
안정감 향유	0.178	0.177	0.191	0.168	0.148	0.181	0.174
사용자의 참여 촉진	0.169	0.152	0.138	0.142	0.154	0.123	0.146

[표 4-58] 쾌적성 세부지표 신뢰성(일관성) 검증

요소명	중요도(A)	행렬의 곱(B)	일관성 척도(B/A)	일관성 지수
심미적 가치 제공	0.206	1.310	6.360	0.072
공간-사용자 간 인터페이스	0.123	0.794	6.460	0.091
자료 보존 환경	0.163	1.011	6.202	0.040
친환경적 공간 조성	0.188	1.164	6.191	0.038
안정감 향유	0.174	1.083	6.224	0.045
사용자의 참여 촉진	0.146	0.912	6.247	0.0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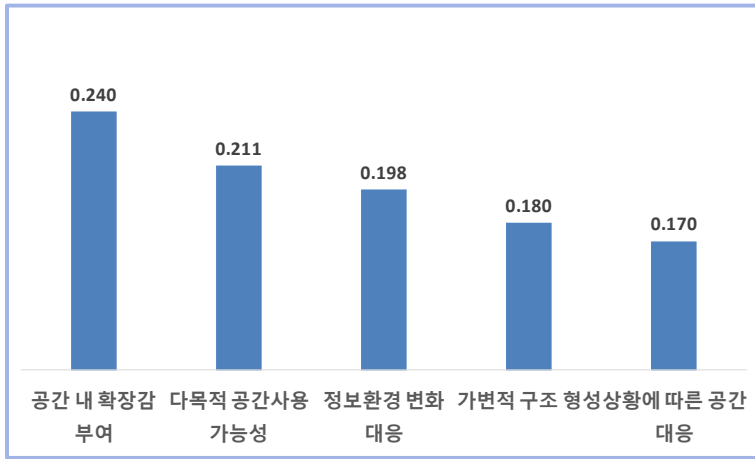
[표 4-59] 쾌적성 세부지표 일관성

일관성 평균(CI)	일관성 비율(CR)
0.067	0.054

(8) ‘유연성’ 세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표 4-60>은 전체 평가항목 가운데 유연성의 세부지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우선순위)이며, 유연성의 세부지표 중요도는 공간 내 확장감 부여(0.240) > 다목적 공간사용 가능성(0.211) > 정보환경 변화 대응(0.198) > 가변적 구조 형성(0.180) > 상황에 따른 공간 대응(0.170) 순으로 나타났다. 일관성 비율은 0.042로 나타났다.

라키비움의 도입으로 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이러한 공간들이 진화되어 가면서 새로운 공간에 적용되고 이러한 공간에서의 유연성은 또 다른 상황에 맞게 변화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20] 유연성 세부지표의 AHP 중요도

[표 4-60] 유연성 세부지표 가중치 표준화 및 평균

요소명	다목적 공간사용 가능성	상황에 따른 공간 대응	공간 내 확장감 부여	가변적 구조 형성	정보환경 변화 대응	(중요도)
다목적 공간사용 가능성	0.169	0.254	0.200	0.215	0.216	0.211
상황에 따른 공간 대응	0.143	0.153	0.203	0.173	0.181	0.170
공간 내 확장감 부여	0.285	0.228	0.205	0.245	0.237	0.240
가변적 구조 형성	0.195	0.171	0.174	0.156	0.207	0.180
정보환경 변화 대응	0.208	0.194	0.219	0.211	0.160	0.198

[표 4-61] 유연성 세부지표 신뢰성(일관성) 검증

요소명	중요도(A)	행렬의 곱(B)	일관성 척도(B/A)	일관성 지수
다목적 공간사용 가능성	0.211	1.091	5.171	0.043
상황에 따른 공간 대응	0.170	0.891	5.241	0.060
공간 내 확장감 부여	0.240	1.220	5.083	0.020
가변적 구조 형성	0.180	0.936	5.200	0.050
정보환경 변화 대응	0.198	1.039	5.247	0.062

[표 4-62] 유연성 세부지표 일관성

일관성 평균(CI)	일관성 비율(CR)
0.047	0.042

4.4.4 연구 결과 및 지표 우선순위 종합

AHP 분석기법을 이용한 공간평가지표의 중요도 분석을 위하여 전문가 대상 설문 실시한 내용은 <표 4-63> AHP 결과종합 표에 정리하였다.

전체 평가항목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는 공간 특성의 7가지 중 적응성(0.168) > 유연성(0.154) > 상호작용성(0.142) > 기능성(0.141) > 접근성(0.138) > 다양성(0.132) > 쾌적성(0.125)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이는 1차로 실시한 중요도 순위에서 적응성 1위와 같게 나타났다.

세부지표의 전체 우선순위를 보면 충분한 공간확보(1위), 필수 공간 구비(2위), 정보제공 공간의 다양성(3위), 공간 안정감(4위), 내외부 공간의 상호작용(5위), 선택적 공간 이용(6위), 공간 내 확장감 부여(7위)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도서관의 라키비움 도입 공간평가체계의 항목 중 공간계획이나 공간설계를 발전시키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지표들로서 필수공간 확보와 구비, 정보제공을 위한 다양한 공간과 그 공간이 주는 안정감, 이러한 공간들을 선택적으

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공간 내 가변성을 기본으로 한 확장감을 부여하여 실질적으로 공간을 사용하는 방향의 평가 세부지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쾌적성의 지표들은 공간-사용자 간의 인터페이스, 자료 보존 환경, 친환경적 공간조성, 안정감 향유 등과 같은 지표를 포함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가중치가 낮아 공간설계 이후 진행되는 환경적인 측면보다, 공간의 계획이나 설계 시 공간확보나 공간구성이 평가체계에서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표 4-63] AHP 결과 종합

연번	공간 특성	세부 지표	가중치			영역 내 우선순위	전체 우선순위
			영역별 중요도 (순위)	세부지표 중위 표	복합중요도		
1	가능성	필수 공간 구비	0.141 (4위)	0.342	0.048	(2)	(2)
2		공간기능의 효율성		0.299	0.042	(3)	(8)
3		충분한 공간 확보		0.360	0.051	(1)	(1)
4	적응성	공간의 유연성	0.168 (1위)	0.206	0.035	(2)	(12)
5		이용자의 적응 용이성		0.203	0.034	(3)	(13)
6		공간 안정감		0.270	0.045	(1)	(4)
7		공간 이용 집중도		0.161	0.027	(4)	(19)
8	접근성	지속가능한 공간환경	0.138 (5위)	0.160	0.027	(5)	(20)
9		물리적 도달 용이성		0.223	0.031	(2)	(16)
10		심리적 접근 용이성		0.187	0.026	(3)	(22)
11		방문객 유입 촉진		0.253	0.035	(1)	(11)
12	다양성	공간 간의 유기적 구성	0.132 (6위)	0.156	0.022	(5)	(28)
13		신속한 정보취합		0.181	0.025	(4)	(24)
14		정보제공 공간의 다양성		0.350	0.046	(1)	(3)
15	상호 작용성	공간별 활용 다양성	0.142 (3위)	0.316	0.042	(3)	(9)
16		선택적 공간 이용		0.334	0.044	(2)	(6)
17	쾌적성	내외부 공간의 상호작용	0.125 (7위)	0.313	0.044	(1)	(5)
18		공간 간 융합		0.221	0.031	(3)	(15)
19		휴식커뮤니티 공간 형성		0.201	0.029	(4)	(18)
20	유연성	쌍방향적 정보교류	0.154 (2위)	0.266	0.038	(2)	(10)
21		심미적 가치 제공		0.206	0.026	(1)	(23)
22		공간-사용자 간 인터페이스		0.123	0.015	(6)	(31)
23		자료 보존 환경		0.163	0.020	(4)	(29)
24		친환경적 공간 조성		0.188	0.024	(2)	(25)
25		안정감 향유		0.174	0.022	(3)	(27)
26	유연성	사용자의 참여 촉진	0.154 (2위)	0.146	0.018	(5)	(30)
27		다목적 공간사용 가능성		0.169	0.026	(4)	(21)
28		상황에 따른 공간 대응		0.143	0.022	(5)	(26)
29		공간 내 확장감 부여		0.285	0.044	(1)	(7)
30		가변적 구조 형성		0.195	0.030	(3)	(17)
31		정보환경 변화 대응	0.208	0.032	(2)	(14)	

주: 중요도 값이 같은 경우 소수점 셋째 이상 자리까지 포함하여 우선순위 책정

4.4.5 평가지표 점수화

(1) 평가항목별 변환점수 계산

중요도와 가중치 분석이 완료된 지표들을 평가에 활용하기 위하여 점수화하였다. 평가영역 간 변환점수를 100점을 기준으로 하여 도출한 결과표는 <표 4-64>와 같이 적응성 항목에 가장 높은 17점의 점수가 결정되었으며 다양성과 쾌적성이 13점으로 가장 적은 점수가 배점되었다.

[표 4-64] 평가항목별 변환점수

평가영역	가중치	수식	변환점수
기능성	0.141	0.141×100	14.0
적응성	0.168	0.168×100	17.0
접근성	0.138	0.138×100	14.0
다양성	0.132	0.132×100	13.0
상호작용성	0.142	0.142×100	14.0
쾌적성	0.125	0.125×100	13.0
유연성	0.154	0.154×100	15.0
총계	1.000	-	100.0

(2) 기능성 항목

기능성 항목은 14.0점을 기준으로 충분한 공간확보가 5.1점, 필수공간구비가 4.8점, 공간기능의 효율성이 4.2점으로 변환되었다.

[표 4-65] 기능성 세부항목 변환점수

세부항목	가중치	수식	변환점수
필수공간구비	0.342	0.342×14.0	4.8
공간기능의 효율성	0.299	0.299×14.0	4.2
충분한 공간확보	0.360	0.360×14.0	5.1
총 계	1.000	-	14.0(14.1)

(3) 적응성 항목

적응성 항목은 17.0점을 기준으로 공간 안정감이 4.6점, 공간의 유연성과 이용자 적응 용이성 3.5점, 공간 이용 집중도와 지속가능한 공간환경이 2.7점으로 변환되었다.

[표 4-66] 적응성 세부항목 변환점수

세부항목	가중치	수식	변환점수
공간의 유연성	0.206	0.206×17.0	3.5
이용자의 적응 용이성	0.203	0.203×17.0	3.5
공간 안정감	0.270	0.270×17.0	4.6
공간 이용 집중도	0.161	0.161×17.0	2.7
지속가능한 공간환경	0.160	0.160×17.0	2.7
총 계	1.000	-	17.0

(4) 접근성 항목

접근성 항목은 14.0점을 기준으로 방문객 유입촉진 3.5점, 물리적 도달 용이성 3.1점, 심리적 접근 용이성 2.6점, 신속한 정보취합 2.5점, 공간 간의 유기적 구성이 2.2점으로 변환되었다.

[표 4-67] 접근성 세부항목 변환점수

세부항목	가중치	수식	변환점수
물리적 도달 용이성	0.223	0.223×14.0	3.1
심리적 접근 용이성	0.187	0.187×14.0	2.6
방문객 유입 촉진	0.253	0.253×14.0	3.5
공간 간의 유기적 구성	0.156	0.156×14.0	2.2
신속한 정보취합	0.181	0.181×14.0	2.5
총 계	1.000	-	14.0

(5) 다양성 항목

다양성 항목은 13.0점을 기준으로 정보제공공간의 다양성 4.6점, 공간별 활용 다양성 4.3점, 선택적 공간 이용 4.1점으로 변환되었다.

[표 4-68] 다양성 세부항목 변환점수

세부항목	가중치	수식	변환점수
정보제공공간의 다양성	0.350	0.350×13.0	4.6
선택적 공간 이용	0.316	0.316×13.0	4.1
공간별 활용 다양성	0.334	0.334×13.0	4.3
총 계	1.000	-	13.0

(6) 상호작용성 항목

상호작용성 항목은 14.0점을 기준으로 내·외부 공간의 상호작용 4.4점, 쌍방향적 정보교류 3.7점, 공간 간 융합 3.1점, 휴식커뮤니티 공간형성 2.8점으로 변환되었다.

[표 4-69] 상호작용성 세부항목 변환점수

세부항목	가중치	수식	변환점수
내외부 공간의 상호작용	0.313	0.313×14.0	4.4
공간 간 융합	0.221	0.221×14.0	3.1
휴식커뮤니티 공간형성	0.201	0.201×14.0	2.8
쌍방향적 정보교류	0.266	0.266×14.0	3.7
총 계	1.000	-	14.0

(7) 쾌적성 항목

쾌적성 항목은 13.0점을 기준으로 심미적 가치제공과 안정감 향유가 2.7점으로 동일하고 친환경적 공간조성이 2.4점, 자료 보존 환경이 2.1점, 사용자의 참여 촉진 1.9점, 공간-사용자 간 인터페이스 1.6점으로 변환되었다.

[표 4-70] 쾌적성 세부항목 변환점수

세부항목	가중치	수식	변환점수
심미적 가치 제공	0.206	0.206×13.0	2.7
공간사용자 간 인터페이스	0.123	0.123×13.0	1.6
자료 보존 환경	0.163	0.163×13.0	2.1
친환경적 공간 조성	0.188	0.188×13.0	2.4
안정감 향유	0.174	0.174×13.0	2.7
사용자의 참여 촉진	0.146	0.146×13.0	1.9
총 계	1.000	-	13.0(13.4)

(8) 유연성 항목

유연성 항목은 15.0점을 기준으로 공간 내 확장감 부여 4.3점, 정보환경 변화 대응 3.1점, 가변적 구조형성 2.9점, 다목적 공간사용 가능성 2.5점, 상황에 따른 공간 대응 2.1점으로 변환되었다.

[표 4-71] 유연성 세부항목 변환점수

세부항목	가중치	수식	변환점수
다목적 공간사용 가능성	0.169	0.169×15.0	2.5
상황에 따른 공간 대응	0.143	0.143×15.0	2.1
공간 내 확장감 부여	0.285	0.285×15.0	4.3
가변적 구조 형성	0.195	0.195×15.0	2.9
정보환경 변화 대응	0.208	0.208×15.0	3.1
총 계	1.000	-	15.0(14.9)

4.4.6 최종 공간평가지표의 가중치 개발

앞에서 도출된 변환점수와 가중치를 이용하여 최종적인 평가지표가 <표 4-72>와 같이 도출되었으며 종합점수를 100점 기준으로 하여 평가지표들은 5점 척도인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으로 설정하여 평가하고자 하였고 그에 따른 공간평가 평가점수표 계산식은 아래 <그림 4-21> 과 같다.

매우높음 환산점수 = 가중치를 이용한 변환점수
 높음 환산점수 = (4점 × 매우 양호 환산점수) / 5
 보통 환산점수 = (3점 × 매우 양호 환산점수) / 5
 낮음 환산점수 = (2점 × 매우 양호 환산점수) / 5
 매우낮음 환산점수 = (1점 × 매우 양호 환산점수) / 5

[그림 4-21] 공간평가 평가점수표 계산식

[표 4-72] 최종평가지표 항목별 가중치 종합 표

공간 특성	세부 지표	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낮음
기능성	필수 공간 구비	4.8	3.8	2.9	1.9	1.0
	공간기능의 효율성	4.2	3.4	2.5	1.7	0.8
	충분한 공간 확보	5.1	4.1	3.1	2.0	1.0
	총계	14.0	11.3	8.5	5.6	2.8
적응성	공간의 유연성	3.5	2.8	2.1	1.4	0.7
	이용자의 적응 용이성	3.5	2.1	2.1	1.4	0.7
	공간 안정감	4.6	3.7	2.8	1.8	0.9
	공간 이용 집중도	2.7	2.2	1.6	1.1	0.5
	지속가능한 공간환경	2.7	2.2	1.6	1.1	0.5
	총계	17.0	13	10.2	6.8	3.3
접근성	물리적 도달 용이성	3.1	2.5	1.9	1.2	0.6
	심리적 접근 용이성	2.6	2.1	1.6	1.0	0.5
	방문객 유입 촉진	3.5	2.8	2.1	1.4	0.7
	공간 간의 유기적 구성	2.2	1.8	1.3	0.9	0.4
	신속한 정보취합	2.5	2	1.5	1	0.5
	총계	14.0	11.2	8.4	5.5	2.7
다양성	정보제공 공간의 다양성	4.6	3.7	2.8	1.8	0.9
	공간별 활용 다양성	4.1	3.3	2.5	1.6	0.8
	선택적 공간 이용	4.3	3.4	2.6	1.7	0.9
	총계	13.0	10.4	7.9	5.1	2.6
상호 작용성	내외부 공간의 상호작용	4.4	3.5	2.6	1.8	0.9
	공간 간 융합	3.1	2.5	1.9	1.2	0.6
	휴식커뮤니티 공간 형성	2.8	2.2	1.7	1.1	0.6
	쌍방향적 정보교류	3.7	3.0	2.2	1.5	0.7
	총계	14.0	11.2	8.4	5.6	2.8
쾌적성	심미적 가치 제공	2.7	2.2	1.6	1.1	0.5
	공간-사용자 간 인터페이스	1.6	1.3	1.0	0.6	0.3
	자료 보존 환경	2.1	1.7	1.3	0.8	0.4
	친환경적 공간 조성	2.4	1.9	1.4	1.0	0.5
	안정감 향유	2.7	2.2	1.6	1.1	0.5
	사용자의 참여 촉진	1.9	1.5	1.1	0.8	0.4
	총계	13.0	10.8	8	5.4	2.6
	유연성	다목적 공간사용 가능성	2.5	2	1.5	1
상황에 따른 공간 대응		2.1	1.7	1.3	0.8	0.4
공간 내 확장감 부여		4.3	3.4	2.6	1.7	0.9
가변적 구조 형성		2.9	2.3	1.7	1.2	0.6
정보환경 변화 대응		3.1	2.5	1.9	1.2	0.6
총계		15.0	11.9	9	5.9	3
총 계		100	80.0	60.0	40.0	20.0

4.4.7 공간 특성 항목 평가함수 개발

본 연구의 [4.4.5 평가지표 점수화] 및 [4.4.6 최종 공간평가지표의 가중치 개발]에서 도출된 항목별 가중치를 바탕으로 하여 공간 특성 항목의 평가함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73] 공간 특성 항목 평가 함수

공간 특성 항목 평가 함수
$Total\ Score = \sum_{i=1}^k \sum_{j=1}^{m_i} \partial[(1 - 0.2n_{ij})a_{ij}, 2]$ <p> <i>k</i> = 공간항목(7개 영역) <i>m_i</i> = <i>i</i>번째 공간항목에 들어있는 세부지표의 개수 <i>n_{ij}</i> = 0(<i>i</i>번째 공간항목, <i>j</i>번째 세부항목에서 '매우 높음' 1(<i>i</i>번째 공간항목, <i>j</i>번째 세부지표에서 '높음' 2(<i>i</i>번째 공간항목, <i>j</i>번째 세부지표에서 '보통' 3(<i>i</i>번째 공간항목, <i>j</i>번째 세부지표에서 '낮음' 4(<i>i</i>번째 공간항목, <i>j</i>번째 세부지표에서 '매우 낮음' <i>a_{ij}</i> = <i>i</i>번째 공간항목, <i>j</i>번째 세부지표에서 '매우높음 환산점수' </p>

각 공간 특성 항목별 가중치에 따라 본 평가함수를 이용하여 평가점수를 측정할 수 있다. 공간 특성 항목은 기능성, 적응성, 접근성, 다양성, 상호작용성, 쾌적성, 유연성 등 7개 영역이다. 세부지표는 각 공간 특성이 갖는 세부항목을 말한다. 평가함수의 결과값은 수치화하여 공간 특성의 항목별, 세부지표별로 파악할 수 있으며, 본 함수식을 이용하면 공간 특성과 관련한 총평가점수를 도출할 수 있다.

4.5 소결

본 논문에서 제안된 평가모형의 평가대상은 전국의 모든 대학도서관과 대학 라키비움을 대상으로 하며 대학에서 라키비움 도입 시 공간구성과 계획에 활용하고, 대학 라키비움의 모든 공간을 다루어 대학 라키비움의 질적인 향상을 목표로 한다.

본 평가모형을 통해 대학 라키비움이, 도출된 공간 특성에 대한 기준을 얼마나 만족시키는가에 대해 분석 및 평가하고 이를 통해 라키비움의 향후 계획적 공간계획과 디자인 그리고 다양한 제도 반영을 기대할 수 있다.

평가는 재학생과 교직원, 지역민, 사서, 아키비스트, 큐레이터, 라키비움 공간 관련 담당자 등 모든 사용자이며 공간 관련 관리자 등이 주체가 되어 평가관리자에 의해 분석되며 위 결과들을 통해서 문제점과 개선점을 도출하여 더 개선된 공간을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유도한다.

제5장

평가 방법의 검증 및 분석

5.1 평가모형의 검증 공간 선정

5.2 평가 검증 분석

5.3 라키비움 공간평가 모형개발

5.4 소결

5장 평가 방법의 검증 및 분석

5.1 평가모형의 검증 공간 선정

5.1.1 공간 선정 기준

평가모형의 검증을 위한 검증 공간의 선정기준은 서울, 경기를 제외한 지방의 4년제 대학 중 재학생 수 10,000명 이상의 중규모 이상 대학이고 2010년 이후 도서관을 신축한 대학 내에서 선정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공간 평가를 통해 지방의 대학마다 갖추고 있는 도서관을 활성화해 경제적 효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역할의 증대 측면에 그 의미를 두고자 한다. 그중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내 University Library를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전주대학교 도서관은 전주대학교의 대표 랜드마크인 스타센터에 위치하고 있고 IT, 문화, 열람공간이 결합한 쾌적한 학습공간과 새로운 서비스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디지털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첨단 디지털 도서관이다. 2011년 신축 개관하였고 여러 기능을 포함한 복합건물이며 패키지 디바이스의 도입으로 단기간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하였다. 지식과 문화휴식 공간이 복합된 신개념 도서관으로 전통적 도서관 구역, 학습구역, 멀티미디어 구역, 스마트 구역, 특화구역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라키비움을 도입하였을 때 공간을 분할 사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5.1.2 선정 공간 구성

(1) 공간 특성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University Library는 대지의 토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고 인공·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기존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였으며, 보행 및 주차

공간의 분리, 중앙광장이 교내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안전한 보행 환경을 이루도록 계획되었다. 또한, 전체 캠퍼스환경과 조화되고 강의동과 편리하게 연결된 캠퍼스의 중심적 커뮤니티 공간으로 배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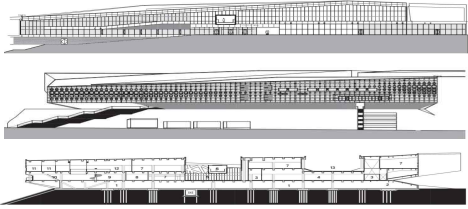





[표 5-1]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University Library 현황

명칭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University Library		
위치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개관 년도	2011년 5월 3일
설계자	아론 탄(Aaron TAN)	설계팀	(주)길 건축사 사무소 이길환
주요용도	교육 연구시설	건축면적	14,424㎡
연면적	24,976.㎡	구분	대학도서관, 복합커뮤니티
규모	B2 - 3F	구조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조
스타센터 BI	 STAR CENTER		

디자인 컨셉은 전주대학교 스타센터가 신세대 학생들의 감각에 부합되는 참신하고 생동감 넘치는 미래지향적 디자인을 향하여 디지털화, 지능화, 사회화로 종합적 문화공간으로 확충되도록 계획하는 것이 목표였다. 레벨이 각기 다른 4개의 각진입공간은, 공적 영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누구든 건물 내부를 거치지 않고 사방에서 진·출입 할 수 있도록 대중 순환(Public Circulation) 설계되었고 솔리드한 벽체의 각 창은 고정창이며 각각의 공간과 통하는 곳은 열릴 수 있게 되어있다. 환기를 위한 창, 채광을 위한 창, 돌출된 창, 크기가 점점 줄 거나 커지는 연속된 창들이 커다란 벽을 3차원적 다양한 파사드로 연출하고 있다.

(2) 공간 구성

[표 5-2]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University Library 공간 구성

구분	내용				
평면 도					
정면 배면 도					
공간구성					
도서관 구역	학습구역	멀티미디어 구역	스마트구역 U-pia	특화구역	
일반자료실 연속간행물실 고문서 자료실 서양서 자료 학위논문	그룹 스터디룸 자유 열람실 노트북 존	미디어밸리 소극장 e-Learning Zone 블루레이 감상 석	JJ Panorama Smart Table e-Newspaper e-Book e-Bible	기업정보 및 기증자료 취업 정보 자료실 기독교 자료 어린이영어도서관	
					

5.2 평가 검증 분석

5.2.1 표본 설정 및 조사

표본은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University Library의 관리관계자를 대상으로 우선 기본적인 인터뷰의 세부내용을 e-mai로 보내고 유선 설문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1년 5월 17일부터 5월 20일까지 총 4일간 실시하였고 6명의 관리관계자의 인터뷰 응답을 회신받았다.

인터뷰의 내용으로는 표 4-34 대학도서관의 라키비움도입을 위한 공간평가 항목 지표, 그리고 1차 전문가 중요도 조사의 내용을 통계 분석한 내용 중 전문가 심층 인터뷰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요도가 높고 표준편차가 낮은 항목을 특성별로 1문항씩 선정하여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공간평가 항목지표의 타당성과 향후 실제 라키비움 도입 시 공간계획에서의 활용도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는 데 의미가 있다. 공간평가자에게 제공된 공간평가 항목지표는 가중치 점수를 평가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5점 척도 안에서 선택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고 응답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의 표기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응답자 A, B, C, D, E, F로 표기하였다.

5.2.2 공간 평가 검증

평가지표를 검증하기 위한 설문조사의 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자 6명의 설문지 답변을 공간평가 점수로 나타내기 위해 체크하였고 오른쪽 값은 항목별 세부지표 평균값이다.

[표 5-3]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University Library 공간평가 결과

평가 항목	세부 지표 내용	평가자 A					평가자 B					평가자 C					평가자 D					평가자 E					평가자 F					평균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기능성 (3)	1				■					■					■					■					■					■					■		3.2
	2				■					■					■					■					■					■					■		3.2
	3			■						■					■					■					■					■					■		3.7
적응성 (5)	4			■						■					■					■					■					■					■		3.8
	5			■						■					■					■					■					■					■		3.2
	6				■					■					■					■					■					■					■		3.5
	7				■					■					■					■					■					■					■		3.8
	8				■					■					■					■					■					■					■		4
접근성 (5)	9				■					■					■					■					■					■					■		4.2
	10				■					■					■					■					■					■					■		4.2
	11				■					■					■					■					■					■					■		4.2
	12				■					■					■					■					■					■					■		3.8
	13				■					■					■					■					■					■					■		3.5
다양성 (3)	14				■					■					■					■					■					■					■		4.5
	15				■					■					■					■					■					■					■		4.3
	16				■					■					■					■					■					■					■		4.7
상호 작용성 (4)	17				■					■					■					■					■					■					■		4.2
	18				■					■					■					■					■					■					■		2.7
	19				■					■					■					■					■					■					■		4.3
	20				■					■					■					■					■					■					■		3.8
쾌적성 (6)	21				■					■					■					■					■					■					■		3.8
	22				■					■					■					■					■					■					■		2.8
	23				■					■					■					■					■					■					■		3.5
	24				■					■					■					■					■					■					■		3.3
	25				■					■					■					■					■					■					■		4
	26				■					■					■					■					■					■					■		3.7
유연성 (5)	27				■					■					■					■					■					■					■		4
	28				■					■					■					■					■					■					■		4
	29				■					■					■					■					■					■					■		4.3
	30				■					■					■					■					■					■					■		3.8
	31				■					■					■					■					■					■					■		4.3

[표 5-4] 공간평가 세부지표 평가점수 결과

평가 항목	세부지표 내용	세부지표 평가점수					
		평가자 A	평가자 B	평가자 C	평가자 D	평가자 E	평가자 F
기능성 (3)	필수 공간 구비	4.8	2.9	1.9	3.8	3.8	1.0
	공간기능의 효율성	4.2	1.7	3.4	2.5	2.5	1.7
	충분한 공간 확보	4.1	4.1	4.1	3.1	3.1	4.1
적응성 (5)	공간의 유연성	2.8	2.8	2.8	2.8	2.1	2.8
	이용자의 적응 용이성	2.1	2.1	2.1	2.1	2.1	2.1
	공간 안정감	4.6	2.8	2.8	3.7	2.8	2.8
	공간 이용 집중도	2.7	1.6	2.2	2.2	2.7	1.1
	지속가능한 공간환경	2.7	2.2	2.2	1.6	2.2	2.2
접근성 (5)	물리적 도달 용이성	3.1	1.2	2.5	1.9	2.5	3.1
	심리적 접근 용이성	2.6	1.0	2.6	2.1	2.6	2.1
	방문객 유입 촉진	3.5	2.1	3.5	2.8	3.5	2.1
	공간 간의 유기적 구성	2.2	1.3	1.8	1.3	2.2	1.3
	신속한 정보취합	2.5	1.5	2	1.5	2	1
다양성 (3)	정보제공 공간의 다양성	3.7	4.6	4.6	2.8	4.6	4.6
	공간별 활용 다양성	3.3	4.1	4.1	3.3	3.3	3.3
	선택적 공간 이용	4.3	1.7	4.3	3.4	4.3	4.3
상호 작용성 (4)	내·외부 공간의 상호작용	4.3	3.5	3.5	2.6	4.4	3.5
	공간 간 융합	2.5	1.2	1.2	1.9	1.9	1.2
	휴식커뮤니티 공간 형성	2.8	2.2	1.7	2.2	2.8	2.8
	쌍방향적 정보교류	3.7	3.0	2.2	3.0	3.0	2.2
쾌적성 (6)	심미적 가치 제공	2.7	2.2	2.2	2.2	1.6	1.6
	공간-사용자 간 인터페이스	1.3	1.3	0.6	1.0	0.6	0.6
	자료 보존 환경	1.7	2.1	0.8	1.3	1.3	1.7
	친환경적 공간 조성	2.4	1.0	1.0	1.4	1.9	1.9
	안정감 향유	2.7	1.6	1.6	1.6	2.7	2.7
	사용자의 참여 촉진	1.9	1.1	1.1	1.1	1.5	1.5
유연성 (5)	다목적 공간사용 가능성	2.5	2	1.5	1	2.5	2.5
	상황에 따른 공간 대응	2.1	1.7	1.7	1.3	1.7	1.7
	공간 내 확장감 부여	4.3	3.4	3.4	3.4	3.4	4.3
	가변적 구조 형성	2.3	2.3	2.3	1.7	2.3	2.3
	정보환경 변화 대응	3.1	3.1	2.5	2.5	2.5	2.5
	평가자별 총점(100점 만점)	93.5	70.3	74.2	69.1	80.4	72.6

공간평가의 설문 결과는 1차로 평균점수 표기하였는데 다양성에서 사용자들이 선택적으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항이 4.7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상호작용성에서 휴식 및 커뮤니티 공간이 잘 형성되었는지와 유연성에서 정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지 여부 문항, 공간 내 확장감이 부여되었는가의 여부 순으로 평균 4점대의 높은 만족도가 나타났다. 상호작용성의 라키비움 내 공간들이 잘 융합되었는가의 문항은 2.7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아직 라키비움이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낮은 문항은 쾌적성에서 공간과 사용자 간의 인터페이스가 적절히 조성되었는지 묻는 항목은 2.8점으로 평가자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공간평가항목에 대한 긍정의 순으로 나열하면 다양성(4.5), 유연성(4.1), 접근성(4.0), 상호작용성(3.8), 적응성(3.7), 쾌적성(3.5), 기능성(3.4)의 순서로 다양성 항목에 대한 전체 평가점수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세부지표의 평가점수 결과는 항목별 가중치 종합 표를 바탕으로 점수화하였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최하점은 20점인데 상위점수나 선정기준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지만, 보통의 만점이 60점이므로 70점 이상이라면 실시한 공간평가가 대체로 높게 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평균점수로는 각 세부지표의 선호 응답을 알 수 있고 배점표로는 평가자별로 공간평가에 대한 점수를 알 수 있는데 평가자 A(93.5 점), 평가자 E(80.4), 평가자 C(74.2), 평가자 E(72.6), 평가자 B(70.3), 평가자 D(69.1) 순으로 점수 차이를 보였다. 점수가 높은 쪽과 낮은 쪽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근무연수나 근무부서별로 인한 비슷한 점수분포를 확인할 수 있었고 대학도서관의 공간을 사용하는 누구에게나 평가가 가능하고 관리자와 일반 사용자의 차이점도 점수로 인하여 발견할 수 있다. 일반 사용자에게는 배점 부분을 빼고 5점 척도로 평가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수화가 필요한 대학도서관의 공간 계획이나 공간개선이 필요한 곳이라면 평가 후 점수를 도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개선 방향의 지표로 삼을 수 있다. 또한 대학도서관별로 공간평가가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5.3 라키비움 공간평가 모형개발

라키비움의 공간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공간평가모형은 다음 <표 5-5>와 같은 함수를 가졌고 이 함수를 이용하여 최종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모형 <표5-6>으로 결정되었다.

[표 5-5] 공간평가가 가진 함수

공간 특성 항목 평가 함수
$Total\ Score = \sum_{i=1}^k \sum_{j=1}^{m_i} \theta[(1 - 0.2n_{ij})a_{ij}, 2]$ <p> <i>k</i> = 공간항목 (7개 영역) <i>m_i</i> = <i>i</i>번째 공간항목에 들어있는 세부지표의 개수 <i>n_{ij}</i> = 0(<i>i</i>번째 공간항목, <i>j</i>번째 세부항목에서 '매우 높음' 1(<i>i</i>번째 공간항목, <i>j</i>번째 세부지표에서 '높음' 2(<i>i</i>번째 공간항목, <i>j</i>번째 세부지표에서 '보통' 3(<i>i</i>번째 공간항목, <i>j</i>번째 세부지표에서 '낮음' 4(<i>i</i>번째 공간항목, <i>j</i>번째 세부지표에서 '매우 낮음' <i>a_{ij}</i> = <i>i</i>번째 공간항목, <i>j</i>번째 세부지표에서 '매우높음 환산점수' </p>

[표 5-6] 라키비움 공간평가모형

공간 특성/ 배점	평가 내용	배점	평가 결과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기능성 14점	라키비움의 필수공간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가?	4.8					
	공간의 기능이 효율적이고 동선이 체계화되어 있는가?	4.2					
	라키비움의 기능을 구현할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었는가?	5.1					
적응성 17점	공간이 프로그램 진행 시 유연하게 대처 가능한가?	3.5					
	가변적 구조변경 시 이용자가 적응하기 용이한가?	3.5					
	도서관에서 라키비움으로 변화된 공간이 안정감을 주는가?	4.6					
	공간을 이용할 때 집중도가 높은가?	2.7					
	시간의 변화에 따라 지속가능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가?	2.7					
접근성 14점	물리적 환경이나 수단을 활용하여 도달하기 쉬운가?	3.1					
	심리적인 접근이 용이한가?	2.6					
	방문객들의 유입을 촉진하는가?	3.5					
	공간 간의 유기적인 구성이 이루어졌는가?	2.2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취할 수 있는 공간 구성인가?	2.5					
다양성 13점	정보제공을 위한 공간이 다양한가?	4.6					
	공간별 활용방식이 다양한가?	4.1					
	사용자의 선택적 공간 이용이 가능한가?	4.3					
상호작용성 14점	내·외부공간이 상호작용하는가?	4.4					
	라키비움 내 공간들이 잘 융합되었는가?	3.1					
	휴식 및 커뮤니티 공간이 형성되어있는가?	2.8					
	공간과 이용자의 쌍방향적 정보교류가 가능한가?	3.1					
쾌적성 13점	심미적 가치를 제공하는가?	2.7					
	도서, 박물관, 구조물 등과 사용자 간 인터페이스가 적절히 조성되었는가?	1.6					
	자료 보존을 위한 충분한 환경이 조성되었는가?	2.1					
	친환경적 공간이 조성되었는가?	2.4					
	심리적·정서적 안정감을 취할 수 있는가?	2.7					
	문화적 환경으로 사용자의 참여를 촉진하는가?	1.9					
	사용자에 따라 다목적으로 사용 가능한가?	2.5					
유연성 15점	공간이 상황에 따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가?	2.1					
	공간 내 확장감을 부여하였는가?	4.3					
	용도에 맞는 가변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가?	2.9					
	정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가?	3.1					
100점		100					

5.4 소결

평가모형을 검증하고자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University Library를 표본으로 공간 평가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평가의 세부항목에 따라서 평가자의 주관적인 관점, 그리고 근무하는 부서에 따라 평가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공간평가 결과표를 살펴보면 그 차이가 뚜렷이 나타났고 이런 부분이 문항의 평균점수와도 관계가 있었고 인터뷰 내용 또한 평가자별로 뚜렷한 평가 차이를 보였다.

공간 특성 중 다양성 항목이 평가자들에게 높은 평점을 나타냈는데 인터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공간구성이 도서관 구역, 학습구역, 멀티미디어 구역, 스마트 구역, 특화구역으로 정확히 나뉘면서 그 구역에서도 여러 공간을 따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 선택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높은 평점을 나타냈고, 스타센터 University Library에 라키비움을 도입할 경우 공간 부족의 문제로 기능성 항목이 가장 낮은 평점을 보였다. 유연성, 접근성은 다양성 다음으로 평균 4점 이상의 좋은 점수로 나타났는데 실제 이 두 가지 항목은 평균에서 격차가 아주 미미하고 스타센터가 지니는 공간과 환경이 매끄럽게 연결되어 사용자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적응성과 상호작용성, 쾌적성이 조금 낮은 점수로 평가된 데는 라키비움이 도입될 경우 현재의 공간보다 새로운 공간에 적응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라키비움 공간 경험을 해보지 못한 평가자들의 주관적인 관점이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한다.

제안한 공간평가모형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검증할 수 있는 모형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좀 더 명확한 검증을 받고자 관리관계자 6명에게 평가와 인터뷰를 하였고 배점표로는 평가자별로 공간평가에 대한 점수 차를 알 수 있었다.

점수가 높은 쪽과 낮은 쪽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근무연수나 근무부서별로 인한 비슷한 점수분포를 확인할 수 있었고 면접 조사를 통해서도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평가자로서 공간평가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손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6장

결론

6.1 연구 결과 및 시사점

6.2 향후 연구 방향성

6장 결론

6.1 연구 결과 및 시사점

지금까지 라키비움에 대한 연구는 문헌정보학이나 기록학 분야에서 라키비움 구축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고 공간의 구성이나 계획 단계에서 거쳐야 하는 공간평가에 대한 연구는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행연구들은 라키비움 구축을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공간, 필수공간 등 꼭 갖춰야 할 부분이 많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공간의 특성은 도출하지 못한 채 구축 방향만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도서관에 라키비움을 도입할 시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공간평가의 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공간디자인의 관점에서 대학도서관의 라키비움도입을 위한 공간평가 모형개발을 연구하였다. 이는 대학도서관이나 라키비움의 이용자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공간 경험을 통해 라키비움 도입 시 공간계획과 구성에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환경을 구축하도록 돕는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라키비움 도입을 위한 대학도서관의 공간을 평가하는 모형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와 검증분석을 통해 라키비움의 기능적 요소와 공간적 요소를 기반으로 타당성 있고 신뢰성이 있는 라키비움 도입을 위한 공간 특성을 추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도서관의 라키비움 도입을 위한 공간평가항목 예비지표를 도출하였고 전문가 심층 면접 FGI를 실시하여 평가항목의 적합성 여부와 세부지표 내용을 수정, 보완하고 AHP 중요도 조사를 통해 평가지표 점수화 및 공간 평가지표의 가중치를 적용한 평가지표를 개발, 실제 공간평가에 검증하고 분석하여 평가지표가 가지는 의미 및 해석을 통한 분석을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에서 진행된 라키비움에 대한 기능적 요소, 공간적 요소에 관한 내용은 대체로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분류체계와 평가 방법을 가지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라키비움에 관한 기능적, 공간적 요소들이 각기 독립적인 것이 아닌 상호 연관성이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선행연구자들이 공간적 요소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요소를 특성으로 분류한 순서로는 상호작용성, 접근성, 쾌적성, 기능성, 다양성, 유연성, 적응성의 순서로 분석되었다. 연구자들은 라키비움 내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여 기관이 서로 융합되고 정보교류가 가능하게 하는 상호작용성이 많이 언급됨을 도출하였다.

둘째, 1차 중요도 조사에서 전문가집단의 공간 특성 세부 지표 문항 간 신뢰도는 모든 항목이 Cronbach's α 계수 0.7 이상의 신뢰도를 보였고 공간 특성 평가지표에 관한 중요도는 적응성, 접근성, 다양성, 쾌적성, 유연성, 상호작용성, 기능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기서 적응성 평가지표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분석되었는데 이는 전문가집단이 생각했을 때 대학도서관의 라키비움 도입 시 공간계획이나 구성에서 선행연구자들이 낮게 언급하였던 적응성이 실제 라키비움 도입 시에는 변화된 새로운 공간이 안정감이나 집중도, 지속가능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서 계획하여야 한다는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1차 중요도 조사와 FGI를 거쳐 도출된 평가지표를 2차 전문가 AHP 중요도 조사를 통해 최종평가지표의 항목별 가중치를 도출하였고 적응성 17점, 유연성 15점, 상호작용성 14점, 기능성 14점, 접근성 14점, 다양성 13점, 쾌적성 13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의 전체 우선순위는 충분한 공간확보(1위), 필수 공간구비(2위), 정보제공 공간의 다양성(3위), 공간 안정감(4위), 내외부 공간의 상호작용(5위), 선택적 공간 이용(6위), 공간 내 확장감 부여(7위) 순이며 이러한 결과는 대학도서관의 라키비움 도입 공간평가체계의 항목 중 가장 기본 지표들로 실질적인 공간의 사용 방향에 관한 평가 세부지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도출된 평가표를 가지고 최종 공간평가모형의 검증을 위해 설문과 인터뷰를 통한 검증을 하였고 이를 분석한 결과 다양성에서 사용자들이 선택적으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항이 평균 4.7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상호작용성에서 휴식 및 커뮤니티 공간의 형성 여부, 유연성에서 정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문항이 평균 4점대의 높은 점수로 나타났고 평균점수로는 각 세부지표의 선호 응답을 알 수 있다. 이는 표본의 건축적, 공간적 특성과 응답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으로 인해 만족도가 높은 특성과 낮은 특성이 확연히 구별된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세부지표 평가점수의 결과는 항목별 가중치 종합 표를 바탕으로 점수화하였고 평가자별로 공간평가에 대한 점수를 알 수 있는데 평가자 A(93.5점), 평가자 E(80.4), 평가자 C(74.2), 평가자 F(72.6), 평가자 B(70.3), 평가자 D(69.1) 순으로 점수 차이를 보였다. 70점 이상이면 공간평가가 대체로 높게 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6명의 평가자 중 5명이 70점 이상으로 평가공간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31개의 세분화된 지표들로 이루어져 효과적으로 점수를 배점할 수 있었다. 도출된 공간평가지표를 가지고 중요도 분석을 통하여 공간 특성별 상위 대표 우선 순위를 도출하였고, 이러한 세부적인 공간평가모형을 개발하여 중요도에 따라 명확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실질적으로 라키비움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관들의 라키비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각각의 도서관에 맞는 라키비움의 정의를 통하여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고 창조적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며 생태계적 공간개념을 적용한 라키비움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라키비움을 통한 다양한 만남, 사용자와 사용자, 사용자와 커뮤니티, 디지털 자료와 아날로그가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복합문화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 공간계획이나 구성, 공간별 요구분석, 사용자 프로그램 계획, 운영 매뉴얼 등이 확정되어야 실질적인 미래창조형 라키비움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지향적인 라키비움은 전통적인 어느 기관의 특징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창조형 라키비움으로 도약하기 위한 창조적 지식 공간으로, 집이나 일터가 아

년 제3의 공간으로서 각각의 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즐겁고 편안한 공간으로의 도약을 의미한다. 미래창조형 라키비움은 지식과 정보자료를 모두 공유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공간으로 기능하게 되고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고 또 그 정보를 소비하는 공간으로서 지식 스페이스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여 사용자들의 지식이 공유되고 재생산되는 선순환 생태계 지식창조공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인간중심의 공간으로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문화와 유희의 체험이 가능한 공간이 되며 공감적 공유의 세대 간 격차, 지역 간 격차,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는 공간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에 라키비움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공간계획의 기초조사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평가지표를 구축하였고 객관적이면서 통합적인 관점의 평가로서 이 평가지표는 부족한 공간요인의 개선안을 도출해 내는 데 지침이 되며 사용자에게 맞춰진 사용자 중심 공간계획과 디자인 향상에 긍정의 효과를 제공하리라 기대한다.

6.2 향후 연구 방향성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에 라키비움을 도입할 시 공간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으나 향후 더 비중 있게 다뤄야 할 방향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라키비움의 선행연구에서 공간의 특성은 잘 추출되었으나 대학도서관에 라키비움을 도입할 시 적용된 공간평가의 사례가 없어서 다양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객관적 근거가 부족함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객관성이 제시될 수 있도록 연구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는 라키비움을 도입하는 공간으로 대학도서관을 한정 지었지만 향

후 대학도서관뿐만 아니라 지역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에서 이 공간평가 방안을 도입하여 라키비움 공간계획에 중요한 지침으로 제공되기를 바란다.

셋째, 공간평가 모형의 검증 단계에서 대학도서관 표본을 다양한 대학도서관이 아닌 하나의 표본으로 한정함으로써 여러 공간평가의 다양성이 부족한 한계를 지닌다. 또한 조사대상자를 관계자로 선정하고 한정된 시간에 조사가 이뤄져 이용자에 대한 응답자 계층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는 차후 재조사를 통해 보완하여 공간평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더욱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공간평가에 대한 연구와 함께 이를 다양한 도서관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체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업무표준. 국가기록원, 2011.
-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 건축과 환경. 국립중앙박물관, 1995.
-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팀. 국립현대미술관 건축 아카이브 구축방안 연구. 계문사, 2011.
- 권영걸. 공간디자인 16강. 국제, 2011.
- 노영희, 최만호. 도서관 공간구성의 이해. 청람, 2016.
- 리처드 세넷.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 문예 출판사, 2001.
- 루이기 프레스티넨자 푸그리지. 하이퍼 건축. 이집, 2001.
- 사공철. 문헌 정보학 용어 사전. 한국도서관협회, 1996.
- 세계박물관협회. 박물관과 미술관의 새로운 경영. 궁리, 2001.
- 송승섭. 대학도서관의 정보기술 도입과 사서의 직무만족도. 한국학술정보, 2005.
- 송승섭. 한국 도서관사. 계문사, 2019.
- 아트빌리지 편집부. 역사의 진보를 담은 박물관 건축. 아트빌리지, 2016.
- 아트빌리지 편집부. 세계의 박물관 : 변화와 진화의 발자취. 아트빌리지, 2016.
- 오명숙. 박물관 교육론 : 쟁점과 과제. 민속원, 2019.
- 유현준. 공간이 만든 공간. 을유문화사, 2020.
- 윤병화. 신박물관학. 신광문화사, 2015.
- 윤희운. 공공도서관경영론. 태일사, 2010.
- 윤희운. 대학도서관경영론. 태일사, 2002.
- 이광래. 해체주의와 그 이후. 열린 책들, 2007.
- 이귀복, 현혜원. 자료 보존에 관한 3가지 요소:재난, 전시, 디지털화. 국립중앙도서관, 2010.
- 이보아. 박물관학 개론. 김영사, 2002.
- 이보아. 박물관 경영과 마케팅. 김영사, 2014.
- 이보아. 박물관 테크놀로지 : 인물과 기술의 융합으로 예술을 경영하다. 김영사, 2018.
- 자크보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 다빈치, 2012.
- 정재영. 대학도서관 이슈와 과제. 공간인, 2009.
- 정재영. 대학도서관과 정보 활용 교육. 경인문화사, 2018.
- 정진식. 디지털도서관 정보서비스. 한국도서관협회, 2002.
- 정혜영. 디지털 아카이빙의 경제성 분석. 한국학술정보, 2005.
- 조선대학교 박물관. 조선대학교 박물관 20년 : 1992-2012. 조선대학교 박물관, 2012.
- 조지앨리스 버코, 양지연 역. 큐레이터를 위한 박물관학. 김영사, 2004.
- 조현양 외. 2013년 판 한국도서관 기준. 한국도서관협회, 2013.
- 존스, 숄츠. IFLA 학교도서관 가이드라인. 글로벌콘텐츠, 2017.
- 최병식. 박물관 경영과 전략. 동문선, 2010.
- 최석영. 한국박물관 역사와전망. 민속원, 2012.

- 최정태. 기록관리학사전. 한올아카데미, 2005.
- 최종호. 한국박물관교육학. 문음사, 2010.
- 쿤츠, C. IFLA공공도서관 서비스가이드라인. 한국도서관협회, 2011.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2018 대학도서관 통계분석.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8.
- 한국기록관리학회. 기록관리론. 아세아문화사, 2013.
-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대학도서관연감2012-2020.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2020.
- 한국박물관협회. 박물관학 i. 한국박물관협회, 2001.
- 한미경. 세계의 주요 기록관 지식정보원. 한국학술정보, 2010.
- 한미경, 노영희. 기록 및 기록관리의 이해. 한국학술정보, 2011.
- 한중훈, 이혜진. 박물관 미술관학 : 뮤지엄경영과전략. 박영사, 2005.
- Budd, john M. The changing academic library : operations, culture, environments. EURO, 2007.
- Ed. by Koontz, Christie/ Gubbin, Babara. IFLA Public Library Service Guidelines. IFLA, 2010.
- El Lissitzky. Russia: An Architecture for World Revolution(러시아: 세계혁명을 위한 건축). 세진사, 1994.
- Elizabeth Mills. "The Separate Undergraduate Library". College & Research Libraries, 1968.
- Hartmann, H. Ego Psychology and the Problem of Adaptation. New York: Int. Univ. Press, 1958.
- Henry W. Wingate. "The Undergradute Library : Is It Osolete?". College & Research Libraries, 1978.
- Hunter,G. S. Developing and Maintaining Practical Archives: A How to do it Manuals. NewYork: Schuman Pub.,Inc, 1997.
- Keyes Metcalf. "The Lamont Library". Harvard Library Bulletin, 1949.
- Louis R. Wilson and Maurice F.Tauber. "The University Librar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6.
- Neil Kotler & Philip Kotler. "Museum Strategy and marketing". Jossey-Bass, 1998.

학위논문

박사학위

- 강미희. 어린이 도서관 공간평가요소 개발 연구. 2011.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강태임. 디자인 어워드의 평가지표 및 프로세스 개선에 관한 연구. 2011.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 전문대학원, 박사학위.

- 고흥권. 공공도서관 스페이스 프로그램의 모형 제안연구. 2013.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김지예. 대학 뮤지엄의 복합문화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한 지표 개발. 2020.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심재관. 복합테마형 상업시설 집객요인이 이용만족도와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2011. 광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윤선영. 국가산업단지의 문화적 활용에 관한 연구. 2016.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오춘옥. 고은 라키비움 구성 연구. 2016.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이민아. 공간 사용자경험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스케이프 평가지표 연구. 2017.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이상락. 공공시설물 설계를 위한 지역 정체성 인자에 관한 연구. 2010.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이양병. 공공시설물디자인 평가 방법론에 관한 연구. 2011.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이종렬. 접근성에 기반한 공간구조 분석 모델에 관한 연구. 2009.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임민택. 적응성 공간의 변용과 재전유 체계 연구. 2021.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임선정. 대학도서관의 커뮤니티 공유공간의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2017.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임종훈. 치유환경기반 공공디자인 평가체계에 관한 연구. 2016.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정성영. 공공문화예술기관의 운영성과 향상을 위한 평가요소들의 중요도에 관한 연구. 2019.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정희정. 공공디자인 평가척도어 추출에 관한 연구. 2009.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조영수. 도심 활성화를 위한 복합용도개발의 계획 방법에 관한 연구. 2005. 중앙대학교 건축대학원, 박사학위.
- 조정형. 공공디자인의 효율적 적용을 위한 공공시설물 평가 TOOL 개발에 관한 연구. 2010.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최영실.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기능융합에 의거한 라키비움 공간 기획 연구. 2012.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
- 최진욱. 도시재생적 관점의 유희공간 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 방안 연구. 2016.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박사학위.
- 최태욱. 디자인 평가지표와 미래디자인 기술 연관관계 분석. 2020.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한세민. 비주얼 머천다이징이 구매 의도와 충동구매에 미치는 영향. 2019.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한채원. 디자인 지원사업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2021.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석사학위

- 강 희. 현대건축 내·외부에 나타나는 자연도입 유형과 특성 연구. 2010.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석사학위.

- 곽병호. AHP 의사결정 방법에서 양방향 순위도출 방법을 이용한 쌍대비교의 일관성 검정. 2007.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김건하. 기록관 유형에 따른 홍보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10.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
- 김미연. 공공도서관 사서의 라키비움에 대한 인식 연구. 2016. 인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김용원. 도서관 기능의 재구성을 통한 프로그램 복합화에 관한 연구. 2007.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김익수. 특성화된 대학원대학교의 효과적인 홍보 방안에 관한 연구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2011. 목원대학교 언론광고홍보대학원, 석사학위.
- 김지수. 라키비움 개념에 의한 문학관의 프로그램 특성과 공간디자인. 2018.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석사학위.
- 김지우. 공간디자인에서의 웰빙요소에 의한 업무환경 평가 연구. 2009.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김철영. 스타트업 공간에서 어메니티의 감성적 특성 연구 : (주)우아한형제들 공간을 중심으로. 2018.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 배연준. 공간과 오브제의 상호작용성에 관한 연구. 2006.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석사학위.
- 백수연. 대학 기숙사의 거주환경 요소가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7.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백수연. 코워킹 스페이스에 나타난 어메니티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2016.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석사학위.
- 송은주. AHP를 이용한 커피 교육 커리큘럼의 상대적 중요도에 관한 연구. 2014. 경희사이버대학교 호텔관광대학원, 석사학위.
- 안지혜. 라키비움 서비스에 대한 사서인식 연구 : 국회도서관 구성원을 대상으로. 2018.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안진영. 국립중앙도서관의 라키비움 정향성 : 아카이브로서 개인문고 활성화를 중심으로. 201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양아현. 브랜드 연상정보 디스플레이 툴 개발 연구. 2019.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윤주희. 노마드적 관점의 유연한 공간에 관한 연구. 2010.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 윤현숙. 대학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특성과 개선방안 연구. 2012.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
- 이수찬. 디지털 기술사회의 특성이 적용된 현대건축 경향에 관한 연구. 2003.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임호균. 공공도서관 공간체계의 변화와 특성에 관한 연구. 2007.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장미경. 중규모 대학교 도서관의 라키비움 구축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2016.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장윤정. 복합공공도서관 운영현황 및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2017.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석사학위.

- 장 찬. 대학 라키비움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2020. 강원원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정재희. 복합민자역사의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연구. 2011.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정지혜. 이용자 의식조사를 통한 대학도서관의 공간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2021.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정지훈. 라키비움 구현을 위한 메타데이터 설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2014.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정호은. 디자인 지원사업 구성요소의 우선순위도출 연구. 2019.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조윤정. 복합문화공간의 공간구성 및 공공공간 프로그램 연구. 2014.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석사학위.
- 차문진. 국내외 국립도서관의 전시운영 분석을 통한 국회도서관 전시 운영의 방향성 제안. 2018.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 최연경. 라키비움 관점에서 문화유산기관의 특성을 살린 통합 보존방안에 관한 연구. 2018.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최정현. 업무공간에서 창의성 지원을 위한 환경심리요소와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2010.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 한동우. 국채보상운동 아카이브의 라키비움 구축방안. 2018.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한희정.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공공도서관 공간설계에 관한 연구. 2011.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허수진. 대학도서관의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2021.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석사학위.

보고서

- 곽승진. 복합문화기관으로서 도서관의 라키비움 도입 전략 연구, 한국연구재단, 2014.
- 김아미 외. 경기교육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미래형 교육도서관 모델 개발 연구, 경기도교육연구원, 2019.
- 나수정. 제2차 대학도서관진흥 종합계획(2019~2023),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2019.
- 노영희. 도서관에서의 라키비움 실현을 위한 제도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2015.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 2019~2023,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9.
- 이용재, 이지욱. 대학도서관 발전계획 분석 및 미래 발전전략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0.
- 장상현 외. 2020년 대학도서관 통계 분석 및 교육·연구 성과와의 관계 분석,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0.
- 장윤금 외.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2019~2023)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8.

학회논문

- 강성중, 권영걸. “공간에서의 인터랙션 디자인 개념 적용에 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vol.14, no.3, 2005.
- 공순구 외. “인포메이션커먼스 개념을 적용한 하이브리드대학도서관의 공간구성과 운영체계 분석에 관한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vol.11, no.4, 2013.
- 곽승진, 이정미. “복합문화시설로서 도서관의 라키비움 도입전략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vol.29, no.3, 2018.
- 김보영, 곽승진. “대학도서관의 메이커 스페이스 도입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48, no.3, 2017.
- 김소라, 장혜진, 이지현. “도서 정보 공유 및 추천을 위한 도서관 소셜 경험 디자인에 관한 연구: 대학 도서관 컨텍스트를 중심으로”. 정보디자인학연구, vol.25, no.-, 2015.
- 김소희. “시애틀공공도서관의 공간프로그램과 책채사용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vol.28, no.10, 2012.
- 김영선, 윤미라. “대학도서관의 복합문화공간 변이 가능성에 관한 연구”. 대한무용학회논문집, vol.75, no.3, 2017.
- 김유승. “국회 라키비움의 전망에 관한 연구 : 기억기관 협력 정책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vol.12, no.2, 2012.
- 김환희, 박지홍. “서비스스케이프를 적용한 대학도서관의 공간구성이 이용자 만족도와 지속 의도에 미치는 영향”. 정보관리학회지, vol.35, no.1, 2019.
- 남영준 외. “대학도서관 리모델링 전·후의 공간구성에 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연구 : C 대학교 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vol.20, no.4, 2009.
- 노영희. “도서관 3.0의 개념과 서비스 모형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vol.27, no.4, 2010.
- 박태연 외. “대학도서관 공간별 특성에 따른 활용도 분석 : J 대학교 이용자 로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51, no.2, 2020.
- 서혜란. “기록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도서관과 기록관의 협력”. 한국비블리아학회지, vol.16, no.2, 2005.
- 오정훈, 이응봉. “전문도서관 라키비움 구축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vol.25, no.2, 2014.
- 이용재 외. “대학도서관 공간 구성 연구 : P 대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vol.23, no.2, 2012.
- 이은영, 김성준. “대학도서관 이용형태에 따른 공간 분류와 평가요소 도출 및 그에 따른 분석 사례”. 기초조형학연구, vol.18, no.5, 2017.
- 이효연, 최익서. “지역 정체성 기반 주민참여형 커뮤니티아트 활성화에 관한 연구 :국내지역 연계 프로젝트 사례 중심으로”.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5, no.5, 2020.
- 장아리, 황연숙. “대학도서관 주제자료실의 실내공간특성에 관한 사례 연구”. 디자인융복합연구, vol.12, no.6, 2013.
- 정재영. “대학도서관 공간활용 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43, no.3, 2012.

- 함유진, 오영근. “대학도서관에서의 색채이미지와 감성평가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vol.24, no.5, 2015.

웹사이트

- 정진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대학도서관”. 한국대학신문, 2020.04.28. <http://news.unn.net/>.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 통계.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www.libsta.go.kr/libportal/libStats/mainStats/getMainStatsList.do
- 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정책기획단). “도서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도서관통계. “대학도서관 주요통계”. 국 가도서관통계시스템, 문화체육관광부, www.libsta.go.kr
-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3.23., www.law.go.kr
- 도서관통계. “대학도서관 주요통계”.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문화체육관광부, www.libsta.go.kr
- 교육부(고등교육정책과). “고등교육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3.23., www.law.go.kr
- 행정안전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3.23., www.law.go.kr
- 뉴시스. “국립중앙도서관, 책의 일생을 알려주마”. 2017년9월25일, www.newsis.com
- 신재욱. “인터랙션과 인터랙티브 디자인”. 웹인터랙션, 디자인정글, 2001.6
<http://jungle.co.kr/megazine>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www.acc.go.kr
- 한국원자력라키비움. www.kaeri.re.kr
-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https://gcube.or.kr>
- 국립중앙도서관. www.nl.go.kr
- 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기록보관소, 도서관 및 박물관간의 협력”. 2003.8.9., www.ifla.org/node/1402
- oclc research. “activities/lamsurvey/”. www.oclc.org
- <http://www.ims.gov/about/default.aspx>.
- <http://www.kulturradet.no/english>.

부록

1. 설문지
2. 인터뷰
3. 국문초록

설문지

1차 전문가 대상 설문 조사

**대학도서관의 라키비움 화를 위한 공간평가항목에 대한
 중요도 조사**
 연구명: 대학도서관의 라키비움 도입을 위한 공간평가 모형개발

안녕하십니까?

조선대학교 대학원 연구자 오수현입니다.

본 설문지는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인 대학도서관의 라키비움 도입을 위한 공간평가의 항목에 관한 유의미성과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대학도서관의 이용도와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의 라키비움 도입에 관한 공간평가를 체계화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주셔서, 본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은 무기명으로 작성되고 오직 학술연구를 위해서만 활용될 것이며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에 의하여 개인적 사항에 대해서 보호받습니다.

다시 한번 설문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2021.04.

조선대학교 대학원 디자인경영학과 실내디자인전공

연구자: 오수현

지도교수: 윤갑근

연락처 062-230-7821 메일주소 ohssooo@nate.com

응답자 정보					
성별	<input type="radio"/> 남	<input type="radio"/> 여			
연령	<input type="radio"/> 20대	<input type="radio"/> 30대	<input type="radio"/> 40대	<input type="radio"/> 50대	<input type="radio"/> 60대 이상
전공 분야	<input type="radio"/> 공간디자인	<input type="radio"/> 공공디자인	<input type="radio"/> 산업디자인	<input type="radio"/> 시각디자인	<input type="radio"/> 기타()
경력	<input type="radio"/> 3년 미만	<input type="radio"/> 3년~5년	<input type="radio"/> 6~10년	<input type="radio"/> 11~20년	<input type="radio"/> 20년 이상
학력	<input type="radio"/> 석사과정	<input type="radio"/> 석사	<input type="radio"/> 박사 재학	<input type="radio"/> 박사 수료	<input type="radio"/> 박사
· 대학 도서관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 귀하는 평상시 대학도서관을 자주 이용하십니까?					
<input type="radio"/> 거의 없음 <input type="radio"/> 주 1~2회 <input type="radio"/> 주 3회~4회 <input type="radio"/> 매일 <input type="radio"/> 한 달 1~2회 <input type="radio"/> 6개월 1~2회					
· 대학도서관의 이용목적은 무엇입니까?					
<input type="radio"/> 학술 활동 <input type="radio"/> 여가 활동 <input type="radio"/> 커뮤니티 활동 <input type="radio"/> 미팅 장소 <input type="radio"/> 업무 <input type="radio"/> 기타					
· 대학 라키비움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input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오					
· 대학 라키비움을 방문하셨다면 어떤 활동을 주로 하십니까? 자유롭게 서술해주세요.					

● 용어설명

-라키비움이란?

라키비움(Larchiveum)은 도서관(Library), 기록관(Archive), 박물관(Museum)을 통합한 새로운 형태의 공간으로 학문 및 문화발전과 보존 및 관리, 문화적 향유, 교육, 지역사회 발전 및 커뮤니티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각 기관의 공통된 업무에 대한 협업이 수행되며,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하다. 또한, 각 기능의 공간을 부분적으로 공유하며 정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 라키비움의 필수공간

라키비움 필수공간	
시설유지 관리공간	보안시설, 유지시설, 시설관리, 기계시설, 전기시설, 사무공간
공용공간	로비, 안내, 휴게공간, 화장실 등 식음 공간, 상점 등 홀, 복도, 계단실, 엘리베이터 등 물품보관소, 수유실, 어린이시설, 장애인시설
수집 · 보존공간	수장고, 서고, 기록물서고, 보존처리공간, 수집 및 평가공간, 연구실
이용 · 활용공간	열람공간, 교육공간, 전시공간, 집회공간 이용자 서비스공간 (복사, 대출 등)

- 라키비움의 공간 특성

구분	내용
가능성	육구충족이나 목표달성을 위한 것으로 공간이 존속하기 위한 공헌적 활동
적응성	공간의 장소성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차이 생성 적인 공간 시스템
접근성	공간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지점과 밀접한 상호 연관성 또는 상호 연계성이 생기는 것
다양성	공간과 연계된 다양한 주변 환경 특성을 수용할 수 있는 다원론적 가치
상호작용성	공간과 사용자, 공간과 공간, 공간과 요소들 간의 관계 맺음 활성화 구조
쾌적성	기분의 전환, 편리성과 효율성, 감성적 체험으로 육체적, 감정적 쾌적성을 높이는 것
유연성	공간 프로그램의 활용 측면에서 다양한 확장, 수용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

● 다음은 대학도서관의 라키비움 화 도입을 위한 공간평가 안입니다. 이용자에게 바람직한 환경이 되기 위하여 다음의 항목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체크해 주십시오.

1. 평가지표 중요도 평가

작성에서 : 기능성 관련 질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5점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최하 1점에 표시하면 됩니다.

공간 특성	세부 지표 내용	중요도 평가 점수				
		매우 낮음 1	낮음 2	보통 3	높음 4	매우 높음 5
기능성 (6)	라키비움의 필수공간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가?					
	공간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발휘되는가?					
	라키비움의 기능을 구현할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었는가?					
	각 공간이 협업할 수 있는 동선이 체계화되어있는가?					
	공간별 기능이 중복되는가?					
적응성 (5)	최소한의 자원이나 인력으로 공간을 유지 가능한가?					
	공간이 프로그램 진행 시 유연하게 대처 가능한가?					
	가변적 구조변경 시 이용자가 적응하기 용이한가?					
	도서관에서 라키비움으로 변화된 공간이 안정감을 주는가?					
	공간을 이용할 때 집중도가 높은가?					
접근성 (5)	시간의 변화에 따라 지속가능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가?					
	물리적 환경이나 수단을 활용하여 도달하기 쉬운가?					
	심리적인 접근이 용이한가?					
	방문객들의 유입을 촉진하는가?					
	공간 간의 유기적인 구성이 이루어졌는가?					
다양성 (5)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취합할 수 있는 공간 구성인가?					
	다양한 행동 양식을 수용할 수 있는가?					
	정보제공을 위한 공간이 다양한가?					
	다양한 연결층을 고려하였는가?					
	공간별 활용방식이 다양한가?					
상호작용성 (6)	사용자의 선택적 공간 이용이 가능한가?					
	내·외부공간이 상호작용하는가?					
	라키비움 내 공간들이 잘 융합되었는가?					
	휴식 및 커뮤니티 공간이 형성되어있는가?					
	공간과 이용자의 쌍방향적 정보교류가 가능한가?					
쾌적성 (7)	지역과 대학 라키비움이 상호작용하는가?					
	지역의 활성화를 촉진하는가?					
	심미적 가치를 제공하는가?					
	도서, 박물관, 구조물 등과 사용자 간의 인터페이스가 적절히 조성되었는가?					
	자료 보존을 위한 충분한 환경이 조성되었는가?					
유연성 (5)	친환경적 공간이 조성되었는가?					
	심리적·정서적 안정감을 취할 수 있는가?					
	문화적 환경으로 사용자의 참여를 촉진하는가?					
	감성적 경험을 통해 정서적 반응을 유도하는가?					
	사용자에 따라 다목적으로 사용 가능한가?					
공간이 상황에 따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가?						
공간 내 확장감을 부여하였는가?						
용도에 맞는 가변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가?						
정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가?						

설문지

2차 전문가 대상 설문 조사

대학도서관의 라키비움 화를 위한 공간평가항목에 대한
AHP 중요도 조사
연구명: 대학도서관의 라키비움 도입을 위한 공간평가 모형개발

안녕하십니까?

조선대학교 대학원 연구자 오수현입니다.

본 설문지는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인 대학도서관의 라키비움 도입을 위한 공간평가 모형개발의 항목에 관한 유의미성과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대학도서관의 이용도와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의 라키비움 도입에 관한 공간평가를 체계화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주셔서, 본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은 무기명으로 작성되고 오직 학술연구를 위해서만 활용될 것이며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에 의하여 개인적 사항에 대해서 보호받습니다.

다시 한번 설문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2021.04.

조선대학교 대학원 디자인경영학과 실내디자인전공

연구자: 오수현

지도교수: 윤갑근

연락처 062-230-7821 메일주소 ohssooo@nate.com

● 응답자 기본 현황

응답자 정보					
성별	<input type="radio"/> 남	<input type="radio"/> 여			
연령	<input type="radio"/> 20대	<input type="radio"/> 30대	<input type="radio"/> 40대	<input type="radio"/> 50대	<input type="radio"/> 60대 이상
전공 분야	<input type="radio"/> 공간디자인	<input type="radio"/> 공공디자인	<input type="radio"/> 산업디자인	<input type="radio"/> 시각디자인	<input type="radio"/> 기타()
경력	<input type="radio"/> 3년 미만	<input type="radio"/> 3년~5년	<input type="radio"/> 6~10년	<input type="radio"/> 11~20년	<input type="radio"/> 20년 이상
학력	<input type="radio"/> 석사 재학	<input type="radio"/> 석사	<input type="radio"/> 박사 재학	<input type="radio"/> 박사 수료	<input type="radio"/> 박사
· 대학 도서관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 귀하는 평상시 대학도서관을 자주 이용하십니까?					
<input type="radio"/> 거의 없음	<input type="radio"/> 주 1~2회	<input type="radio"/> 주 3회~4회	<input type="radio"/> 매일	<input type="radio"/> 한 달 1~2회	<input type="radio"/> 6개월 1~2회
· 대학도서관의 이용목적은 무엇입니까?					
<input type="radio"/> 학술 활동	<input type="radio"/> 여가 활동	<input type="radio"/> 커뮤니티 활동	<input type="radio"/> 미팅 장소	<input type="radio"/> 업무	<input type="radio"/> 기타
· 대학 라키비움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input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오				
· 대학 라키비움을 방문하셨다면 어떤 활동을 주로 하십니까? 자유롭게 서술해주시시오.					

● 설문 개요

본 조사는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39개의 지표를 도출하고, 1차 전문가 중요도 조사 및 2차 전문가 심층 면접(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최종 7개의 영역과 31개의 세부지표를 선정하였습니다.

-도출된 7개의 영역과 31개의 세부지표를 비교하여 영역에서의 상대적 비교도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각 영역에 어떤 지표가 더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방향별 상대 평가항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만큼의 점수에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작성예시: '필수 공간 구비' 보다 '공간기능의 효율성' 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상대평가항목 (왼쪽 평가항목)	상대적 중요도									상대평가항목 (오른쪽 평가항목)
	왼쪽 평가항목이 더 중요함			양쪽의 중요도가 비슷함			오른쪽 평가항목이 더 중요함			
	5-----1-----5									
필수 공간 구비	5	4	3	2	1	2	3	④	5	공간기능의 효율성

다음 페이지에 계속

● 다음 평가항목 지표를 참고하여 설문을 작성해주세요.

대학도서관의 라키비움 도입을 위한 공간 평가항목 지표

연번	공간 특성	세부 지표	질문 내용
1	기능성	필수 공간 구비	라키비움의 필수공간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가?
2		공간기능의 효율성	공간의 기능이 효율적이고 동선이 체계화되어 있는가?
3		충분한 공간 확보	라키비움의 기능을 구현할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었는가?
4	적응성	공간의 유연성	공간이 프로그램 진행 시 유연하게 대처 가능한가?
5		이용자의 적응 용이성	가변적 구조변경 시 이용자가 적응하기 용이한가?
6		공간 안정감	도서관에서 라키비움으로 변화된 공간이 안정감을 주는가?
7		공간 이용 집중도	공간을 이용할 때 집중도가 높은가?
8		지속가능한 공간환경	시간의 변화에 따라 지속가능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가?
9	접근성	물리적 도달 용이성	물리적 환경이나 수단을 활용하여 도달하기 쉬운가?
10		심리적 접근 용이성	심리적인 접근이 용이한가?
11		방문객 유입 촉진	방문객들의 유입을 촉진하는가?
12		공간 간의 유기적 구성	공간 간의 유기적인 구성이 이루어졌는가?
13		신속한 정보취합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취합할 수 있는 공간 구성인가?
14	다양성	정보제공 공간의 다양성	정보제공을 위한 공간이 다양한가?
15		공간별 활용 다양성	공간별 활용방식이 다양한가?
16		선택적 공간 이용	사용자의 선택적 공간 이용이 가능한가?
17	상호 작용성	내외부 공간의 상호작용	내외부 공간이 상호작용하는가?
18		공간 간 융합	라키비움 내 공간들이 잘 융합되었는가?
19		휴식커뮤니티 공간 형성	휴식 및 커뮤니티 공간이 형성되어있는가?
20		쌍방향적 정보교류	공간과 이용자의 쌍방향적 정보교류가 가능한가?
21	쾌적성	심미적 가치 제공	심미적 가치를 제공하는가?
22		공간-사용자 간 인터페이스	도서, 박물관, 구조물등과 사용자 간의 인터페이스가 적절히 조성되었는가?
23		자료 보존 환경	자료 보존을 위한 충분한 환경이 조성되었는가?
24		친환경적 공간 조성	친환경적 공간이 조성되었는가?
25		안정감 향유	심리적·정서적 안정감을 취할 수 있는가?
26		사용자의 참여 촉진	문화적 환경으로 사용자의 참여를 촉진하는가?
27	유연성	다목적 공간사용 가능성	사용자에 따라 다목적으로 사용 가능한가?
28		상황에 따른 공간 대응	공간이 상황에 따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가?
29		공간 내 확장감 부여	공간 내 확장감을 부여하였는가?
30		가변적 구조 형성	용도에 맞는 가변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가?
31		정보환경 변화 대응	정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가?

다음 페이지부터 설문이 시작됩니다.

질문 1) 다음은 라키비움 공간평가 지표 중 평가항목별로 상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1(비슷함)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 해당란에 표시해주세요. (중요도가 비슷한 경우 1점에 표기)

상대평가항목 (왼쪽 평가항목)	상대적 중요도									상대평가항목 (오른쪽 평가항목)
	왼쪽 평가항목이 더 중요함			양쪽의 중요도가 비슷함			오른쪽 평가항목이 더 중요함			
	5-----1-----5									
기능성	5	4	3	2	1	2	3	4	5	적응성
기능성	5	4	3	2	1	2	3	4	5	접근성
기능성	5	4	3	2	1	2	3	4	5	다양성
기능성	5	4	3	2	1	2	3	4	5	상호작용성
기능성	5	4	3	2	1	2	3	4	5	쾌적성
기능성	5	4	3	2	1	2	3	4	5	유연성
적응성	5	4	3	2	1	2	3	4	5	접근성
적응성	5	4	3	2	1	2	3	4	5	다양성
적응성	5	4	3	2	1	2	3	4	5	상호작용성
적응성	5	4	3	2	1	2	3	4	5	쾌적성
적응성	5	4	3	2	1	2	3	4	5	유연성
접근성	5	4	3	2	1	2	3	4	5	다양성
접근성	5	4	3	2	1	2	3	4	5	상호작용성
접근성	5	4	3	2	1	2	3	4	5	쾌적성
접근성	5	4	3	2	1	2	3	4	5	유연성
다양성	5	4	3	2	1	2	3	4	5	상호작용성
다양성	5	4	3	2	1	2	3	4	5	쾌적성
다양성	5	4	3	2	1	2	3	4	5	유연성
상호작용성	5	4	3	2	1	2	3	4	5	쾌적성
상호작용성	5	4	3	2	1	2	3	4	5	유연성
쾌적성	5	4	3	2	1	2	3	4	5	유연성

질문 2) 라키비움 공간평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위하여 [기능성]의 세부지표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해당란에 표시해 주세요. (중요도가 비슷한 경우 1점에 표기)

상대평가항목 (왼쪽 평가항목)	상대적 중요도									상대평가항목 (오른쪽 평가항목)
	왼쪽 평가항목이 더 중요함			양쪽의 중요도가 비슷함			오른쪽 평가항목이 더 중요함			
	5-----1-----5									
필수 공간 구비	5	4	3	2	1	2	3	4	5	공간기능의 효율성
필수 공간 구비	5	4	3	2	1	2	3	4	5	충분한 공간 확보
공간기능의 효율성	5	4	3	2	1	2	3	4	5	충분한 공간 확보

다음 페이지에 계속

질문 3) 라키비움 공간평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위하여 [적응성]의 세부지표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해당란에 표시해 주세요. (중요도가 비슷한 경우 1점에 표기)

상대평가항목 (왼쪽 평가항목)	상대적 중요도									상대평가항목 (오른쪽 평가항목)
	왼쪽 평가항목이 더 중요함			양쪽의 중요도가 비슷함			오른쪽 평가항목이 더 중요함			
	5-----1-----5									
공간의 유연성	5	4	3	2	1	2	3	4	5	이용자의 적응 용이성
공간의 유연성	5	4	3	2	1	2	3	4	5	공간 안정감
공간의 유연성	5	4	3	2	1	2	3	4	5	공간 이용 집중도
공간의 유연성	5	4	3	2	1	2	3	4	5	지속가능한 공간환경
이용자의 적응 용이성	5	4	3	2	1	2	3	4	5	공간 안정감
이용자의 적응 용이성	5	4	3	2	1	2	3	4	5	공간 이용 집중도
이용자의 적응 용이성	5	4	3	2	1	2	3	4	5	지속가능한 공간환경
공간 안정감	5	4	3	2	1	2	3	4	5	공간 이용 집중도
공간 안정감	5	4	3	2	1	2	3	4	5	지속가능한 공간환경
공간 이용 집중도	5	4	3	2	1	2	3	4	5	지속가능한 공간환경

질문 4) 라키비움 공간평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위하여 [접근성]의 세부지표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해당란에 표시해 주세요. (중요도가 비슷한 경우 1점에 표기)

상대평가항목 (왼쪽 평가항목)	상대적 중요도									상대평가항목 (오른쪽 평가항목)
	왼쪽 평가항목이 더 중요함			양쪽의 중요도가 비슷함			오른쪽 평가항목이 더 중요함			
	5-----1-----5									
물리적 도달 용이성	5	4	3	2	1	2	3	4	5	심리적 접근 용이성
물리적 도달 용이성	5	4	3	2	1	2	3	4	5	방문객 유입 촉진
물리적 도달 용이성	5	4	3	2	1	2	3	4	5	공간 간의 유기적 구성
물리적 도달 용이성	5	4	3	2	1	2	3	4	5	신속한 정보취합
심리적 접근 용이성	5	4	3	2	1	2	3	4	5	방문객 유입 촉진
심리적 접근 용이성	5	4	3	2	1	2	3	4	5	공간 간의 유기적 구성
심리적 접근 용이성	5	4	3	2	1	2	3	4	5	신속한 정보취합
방문객 유입 촉진	5	4	3	2	1	2	3	4	5	공간 간의 유기적 구성
방문객 유입 촉진	5	4	3	2	1	2	3	4	5	신속한 정보취합
공간 간의 유기적 구성	5	4	3	2	1	2	3	4	5	신속한 정보취합

다음 페이지에 계속

질문 5) 라키비움 공간평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위하여 [다양성]의 세부지표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해당란에 표시해 주세요. (중요도가 비슷한 경우 1점에 표기)

상대평가항목 (왼쪽 평가항목)	상대적 중요도									상대평가항목 (오른쪽 평가항목)
	왼쪽 평가항목이 더 중요함			양쪽의 중요도가 비슷함			오른쪽 평가항목이 더 중요함			
	5-----1-----5									
정보제공 공간의 다양성	5	4	3	2	1	2	3	4	5	공간별 활용 다양성
정보제공 공간의 다양성	5	4	3	2	1	2	3	4	5	선택적 공간 이용
공간별 활용 다양성	5	4	3	2	1	2	3	4	5	선택적 공간 이용

질문 6) 라키비움 공간평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위하여 [상호작용성]의 세부지표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해당란에 표시해 주세요. (중요도가 비슷한 경우 1점에 표기)

상대평가항목 (왼쪽 평가항목)	상대적 중요도									상대평가항목 (오른쪽 평가항목)
	왼쪽 평가항목이 더 중요함			양쪽의 중요도가 비슷함			오른쪽 평가항목이 더 중요함			
	5-----1-----5									
내외부 공간의 상호작용	5	4	3	2	1	2	3	4	5	공간 간 융합
내외부 공간의 상호작용	5	4	3	2	1	2	3	4	5	휴식커뮤니티 공간 형성
내외부 공간의 상호작용	5	4	3	2	1	2	3	4	5	쌍방향적 정보교류
공간 간 융합	5	4	3	2	1	2	3	4	5	휴식커뮤니티 공간 형성
공간 간 융합	5	4	3	2	1	2	3	4	5	쌍방향적 정보교류
휴식커뮤니티 공간 형성	5	4	3	2	1	2	3	4	5	쌍방향적 정보교류

다음 페이지에 계속

질문 7) 라키비움 공간평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위하여 [쾌적성]의 세부지표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해당란에 표시해 주세요. (중요도가 비슷한 경우 1점에 표기)

상대평가항목 (왼쪽 평가항목)	상대적 중요도									상대평가항목 (오른쪽 평가항목)
	왼쪽 평가항목이 더 중요함			양쪽의 중요도가 비슷함			오른쪽 평가항목이 더 중요함			
	5-----1-----5									
심미적 가치 제공	5	4	3	2	1	2	3	4	5	공간-사용자 간 인터페이스
심미적 가치 제공	5	4	3	2	1	2	3	4	5	자료 보존 환경
심미적 가치 제공	5	4	3	2	1	2	3	4	5	친환경적 공간 조성
심미적 가치 제공	5	4	3	2	1	2	3	4	5	안정감 향유
심미적 가치 제공	5	4	3	2	1	2	3	4	5	사용자의 참여 촉진
공간-사용자 간 인터페이스	5	4	3	2	1	2	3	4	5	자료 보존 환경
공간-사용자 간 인터페이스	5	4	3	2	1	2	3	4	5	친환경적 공간 조성
공간-사용자 간 인터페이스	5	4	3	2	1	2	3	4	5	안정감 향유
공간-사용자 간 인터페이스	5	4	3	2	1	2	3	4	5	사용자의 참여 촉진
자료 보존 환경	5	4	3	2	1	2	3	4	5	친환경적 공간 조성
자료 보존 환경	5	4	3	2	1	2	3	4	5	안정감 향유
자료 보존 환경	5	4	3	2	1	2	3	4	5	사용자의 참여 촉진
친환경적 공간 조성	5	4	3	2	1	2	3	4	5	안정감 향유
친환경적 공간 조성	5	4	3	2	1	2	3	4	5	사용자의 참여 촉진
안정감 향유	5	4	3	2	1	2	3	4	5	사용자의 참여 촉진

질문 8) 라키비움 공간평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위하여 [유연성]의 세부지표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해당란에 표시해 주세요. (중요도가 비슷한 경우 1점에 표기)

상대평가항목 (왼쪽 평가항목)	상대적 중요도									상대평가항목 (오른쪽 평가항목)
	왼쪽 평가항목이 더 중요함			양쪽의 중요도가 비슷함			오른쪽 평가항목이 더 중요함			
	5-----1-----5									
다목적 공간사용 가능성	5	4	3	2	1	2	3	4	5	상황에 따른 공간 대응
다목적 공간사용 가능성	5	4	3	2	1	2	3	4	5	공간 내 확장감 부여
다목적 공간사용 가능성	5	4	3	2	1	2	3	4	5	가변적 구조 형성
다목적 공간사용 가능성	5	4	3	2	1	2	3	4	5	정보환경 변화 대응
상황에 따른 공간 대응	5	4	3	2	1	2	3	4	5	공간 내 확장감 부여
상황에 따른 공간 대응	5	4	3	2	1	2	3	4	5	가변적 구조 형성
상황에 따른 공간 대응	5	4	3	2	1	2	3	4	5	정보환경 변화 대응
공간 내 확장감 부여	5	4	3	2	1	2	3	4	5	가변적 구조 형성
공간 내 확장감 부여	5	4	3	2	1	2	3	4	5	정보환경 변화 대응
가변적 구조 형성	5	4	3	2	1	2	3	4	5	정보환경 변화 대응

다음 페이지에 계속

질문 9) 기타 평가의견

위의 항목 외에 추가될 지표 혹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의견은 소중히 받아 좋은 연구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일 : 2021년 월 일 평가자: (인)

인터뷰

앞서 시행된 공간평가가 대학도서관의 라키비움 도입을 위한 활용도가 있는지, 대학 내 실정에 맞는지, 실현의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 공간 각각의 기능이 효율적이고 동선이 체계화되어 있는가?

- A 자료 공간과 열람공간이 구분되어 있으며, 자료실 내에서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도서관이 높은 빌딩이 아니고 2층과 3층으로 되어 있어서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3층은 공부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B 공간을 분리해서 생각해 보면 각 파트별 기능이 뚜렷한 곳이기 때문에 기능적인 면에서는 효율적이고 명확하나 이용자 입장에서 동선은 편리하지 않으며, 현재 공간의 경우 도서관 뿐만 아니라 강의실과 푸드코트 등 다양한 시설이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용하려는 이용자의 경우 동선과 이용면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생합니다.
- C 스타센터 도서관의 경우 공간 자체가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여 동선 또한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기둥이 많고, 처음 온 이용자의 경우 원하는 공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 D 공간별로 각 역할에 맞는 기능을 수행하기는 충분하지만, ㄷ자형 건물구조와 제한된 출입문으로 인해 동선이 비효율적입니다.
- E 가로로 길게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 이용이 까다로워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있고, 몇 층에 어디가 있고 그런 식이 아니라 어딜 지나고 지나서 가야 하는 그런 동선을 가지고 있어 아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F 층간 구조가 어려우며 문학, 역사와 같은 주제의 도서를 찾기 위해서는 돌아서 가야 한다는 점에서 동선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1번 문항의 경우 공간의 기능적인 면에서는 효율적이고 명확하지만, 공간 자체가 복잡하고 ‘ㄷ자형’ 건물구조와 제한된 출입문으로 인해 동선이 체계적이지 않아 처음 방문하는 이용자나 몸이 불편한 이용자는 이용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2) 공간을 이용할 때 집중도가 높은가?

- A 집중도가 높도록 설계하였는데 이용자의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면 100점 만점에 88점을 받았으니 집중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 B 이용자의 경우 도서관 방문 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에서 개인적 휴식 공간으로 찾아오는 빈도가 높아졌으며 그에 따른 공간의 변화가 많이 일어났으며, 집중도 또한 변화된 공간에 맞게 높아진 것으로 예상됩니다.
- C 공간마다 컨셉과 기능이 달라서 집중도는 높은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 D 공간과 공간을 물리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특정 일부 공간(미디어밸리)을 제외하면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 E 네. 공간별 학습공간, 휴식공간, 체험공간 목적이 뚜렷하게 나뉘어 있어 집중도가 높은 편입니다.
- F 이용자들의 휴식공간이 많이 흩어져 있어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2번 문항은 공간마다 컨셉과 기능이 뚜렷하게 나뉘어 있고 개인적 휴식공간으로도 찾아오는 이용자의 빈도가 높아지면서 공간 변화가 많이 일어났고 변화된 공간에 맞게 높아졌다는 의견이 대부분이고 곳곳에 흩어져 있는 휴식공간으로 인해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다.

3)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취합할 수 있는 공간 구성인가?

- A 자료 구분이나 도서 검색이 쉽게 되어 있는 관계로 정보를 빠르게 취합할 수 있습니다.
- B 기존의 도서관의 경우 사회과학, 어문학, 서양사, 기독교, 미디어 자료 등 각각의 위치에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고 서비스하였지만, 현재는 넓은 도서관에서 여러 곳을 다니지 않더라도 이용자는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큐레이션 파트, 베스트셀러, 신착도서, 강의 지정 도서 등 이용자가 이용률이 높은 정보 등을 일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함으로써 서비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C 원하는 정보를 입구에서 검색하여 찾을 수 있도록 PC 존과 검색대를 마련해두었고 도서가 주제분류별로 잘 구축되어 있으며, 자료실 곳곳에도 검색대가 있어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고 특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해둬서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 D 건물구조로 인해 동선이 비효율적인 만큼 정보를 빠르게 취합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E 네 목적별로 명확하게 공간이 구성되어 있어 원하는 정보를 신속히 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 F 이용자들이 도서를 찾기 어려운 공간 구조이기 때문에 원하는 정보를 찾으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3번 문항의 경우에는 입구나 자료실 곳곳에 비치된 검색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구축되어 있어 넓은 도서관 여러 곳을 헤매지 않아도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취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4) 사용자의 선택적 공간 이용이 가능한가?

- A 열람실이나 자료실 어디든지 선택적으로 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B 개인적으로 공부, 휴식, 팀 프로젝트, 영화관람 등 다양한 부분이 모두 예약 필수이므로, 사용자는 본인이 원하는 목적에 맞는 장소를 직접 예약함으로써 선택적 공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 C 선택적으로 열람실/자료실을 이용할 수 있지만, 자료실 내에서는 문이나 벽이 없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공간을 이용하더라도 완벽하게 분리되어 공간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 D 이용 목적에 따라 공간이 유의미하게 구별된다고 생각합니다.
- E 학습공간에서의 독서, 노트북, 태블릿 pc 이용, 공부와 휴식공간에서의 휴식, 학습 등 비교적 자유로운 선택적 공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 F 이용자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공간이 있으며 이용도 용이하기 때문에 선택적 공간 이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실의 경우에는 문이나 벽이 없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공간을 이용하더라도 완벽하게 분리된 공간을 이용할 수 없지만, 예약이 필수인 공간이 다수이므로 이용목적에 따라 유의미하게 구별되어 선택적으로 공간 이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5) 라키비움 내 공간들이 잘 융합되었는가?

- A 오래되고 이용이 저조한 자료는 1층이나 지하 보존 자료실로 이전하고 많이 이용하는 자료는 2층에 비치하여 이용의 편리성을 추구했으며, 전주대학교가 기독교 이념으로 세워진 대학으로 도서관 곳곳에 기독교 성화작품을 전시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 B 우선 전주대학교 도서관의 경우 생각보다 공간이 굉장히 넓으며, 라키비움이 도입되었다는 가정하에 공간들의 경우 잘 융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C 전주대학교 도서관에 라키비움이 도입되었다는 가정으로 보면 융합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도서만으로도 공간이 부족한 상태이며, 행정 박물이나 기록물들이 도서관에서 같이 관리된다면 공간이 매우 협소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D 전체적인 공간 부족으로 현재 면적에 라키비움 도입 시 공간의 융합이 어렵고 추가 공간 확보가 꼭 필요합니다.
- E 한정적인 공간으로 인하여 라키비움이 도입되어도 협소한 공간으로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5번 문항은 만약 라키비움이 도입되었다고 가정한 응답들인데 이미 도서만으로도 공간이 부족하며 행정 박물이나 기록물이 같이 관리된다면 공간이 매우 협소해질 것을 우려하였고 추가공간의 확보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이용자의 이용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이 저조한 자료는 보존 자료실로 이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라키비움이 도입된다면 잘 융합될 것이라는 반대의 의견도 제시하였다.

6) 자료 보존을 위한 충분한 환경이 조성되었는가?

- A 이용이 저조한 자료는 2개 층에 보존하고 있습니다.
- B 일반 이용자가 이용하는 것 외에도 자료 보존을 위해 보존서고를 따로 운영하고 있으며, 1층과 지하 1층 두 개의 층을 사용하며, 자료 보존의 환경은 조성되어있으며 운영하는 중입니다.
- C 현재 있는 보존서고도 향온항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장소가 크지 않아 자료를 폐기해야 하는 상황에 도달하였습니다.
- D 보존서고 등 자료의 보존을 위한 공간이 존재하나 공간이 협소합니다.
- E 한정된 공간에 많은 자료를 도입하기 어렵습니다. 지하에 보존서고도 조금씩 차고 있고, 앞으로는 물리적 자료보다 전자자료의 비중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 F 보존서고를 위한 공기청정기, 책 소독기와 같은 기본적인 용품이 잘 구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 보존을 위한 환경은 보존서고를 따로 운영하고 있고 공기청정기, 책 소독기 등의 기본 용품이 잘 구비되어있어 잘 운영되는 중이지만 이제는 한정된 공간에 많은 자료를 도입하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물리적인 자료보다 전자 자료의 비중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7) 정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가?

- A 전주대 도서관이 2011년에 오픈하였는데 정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여 이용자의 욕구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 B 정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으나, 기존의 것을 보존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기존의 해왔던 방식들, 공간 구성들, 예산적 측면 등 다방면으로 바라봐야 하지만 현재 전주대학교 도서관의 경우 지속적으로 바뀌는 정보환경 속에서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C 정보환경 변화에 대응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애매하나, 환경 변화에 따라 도서관 내 공간을 다양하게 구성할 예정입니다. 메이커스 페이스나 휴식 공간,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토론공간이나 스터디 공간을 확대할 예정이며 스튜디오 공간 구성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 D 근무자의 공간 활용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 E 네. 과거의 도서관이 도서관이라는 정보의 집합체를 모아 제공함으로써, '도서관'이 되듯이 앞으로의 도서관은 전통적인 기능과 더불어 다양한 4차 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고 무겁고 딱딱한 이미지의 도서관에서 벗어나 이용자들이 언제나 재밌게 쓸 수 있는 융·복합 문화쉼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F 주기적으로 교육을 권장하며 수강하고 있어 잘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번 문항은 기존의 지속적인 방식들, 공간 구성들, 예산상의 측면 등 모든 것을 다방면으로 바라봐야 하지만 지속적인 정보제공의 노력을 하고 있고, 공간구성 다양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하였다. 무겁고 딱딱한 이미지의 도서관에서 벗어나 4차 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고 이용자들이 언제든지 재미있게 쉴 수 있는 융·복합 문화쉼터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까지 평가자 모두가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8) 기타 평가 의견

- A 요즘 정보환경의 변화가 심하여 타 대학도서관 리모델링이나 신축도서관을 가보면 책이 없는 도서관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놓고 쉬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도서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학도서관과 책과 공존해야 할 것 같습니다.
- B 도서관의 경우 라키비움 도입 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기존의 가지고 있던 방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어렵습니다. 이미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라는 인식과 도서관의 사회적 위치가 매우 낮기 때문에 예산과 정책 등 현실적인 벽에 많이 막히게 합니다. 하지만 도서관에 찾아오는 이용자에게 어떻게 하면 찾고자 하는 정보를 제공할지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에 도출하여 혁신적인 이론이 아니더라도 도서관, 박물관 등 연구하는 대상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원합니다.
- C 도서관과 박물관 기록관을 통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도서관의 경우는 도서를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공간이 부족한 상태이며 라키비움을 구성하려면 스타센터의 도서관 공간뿐 아니라 푸드코트나 컴퓨터센터 공간까지 확장하여 스타센터 전체를 라키비움으로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교내에서는 이미 각 부서가 공간을 이용하고 있고, 그 공간을 라키비움으로 쓴다면 그 공간들을 옮겨갈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구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의 도서관에 기록관이나 박물관을 흡수하였을 때 도서관이 아닌 기록물이나 박물관을 이용하려 오는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며, 저희의 주된 이용자인 대학생들이 기록물이나 박물관의 이용을 원하는 니즈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D 기존 도서관에 라키비움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E 새로운 공간으로 변화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오고 싶은 공간’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텔을 예시로 들면 같은 호텔보다는 수영장, 낚시, 게임, 노래방, 맛있는 레스토랑, 포토존 등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소가 있는 곳으로 발길이 가기 마련입니다.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 위 세 기관의 공통점은 조용한 이미지로 정숙함을 가지고 있으며, 위 기관에 가야 할 목적이 없으면 발길이 잘 안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도서관은 ‘도서’와 더불어 밖에선 쉽게 체험하기 힘든 다양한 ‘4차 자원’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하고, 시간이 날 때 찾는 카페처럼 무거운 이미지를 탈피한 ‘문화쉼터’가 되어, ‘오고 싶은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도서관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같은 동네라고 해도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하기 어려웠는데 이러한 점을 조금씩 보완하고 있습니다.

- E 라키비움 연구는 변화하는 정보환경에 맞는 훌륭한 대처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물관 방문 목적으로 와서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 갈 수 있고, 반대로 도서관에 왔다가 기록물, 박물관도 체험해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습적인 공간과 더불어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재미있는 공간까지 노려볼 수 있다면 일석이조로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대학도서관의 라키비움 도입을 위한 공간평가에 대한 활용도를 보면 아주 유의미함을 알 수 있었다. 라키비움의 도입에 대하여는 공간의 부족함이나 확장이라는 단어가 많이 표현되었고 기존 방식에서 변경하는 과정의 어려운 점들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용자에게 더 많은 정보제공과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 항상 고민하고 있다는 평가자의 의견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의 도서관은 도서와 더불어 밖에선 쉽게 체험하기 힘든 다양한 ‘4차 자원’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하고 무거운 이미지를 탈피한 문화쉼터가 되어 ‘가고 싶은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라키비움은 변화하는 정보환경에 맞는 훌륭한 대처방안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은 ‘4차 자원’이라는 키워드가 도출되면서 공간평가를 통한 대학도서관의 라키비움 도입을 위한 실현 가능성의 유의미함과 타당성을 보여주고 있다.

국문 초록

대학도서관의 라키비움 도입을 위한 공간평가 모형개발

오수현

지도교수 : 윤 갑 근

디자인경영학과

조선대학교 대학원

대학과 사회의 유기적인 관계는 대학의 형성과 그 발전과정 속에 잘 나타나 있다. 대학과 지역사회는 서로 분리되었다고 볼 수 없고 연결된 형태이며 지역사회의 필요에 따라 설립되어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복리를 위한 기능을 해왔다.

지역사회의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로서, 구조적 사회적 존재로서의 공공성이 요구되면서 대학도서관의 활용 가치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고 활용방안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지금의 대학도서관은 이용자의 성격이 점점 다양해지면서 이용자의 행태를 반영하고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역할 다변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복합문화공간의 조성으로 그 역할을 확대하여야 한다. AI와 빅데이터, IOT, 3D 컴퓨터 등의 첨단 정보기술 발전과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 증가로 복합적인 기능과 임무를 수행하는 시설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박물관과 미술관, 공연장을 이용하는 문화시설 이용자들은 그 대상이 도서관이나 기록관, 박물관, 미술관과 관계없이 하나의 단일 접근점과 인터페이스로 정보를 제공받기를 요구하고 있다. 각 기관이 서로 간 기능과 공간의 경계를 허물고 융합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라키비움(Larchiveum)으로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국외에서는 라키비움 구축사례를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며 국내에도 라키비움의 도입 및 필요성을 제기하는 연구가 시급하다.

본 연구는 첨단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문화시설 이용자의 요구 및 대학도서관에 대

한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복합문화시설과 공간 개념으로 우리나라에 적용되고 있는 라키비움을 대학도서관에 도입하기 위한 공간평가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다. 라키비움의 도입을 위한 공간구성 방안을 이용자 중심적이고 공간과 콘텐츠, 프로그램, 이용자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대학도서관에 박물관과 기록관의 기능을 융합하며, 도서관 공간을 기능별로 재구성 할 수 있는 대학 라키비움이 되도록 평가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화발전과 대학 자체 내 기능을 확장,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연구는 라키비움 관련하여 2012년부터 진행되어온 15명의 선행연구자의 공간 특성 분석을 바탕으로 공간평가 항목과 그에 따른 세부내용들을 도출한 후 1차 예비 지표를 도출한다. 1차로 도출된 공간평가 항목과 지표들을 바탕으로 중요도 분석 및 전문가 FGI를 통하여 공간평가 예비지표를 선정하고 2차 전문가 AHP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AHP 결과종합 표와 최종평가지표 항목별 가중치 종합 표를 개발하였다. 이 평가 지표를 검증하기 위한 표본설정을 지방의 4년제 대학 중 재학생 수 10,000명 이상, 2010년 이후 신축한 대학도서관 중 전주대학교를 선정하였고 우선적으로 관리관계자 6명에게 공간평가를 하였다. 심층 면접을 통하여 도출된 평가분석 결과는 평가의 세부 항목에 따라서 평가자의 주관적인 관점, 그리고 근무하는 부서에 따라 평가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공간평가 결과표를 살펴보면 그 차이가 뚜렷이 나타났고 이런 부분이 문항의 평균점수와도 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인터뷰 내용 또한 평가자별로 뚜렷한 평가 차이를 보였다. 개발된 공간평가모형은 중요도 분석을 통하여 공간 특성별 상위 대표 우선순위가 도출되었고 이러한 세부적인 공간평가모형은 중요도에 따라 명확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발된 평가모형은 평가함수를 지니고 전문성을 갖춘 객관적인 평가로써 공간평가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손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대학도서관에서 라키비움 도입 시 고려되어야 할 공간의 구성이나 계획단계에서 공간평가모형이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추가연구와 이를 공간에서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 바란다.